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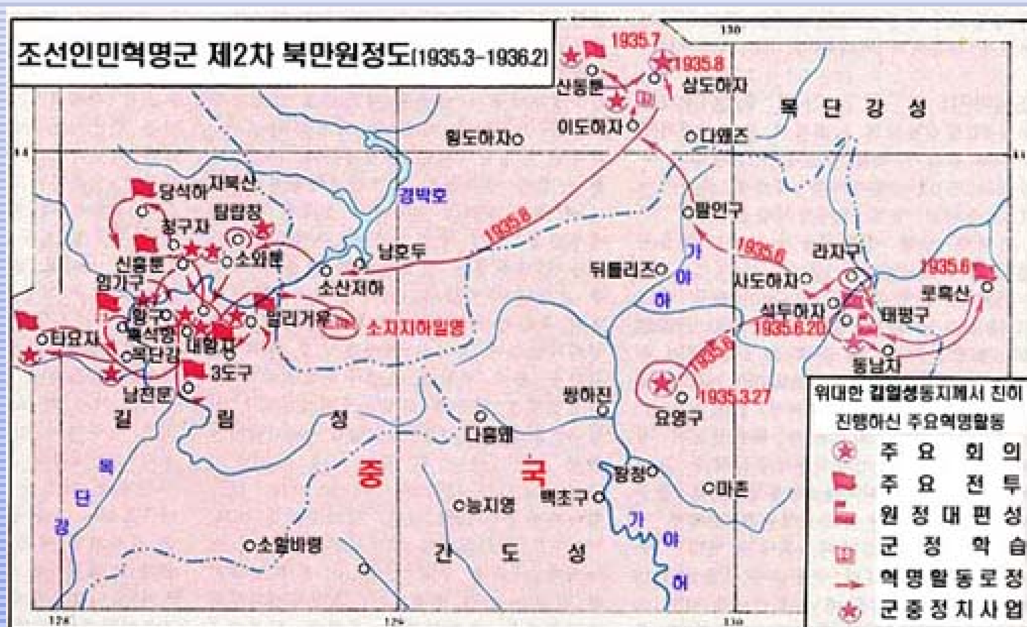
차 례

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11장 혁명의 분수령

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제11장



조선인민혁명군 제2차 북만원정도(1935.3-1936.2)
1935.7
1935.8
산동툰
삼도하자
이도하자
목 단 강 성
다왜즈
횡도하자
경박호
당석하
자북산
탑랍창
청구자
신흥툰
소와룡
임가구
남호두
소산자하
1935.8
팔인구
1935.6
뒤뚤리즈
라지구
사도하자
석두하자
1935.6.20
태평구
1935.6
로흑산
동남차
티요자
북석항
목단강
3도구
남전툰
소지지하밀영
1935.6
1935.3.27
요영구
쌍하진
길 림 성
중 국
다홀왜
목 단 강
왕청
마촌
백조구
능지영
소왕바령
간 도 성
가 야 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진행하신 주요혁명활동
주요회의
주요전투
원정대편성
군정학습
혁명활동로정
군중정치사업

혁명의 분수령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기이한 인연
경박호 기슭에서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
백전노장 최현

■ 시기 : 1935. 5 ~ 1936. 3

1.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인민혁명군의 제2차 북만원정준비는 노흑산전투와 태평구전투를 통하여 완결되었다. 왕청과 훈춘연대의 일부중대들과 청년의용군으로 편성된 원정대가 인민들의 성대한 환송을 받으면서 태평구를 출발한 것은 1935년 6월 하순이었다. 석두하자와 사두하자를 거쳐 팔인구에 도착한 원정부대는 노야령을 돌파하기 위한 어려운 산악행군의 길에 올랐다. 장사진을 이루고 흘러가는 행군종대의 대오에는 안도에서 온 독립연대의 일부대원들도 끼여 있었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2차 북만원정을 회상할 수 있는 인물은 당시 왕청 4중대 대원이였던 오진우 밖에 없는 것 같다. 2차 북만원정에 참가한 전우들 가운데는 한흥권, 전만송, 박태화, 김태중, 김려중, 지병학, 황정해, 현철, 이두찬, 오준옥, 전철산 등도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가 버렸다.

1차 북만원정 당시의 노야령은 장설로 뒤덮인 설령이었으나 2차 북만원정을 떠날 때의 노야령은 일만초목에 여름빛이 짙어가던 청산녹립이었다. 1934년 10월에는 설한풍을 헤치며 이 영을 넘었다면 1935년 6월에는 살을 지지는 것같은 뙤약볕과 모기떼의 성화를 받으며 이 영을 넘어야만 했다. 혹한과 폭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였지만 폭양과 땀도 만만치 않은 장애였다.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실은 군마들은 경사가 급하고 초목이 뒤엉킨 행군로를 헤치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 마필들이 걸음을 멈추고 한자리에서 뭉갤 때마다 우리는 치도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톱으로 진대나무를 자르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가 노야령을 넘고 있을 때 관내에서는 모택동과 주덕이 인솔하는 중국노농홍군이 이중삼중으로 되는 장개석군대의 봉쇄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2만5천리장정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었다. 1935년 5월 30일 대도하에 당도한 홍군은 치열한 격전 끝에 노정교라고 부르는 고대철삭교를 차지하고 수만평에 달하는 장정용사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다. 5월 30일은 태평천국운동의 지도자 석달개가 대도하를 건느려고 시도한 날이며 상해 5.30참안 10돐이 되는 날이었다. 이런 운명적인 날에 용감무쌍한 홍군결사대가 노정교를 돌파한 것은 자못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귀주전역에 대한 보도에 이어 간도에 날아든 대도하도하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노정교전투가 있은 후 홍군은 장정노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의 하나인 대설산과 협금산을 연속적으로 돌파하고 감숙평원에 들어섰다.

우리는 그때 장강이 범람하여 몇십만 명이 죽었다거나 대만 어디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 몇천 채의 집이 파괴되었다는 식의 비극적인 소식보다도 브뤼셀에서 만국박람회



만주광야의 수수밭

가 열렸다거나 모스크바에서 지하철도가 개통되었다거나 2만5천리장정을 개시한 중국홍군이 어느 지점을 통과했고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는 식의 낭만적인 소식을 더 중시하였다.

우리가 노야령을 넘은 것은 장정중의 홍군이 대설산을 돌파한 것과 같은 거사였다. 대부분의 원정대원들은 휴식구령이 떨어질 때마다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여 아무데나 쓰러져 노독을 풀곤하였다. 쉴참이면 사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들이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배고픈 것과의 타협이 힘든 것처럼 자고 싶은 것과의 타협도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였다. 그러나 원정대원들 중에는 행군강도가 높다고 불평하거나 행군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지휘관들의 구령에 따라 치차처럼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우리가 사전에 정치사업을 충분히 한 것만큼 그들은 북만원정의 목적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만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정신적 준비도 갖추고 있었다.



연안에서 농민들과 담화하는 모택동

인민혁명군의 활동무대로 될 수 있는 대지는 노야령 이남의 동만땅과 남만지방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다면 인민혁명군이 자기의 발상지이고 보금자리인 동만을 떠나 유격구 해산후의 첫 원정후보지를 북만으로 정하고 숨가쁘게 노야령을 톺아오르게 된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는가. 그 어떤 정치군사적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본군과 만주국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북만주로 원정대를 이끌고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던가.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북만주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전면적인 협조, 협동, 협력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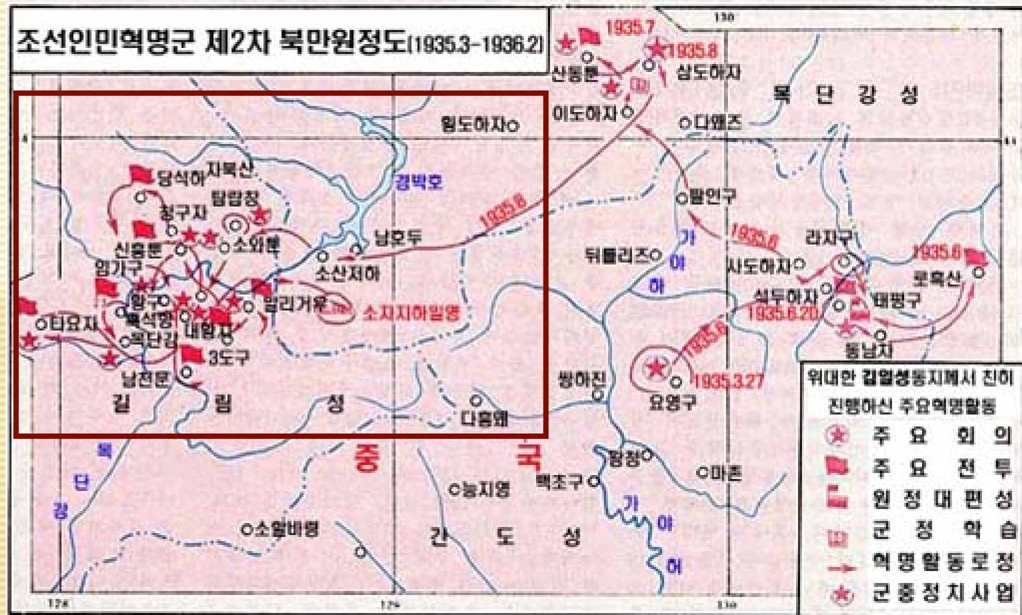
동만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 영솔자, 주창자의 대부분이 조선사람들이였던 것처럼 북부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주동 인물들의 대부분도 다름아닌 조선사람들이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북만의 유격운동을 개척하는데서도 선구적이며 핵심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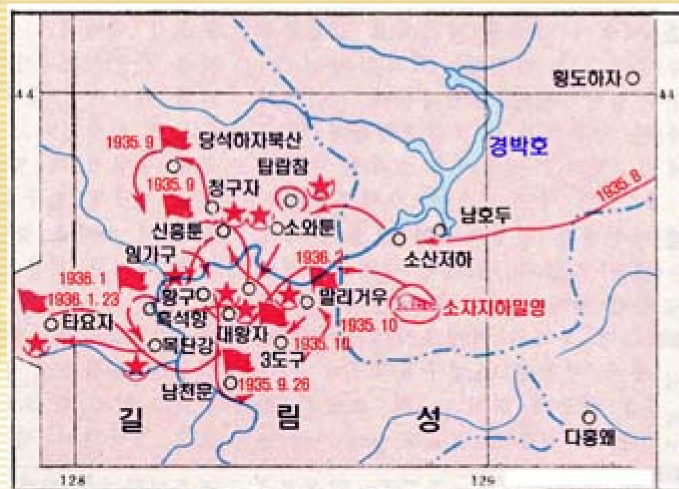
주보중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동북혁명을 위해 바친 조선사람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찬하였다.

≪1930년 당시 동북 각 지방의 현당위원회 비서들과 구당위원회 비서들은 대부분 조선동지들이였소. 연변의 여러 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안, 밀리, 탕원, 요하, 보청, 호림, 의란 등 북만 여러 현의 당위원회비서들과 현당위원회들도 거의 다 조선족 간부들이였단 말이요.≫

항일혁명이 최후단계에 돌입하고 있던 어느 해 봄날 나와 함께 아무르강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하바로프스크주변의 북밀영 모래터를 산책하던 그는 항일연군시절의 공동투쟁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조선동지들의 업적을 빼놓고서는 항일연군의 발전역사도 운운할 수가 없소. 2군의 90%이상이 조선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 1군, 3군, 4군, 6군, 7군의 시초를 열어놓은 주인공들도 이홍광, 이동광, 최용건, 김책, 허형식, 이학만과 같은 조선동지들이 아니겠소, 노위와 양정우가 희생된 다음부터는 **김일**





성사령이 여러 해 동안 2군은 물론, 1군까지 통솔하면서 항일전쟁을 영도해오고 있는데 동북혁명의 주인들인 우리로서는 사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싶은 때가 많소. 우리는 항일전쟁이 끝난 다음 동북땅에 조선족출신 열사들의 기념비를 꼭 건립하려고 결심하였소.≫

주보중은 항일전쟁이 끝난 후 실지로 길림성 당위원회를 통하여 길림과 연변지구에 조선족출신 열사들의 기념비를 세울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사람들은 북만주지방에 가서도 일만관헌들과 토착지주들에 의해 우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송로평원을 비롯한 일망무제의 대평원들과 황무지들로 이어진 남북만의 광야는 연간 수천만 톤의 알곡소출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곡창지대였지만 여기서도 조선의 가난한 교포들과 개척민들은 사시장철 식의주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전직후 어느 간소한 연회석상에서 나는 이영호가 어린시절 북만에서 체험했던 기아를 회고하며 눈물을 짓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형호네 일가가 오인반인가, 삼차구인가, 요하에서 살 때였다고 하니 아마 1915년 전후였다고 생각된다. 절량의 고통에 시달리던 그들은 양배추 줄기로 한해 가을을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 변변치 못한 음식도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흘을 내처 먹고 나니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였다. 어린 영호는 부모들의 눈을 피해가며 그 쫄쫄한 음식물

을 무릎 아래에 모조리 뱉아버리고 죽물만 마시곤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더라고 하였다.

그 시절의 이영호는 가난 덕으로 바지도 쌀포대로 해입었다. 복판에 ≪白米≫(백미)라는 남색글자가 큼직하게 찍혀 있는 포대였는데 안팎의 고려가 없이 재단을 아무렇게나 한 탓으로 그 두 글자는 바지를 만든 다음에도 오른쪽 가랭이 바깥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린 영호는 그것을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도대체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신비한 표적처럼 감수하면서 눈에 익혀두기까지 하였다. 괴이한 글자가 찍힌 단벌바지를 매일같이 입고 다니면서도 불쌍한 영호는 흰글자가 말해주는 흰쌀밥을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채 유년시절을 보냈다.


최용건

이것은 북만주교포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빈궁의 일단이다.

일찍이 이돈화도 잡지 ≪개벽≫에 ≪남만주행≫이라는 글을 쓰면서 만주에 가보니 마적들이 득실거리고 그 행패가 심하더라고 하였지만 북만은 동만이나 남만보다 마적들의 행악질도 더 우심하였다. 그것은 토벌대를 끌고 무시로 달려드는 일본군이나 위만군에 못지 않은 우환거리였다. 북만의 호적들은 살인을 식은 죽 먹기로 하였다. 비수와 단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호적들이 갈가마귀떼처럼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교포들은 공포와 불안에 쫓겨 부단히 거주지를 옮겼다. 호적들은 돈을 위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인질로 끌어가군 하였다. 깊은 산속에 사람들을 끌고가서는 귀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 인질의 집에 보내면서 이것이 당신네 아들의 귀다, 아무아무날까지 돈을 얼마만큼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장을 보내곤 하였다. 그런 협박장을 받은 집들에서는 억울한대로 가산을 다 털어서 아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적들이 요구한 돈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체로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북만은 결코 ≪왕도락토≫도 아니었고 ≪오족협회≫의 세계도 아니었다.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범람하는 사회악과 약육강식의 법칙뿐이었다. 조선민족은 이 고장에 와서도 일본의 고관들과 군벌들, 재벌들, 은행가들, 장사치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머슴군으로 되고 부림소로 되었다. 이 저주로운 현실은 북만지방의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구국전선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만에서도 조선의 선각자들은 일찍부터 공산주의운동을 주동적으로 개척하였다. 글깨나 아는 사람, 두뇌가 명석한 사람, 감수성이 민감한 조선사람들치고 공산주의운동에 뛰어 들지 않은 인물이란 거의 없었다. 똑똑한 조산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산주의를 유일한 신앙으로 삼고 타도 일제와 타도 지주, 자본가를 부르짖으며 혁명운동에 투신하였다.

북만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은 1930년대초부터 일제를 힘으로 타승하기 위한 무력항쟁준비를 하였다. 보청현에서는 최용건의 지도하에 200여명의 조선청년들을 망라한 훈련반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위한 기초축성작업을 개시하였다.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훈련반은 장차 혁명군의 골간으로 될 청년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사관학교였다. 내가 다닌 화성의숙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공부도 하고 전술학습도 하고 사격훈련도 하였다. 훈련반은 모두 10개의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령 겸 총참모장직은 최용건이 담당하고 정치위원직은 박진우(본명 김진우)가 맡고 있었다.

≪천리행군≫의 저자인 ≪비준수염≫ 김용화도 이훈련반에 망라되어 중대장을 하였다. 그에게 ≪비준수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반미대전이 끝난 1950년대 중엽이였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개시와 함께 우리 인민의 생활양식에서는 몇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은 수염쟁이들과 긴머리패들, 까까중이머리들,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였다.


김용화

나라가 바지를 어떻게 입고 머리를 어떻게 깎고 수염을 어떻게 밀라는 법령을 채택하지도 않았건만 인민의 생활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스스로 일어났다.

그런데 인민군병기창 창장인 항일투사 김용화소장만은 유독 옛모습 그대로 안창호식 콧수염을 그냥 버젓이 기르고 다녔다. 몇몇 전우들이 그에게 수염을 밀어버리라고 권유하였다. 처자들과 상급일군들까지 달라붙어 열심히 ≪함화≫를 들이댔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그는 오히려 아침마다 거울앞에 서서 극성스레 수염을 다스리군 하였다.

어느 날 김용화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수상님, 수상님께서는 저의 콧수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멋있는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오, 콧수염이 없이야 김용화가 아무리 잘난 사람인들 무슨 김용화겠소, 나는 콧수염이 없는 김용화를 상상해 본 적이 없소.≫

≪그렇다면 저의 이 수염을 비준하신단 말입니까?≫

≪비준이라니, 인민이 수상한테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들의 수염을 다스릴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소. 결정권이야 용화동무 자신에게 달려있지. 동무가 좋다면 기르는 것이고 나쁘다면 기르지 않는 것이고 ≫

≪그러면 됐습니다. 수상님, 사실은 제 그 동안 수염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용화는 희색이 만면하여 내 방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나를 만나러 오다가 그 콧수염 때문에 내각청사를 지키던 호위군관에게 단속당하였다. 호위군관들은 외모가 거칠거나 위생문화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내 방에 잘 들여보내지 않았다. 현관쪽에서 옥신각신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군관동무, 웬일이오?≫

≪소장동지더러 수염을 깎지 않으면 못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냥 ≪비준수염≫이라고 우기십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수염을 비준해주셨다는게 사실입니까?≫

호위군관은 미덥지 못한 눈길로 김용화를 흘끔 일별하였다.

≪그런 문제라면 소장동지를 더 노엽히지 마시오. 그 수염은 불가침이요.≫

그 후부터 김용화는 군대내에서 본명대신 ≪비준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9살에 장가를 들고 11살에 보탑을 잡고 호주노릇을 하였으며 13살때부터는 홍범도의 연락병이 되어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유명한 이만사격전에까지 참가한 전적을 가진 노숙한 싸움꾼이었다.

보청의 훈련반은 처음에 순수한 조선청년들로만 조직되었다. 조선독립을 이룩하려면 조선사람들끼리 부대를 무어야지 이국인이 끼여들면 대오를 운영하는데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순수한 조선인 구성은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중국인민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크게 울려 훈련반조직을 주관한 사람

들은 대열속에 2명의 중국청년을 받아들이는데 이르렀다. 그런데 이 2명의 중국청년이 훈련도중 변절하여 적들에게 훈련반의 비밀을 고스란히 제공하였다.

훈련반은 검거선풍을 피해 보청으로부터 300리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교사를 건립하였으나 거기서도 적들의 토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요하로 활동기지를 옮긴 최용건은 박진우, 황계홍, 김용화, 김지명 등의 전우들과 함께 삼의툰소학교에서 70명 정도의 청년들로 훈련반을 다시 조직하고 훈련생들 중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정수분자들을 선발하여 주구청산, 군정간부호위, 무장공작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적색특무대(일명 적색테러단)를 조직하였다. 훗날 최용건은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요하공농유격대를 조직하였다.


강건

탕원과 요하에서의 유격대조직을 전후로 하여 영안, 밀산, 발리, 주하, 위하에서도 김책, 허형식, 이학만, 김해산 등이 이끄는 무장대오들이 연이어 태어나 어려운 항일장정을 시작하였다.

김해산과 이광림이 주보중과 함께 5군의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들이면 김책, 허형식은 장수전, 조상지와 함께 3군을 건설한 노장들이며 최용건, 이학만, 이영호, 안영, 최일등은 이연록과 함께 4군과 7군을 조직하는데서 기수의 역할을 수행한 큰 공로자들이었다.

남쪽의 노야령으로부터 북쪽의 아무르강까지, 동쪽의 우쑤리강으로부터 서쪽의 대흥안령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북만의 광활한 판도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군가가 울리지 않은 고장이란 거의 없었다.

김책이 하얼빈동부와 동북부지방을 포괄하는 빈강일대를 중심무대로 하여 유격활동을 지도하고 있을 때 최용건과 이학만은 완달산줄기를 근거지로 삼고 적의 집단부락들과 후방기지들을 들이치는 끊임없는 습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 허형식은 김책, 마덕산과 연합으로 서북원정대를 조직한 다음 익측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들과의 연계를 지을 목적밑에 해륜을 비롯한 여러 현들에 진출하여 이 지대들을 과감하게 개척하였다. 강건은 노령산줄기에 활동기지를 두고 목단강 좌우연안의 산악들과 개활지대들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적들을 맵시있게 족쳤다. 애젊은 지휘관이었지만 총명한 군사지휘관으로 빨리 발전하였다.

북만지방의 유격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간도출신 투사들이 둔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동만에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충분히 검열되고 단련된 김책, 한흥권, 박길송, 안영, 최일, 전창철 등의 투사들은 북만에 가서도 적극적인 조직자, 선전자, 지도자가 되어 항일전쟁의 어려운 돌격로를 헤쳐나갔다.

북만지방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동만혁명의 전반적 발전과정을 항상 깊은 관심속에 주시하여 왔으며 동만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만에 대한 소식을 정상적으로 입수하였다.

북만사람들에게서 간도소식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여준 사람은 주보중이었다. 영안에 활동기지를 두고 왕청에 자주 드나들던 주보중휘하의 5군 통신원들과 2군에서 5군, 3군, 4군, 7군, 6군, 8군, 9군 등 북만의 여러 부대들에 파견되어 간 투사들도 동만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다.

길동국지도부(길동성위)도 동만을 소개하는 중요한 선전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만의 전우들은 바로 이 길동국을 통하여 동만지방에서 발간되던 적색계의 출판물들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같은 비밀문건들까지 입수하였다.

당시의 길동국은 동만과 남만을 북만에 연결시켜주고 북만을 동만과 남만에 연결시켜주는 교환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영호도 요하현당에서 선전부장으로 일할 때 길동국에 갔다가 거기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정식으로 배포받았다고 한다. 그가 돌아가서 전우들에게 길동국을 통하여 수집한 동만의 자료들을 다 소개하였다. 그는 항일전쟁 때 그 문건원본을 분실한데 대해 몹시 아수해하였다.

북만의 전우들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제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김책과 최용건이였다. 그들은 인민혁명군대원들과 노동자, 농민들에게 우리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내세운 총노선이 무엇이고 전략전술이 무엇이며 당면임무가 무엇인가를 정열적으로 해설해 주었으며 우리의 전투성과 도덕적 풍모를 따라배울 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였다.


김책

≪동만지방의 혁명투쟁은 지금 **김일성**대장의 지략에 따라 전진한다고 한다. **김**대장은 젊은 지도자인데 민중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도자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백의민족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품을 내여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것은 최용건이 요하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원들앞에서 한 말이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네 번이나 써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할 사명을 띠고 북만을 떠난 최용건의 연락원들은 한 명도 나한테까지 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모두 희생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만이 혈로를 헤치고 우리 부대의 활동구역인 돈화근처에까지 기적적으로 와닿았는데 그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만일 그가 적들에게 잡히지 않고 하루나 이틀만 견디였더라면 나를 만나보았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나와 최용건과의 상봉은 1941년이 아니라 벌써 1930년대 중기에 우리의 활동구역인 간도나 남북만 어느 지점에서 실현되었을 것이다.

나는 1941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김책과 최용건을 만나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이 나의 생활경위와 가정내력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 두 사람은 지어 나의 볼에 있는 보조개와 덧이가 일본밀정들이 10년 이상이나 찾아헤매는 일확천금의 목표물이라는 것과 나의 목에 수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북만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다방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책이 내가 길림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손정도목사의 후원을 많이 받은데 대하여 달 알고 있었다면 나는 김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허헌의 방조를 많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알고 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혁명가들의 일생이니만치 그들의 경력이나 행로 가운데는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과 기상천외한 일화들이 많았다. 그 사연들이 담고 있은 내용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공로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일수록 더 다채롭고 풍부하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자들이나 건달군들한테야 무슨 들을만한 이야기꺼리들이 있겠는가.

한번은 우리 부대의 어떤 통신원이 북만에 갔다가 7군군장 이학만이 11살이 다될 때까지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우들을 웃긴 일이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앙천대소하였다. 엉터리도 분수가 있지 11살이면 장가도 갈 그런 나이인데 젖을 먹다니, 이것은 날조다, 꽝포다 하고 대원들은 통신원을 막 공격하였다. 나도 물론 통신원이 들려준 이야기를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훗날 하바로프스크의 북밀영에서 이학만의 친조카인 이영호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동무의 삼촌이 11살이 될 때까지 형수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물었다.

이영호는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형수의 젖을 먹었다면 영호동무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소리인데 그 덩치가 큰 삼촌이 동무가 먹을 것까지 다 착취한 게 아니요?≫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이영호는 황황히 삼촌을 두둔하였다.

≪천만에요. 내가 그런 착취를 당할 리 있습니까. 삼촌이 먹은 것은 한쪽 젖뿐이였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내가 차지했으니까요.≫


이학만

≪그것 보시오. 동무는 50%의 식량을 착취당했단 말이요. 2,8제도 아니고 3,7제도 아닌 그런 약탈을 당하고서도 삼촌을 두둔하다니.≫

이영호는 나의 농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게 웃어댔다.

≪나는 한쪽 젖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젖량이 아주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낳자 젖이 불어나서 내가 먹고 남은 것은 그냥 짜버리군 했으니까요. 젖을 손으로 짜자면 아프기도 하고 또 끝까지 짜내지도 못하기에 하루는 할머니가 학만삼촌을 보고 우리 어머니의 젖을 좀 빨아주라고 분부했답니다. 삼촌은 분부대로 젖을 빨았습니다. 처음에는 빠는 족족 뱉어버리곤 했는데 언제였던지 장난삼아 한 모금 삼키고나서는 아주머니 젖도 어머니의 젖처럼 맛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젖을 매일같이 빨아먹군 하지 않았겠습니까. ≫

≪그 삼촌의 비위가 참말 보통이 아니구만.≫

≪네, 성격이 아주 특이했지요. 석송이가 먹을 젖을 네가 다 먹으면 어쩌니 하고 할머니가 걱정하면 삼촌은 그러길래 한편 젖만 먹지 않아요 하고 대답하군 했답니다. 석송이란 내 아명이었습니다. 내 나이 두 살인가 세 살 잡히던 해부터 삼촌은 젖을 뗐습니다. 그러나 내가 젖을 먹을 때면 우리 어머니앞에 앉아 늘 군침을 삼키군 했습니다.≫

이영호는 그날 삼촌에 대한 일화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였다.

나는 이학만의 인간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이미 고인이 된 몸이었다. 나의 이영호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던 1940년대는 북만의 항일대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야의 고혼으로 사라진 뒤였다.


이영호

지난날 북만의 여러 항일연군부대에서 싸웠던 안영은 북만주의 산야에 묻고 온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리가 태평구전투를 치르고 노야령을 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맹호와 같이 무서운 기세로 적들을 쓸어 눕히고 있었다. 바로 북만의 그 전우들이 우리와의 상면을 그처럼 절절하게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의 협력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제당과의 관계,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과의 관계, 중국반일부대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는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많았고 풀어야 할 고충들도 많았다.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하소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동만에서 ≪민생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면 그들은 북만에서 그들대로의 문제 때문에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북만행을 다그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

리가 북만의 전우들에게서 바란 것은 오직 하나 동족의 정 뿐이였다. 반≪민생단≫소동은 사랑과 믿음의 윤리만이 지배하던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정의 불모지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그 불모지에서 몇 해 동안 인정에 주림을 느끼며 그것을 오아시스처럼 그리던 사람들이였다. 노야령이 아무리 험준하다고 하여도 북만의 벗들을 향해 구름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가 제2차 북만원정을 조직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1차 북만원정을 통하여 이미 그 시초를 열어 놓은 북만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들과의 공동투쟁을 더 잘하려는데 있었다. 반제반전을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와 사회주의역량의 진출앞에서 당황망조한 제국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자주역량을 반대하는 국제적 연합을 강화하고 있었다. 인류를 세계대전의 참화속에 몰아 넣을 운명을 타고난 히틀러 독일과 무쏠리니의 이탈리아, 일본은 반공적이며 반평화적인 동맹의 결성을 서둘렀다.

이러한 정세에서 항일혁명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키려면 각국 공산주의자들, 특히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주 각 지방의 항일연군부대들이 폐쇄적이며 고립적인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합된 힘으로 타승하리라는 것은 국제당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 당신 동북지방에 조직된 여러 군의 역량은 고르롭지 못하였다. 지휘관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각 군의 전투력과 준비정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매개 군들은 익측에 있는 군들과의 연계가 없이 대체로 고정된 지역에 틀고 앉아 고군독전하고 있었다. 이런 분산성은 만주 전역에서 할거하는 유격부대들의 힘을 정황과 군사정치정세의 변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장차 매개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격부대들이 적들에게 각개격파당할 수 있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동만과 남북만에 존재하던 유격부대들은 다른 지방 유격부대들과의 연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앞에는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한정된 지역을 보위하며 고립무원하게 활동하던 종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서러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폭넓고 대담하게 전개할 전투적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런 전략적 과업을 수행함이 없이는 만주지방의 유격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 수도 없었고 통일적으로 심화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반≪민생단≫투쟁과정을 통하여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는 공동투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불화와 불심이 조성되였다. 우리가 북만에 가서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협력을 잘하면 이런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깨끗이 가셔질 수 있었다.

부대를 데리고 북만에 가서 몇 달동안 싸움을 하며 돌아다니노라면 모스크바에 간 위증민과 윤병도도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였다. 위증민과 윤병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설정했던 제2차 북만원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였다.

노야령을 넘을 때 위만군의 반변사병들로 편성된 훈춘연대 소속의 중대동무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산악행군에 숙달되지 못한 그들은 행군을 시작한 후 첫 2시간 사이에 벌써 녹초가 되였다. 나의 명령에 따라 왕청연대의 장룡산이 그 3개 중대를 맡아가지고 반변사병출신 대원들의 행군을 거들어 주었다. 전각루와 삼차구 사이에서 뗏목노동을 많이 해온 그는 두세 사람 몫의 총과 배낭을 혼자 메고서도 가파로운 영길을 씽씽 톺아올라갔다.

≪동무들, 이 영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을 가는 것이 좋겠소. 두 다리 사이에

있는 생원님도 일찌감치 뚝 떼버리구요.≫

그는 이런 농질까지 해가며 동료들을 고무해 주었다.

우리는 간난신고를 다하여 노야령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7월에야 산동툰부근에서 주보중의 거처를 찾아냈다. 어제날의 수녕중심현위 군사책이였던 그의 어깨에는 항일연군 5군 군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묵직하게 얹혀 있었다. 여러 달 전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리를 맞아주던 주보중이 이번에는 지팡이를 던지고 밀영으로부터 10리나 떨어진 노천구라는 곳에까지 달려나와 나를 포옹하였다.

≪그 동안 내 부상자리는 깨끗이 완치되였소. 동만원정대가 떠나간 다음 우리는 군을 새롭게 내왔소. 영안땅에서는 그 후부터 당조직과 대중단체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소. 이건 다 **김**사령과 원정대가 지난해에 우리를 잘 도와준 덕이요.≫

주보중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흥분된 어조로 영안실태를 단숨에 쭉 내리엮었다.

≪주형의 부상자리가 다 나았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오. 지나간 수개월은 마치도 주형을 위해서 흘러간 것 같구만. 5군 군장으로까지 취임하였다니 축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말이요.≫

나는 주보중을 이런 식으로 축하해주고 나서 평남양의 안부를 물었다. 북만땅을 밟고 보니 한해전에 싸움속에서 맺었던 정이 새삼스럽게 북받쳐올랐다. 한두 달밖에 사귀지 않은 그 감이 사나운 무인의 인상이 어린 시절이 죽마고우처럼 내 기억속에 듬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였다.

우리는 5군의 숙영지에 독학하기 바쁘게 공동행동문제를 가지고 주보중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마찰이 생겼다. 주보중이 훈춘연대의 연대장인 후국충에게 동만원정대의 행동방향을 지령식으로 내리먹이려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쌍방간의 대화가 얼마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 당신 5군 정치위원이였던 호인은 부대를 데리고 목릉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보중의 요구는 동만원정대가 목릉에 가서 호인을 도와 싸우다가 오하림지구에 진출하여 그곳을 장악해 달라는 것이였다.

그닥 어려운 부탁도 아니였는데 자존심이 강한 후국충은 단마디로 그것을 거절해 버렸다. 아마 그 부탁이 부탁으로 들리지 않고 지시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안길과 김려중도 그와 견해를 같이하였다. 우리에겐 우리대로의 원정목적이 있고 밟아야 할 노정도 따로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5군은 5군이고 2군은 2군이다라고 하면서 막 골을 냈다. 그들이 그렇게 골을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우리는 2군을 대표하여 북만에 온 것만큼 공동투쟁을 한다고 하여 남의 지휘봉에 따라 무턱대고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보중은 빨치산이 포나 중기관총과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모험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중무기가 유격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좀 두고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우리는 항일전쟁을 시작할 때 유격대가 사용하게 될 기본무기는 경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태평구전투에서 박격포를 쏘아보고 그 위력을 가늠하게 된 다음부터는 유격전이라고 하여 중무기를 덮어놓고 쓰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중무기를 적적히 쓰는 것이 큰 은을 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실지로 쏘련의 빨치산들은 공민전쟁때 포나 막심중기를 사용한 전례를 가지고 있었다.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 유격대원들도 그 무렵에는 포를 이용하였다.

동만원정대가 포와 중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대하여 주보중이 모험이라고 한 것

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었다.

나는 팽팽해진 분위기를 늦굴 목적으로 모두들 공동행동에 대한 구상을 더 무르익힌 다음에 다시 모여앉아 양자가 다 접수할 수 있는 대책안을 짜보자고 제기하였다. 주보중은 나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북만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연구하면서도 행군에 지친 원정대 성원들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산동툰은 100여호의 농가들로 이루어진 중국인 부락이었다. 산동툰이란 지명은 산동지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라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적들은 이 부락을 봉쇄하느라고 마을로부터 15리 떨어진 곳에 200-300명 가량의 토벌대를 상주시키고 있었다. 나는 산동툰에 가 있을 때 영안현당 서기와도 연계를 가지고 산동툰당조직과도 연계를 가졌다.

내가 산동툰부락에서 이연록군장을 만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주집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지주였지만 마음씨가 무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손님들은 모두 그 집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애를 썼다.

어느 날 우리는 집주인을 도와 밀가을을 하다가 밭에서 비를 만났다. 베여놓은 밀이 비에 젖지 않도록 낟가리를 잘 가려놓은 다음 숙소에 돌아오자 유한홍이 오늘은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점심이나 먹고 휴식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손수 만들어 푸짐한 음식상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연록이네 부대가 왕청에 와있을 때부터 유한홍이 뛰어난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유한홍과 같은 중학출신의 지식분자가 전문요리사들도 깜짝 놀라게 할 음식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일이었다. 그는 요리솜씨도 대단하였지만 술도 잘 마셨다. 우리가 한잔을 하면 석 잔쯤 마시는 대주가였다. 안주맛이 좋아서 그랬던지 그날은 나도 술을 몇 잔 마셨다.

우리가 밀제비국을 한창 먹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보니 밀북데기앞에 뱀들이 수십 마리나 너부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집주인이 복뱀이라고 하면서 기르던 뱀들이었는데 수류탄 벼락을 맞고 일시에 무리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집주인은 뱀들이 집안까지 들어와 밥상밑에서 기어다녀도 가만 내버려두었다. 그 지방에서는 뱀을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다.

그날 마당에서 문전보초를 선 것은 우리부대에 배속되어 북만까지 따라온 청년의용군대원들이었다. 그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비가 멎고 해가 비쳤다. 그러자 낟가리속에 움츠리고 있던 뱀들이 복데기속에서 대가리를 내밀었다. 이것 사람들이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 없었던 보초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앞뒤를 가릴 사이도 없이 무작정 수류탄을 뽑아들고 뱀의 무리를 향해 던졌던 것이다.


주보중부대의 밀영

집주인내외는 죽을 뱀들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였다. 그들은 불길한 재액의 조짐이라고 생긴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주보중과 유한홍이 좋은 말로 위로하였으나 그들은 불안을 가시지 못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채 하지 못하고 부득불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35년 7월 하순 동만에서 고려홍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위만군과 경찰대로 편성된 혼성기마대가 장마구름처럼 산동툰으로 모여들었다. 어림짐작으로 가늠해보아도 몇 백 명 실히 될 것 같았다.

그 당시 5군의 주력은 목릉과 영안현 서북방에 나가 있었다.

4군 군부의 여력도 얼마 안되었다. 수적으로는 적이 우리보다 2배정도 우세한 셈이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주보중과 유한흥은 나의 의향을 물었다.

나는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4군, 5군과 우리와의 연합작전은 이처럼 탁상앞에서가 아니라 먼지가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드는 적기마부대의 산개대형앞에서 가볍게 타결되고 실천에 옮겼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만 치라는 ≪피실격허≫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또 유격활동의 규범이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서 반드시 일률적일 수 없었다. 북만에서 우리의 위력을 한번 과시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설정한 북만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모든 정황과 지형조건으로 보아도 승산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협의 끝에 곧 접전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전투행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위하여 적들이 산동툰마을에 달려들기 전에 맞받아나가 싸울 수 있도록 진지를 정하고 매개 부대들에 해당한 전투임무를 주었다. 태평구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박격포중대의 포수들과 중기관총중대의 명사수들은 적들의 공격로로 지목되는 방향들을 타격하기 위한 사격제원까지 미리 구해놓고 나의 명령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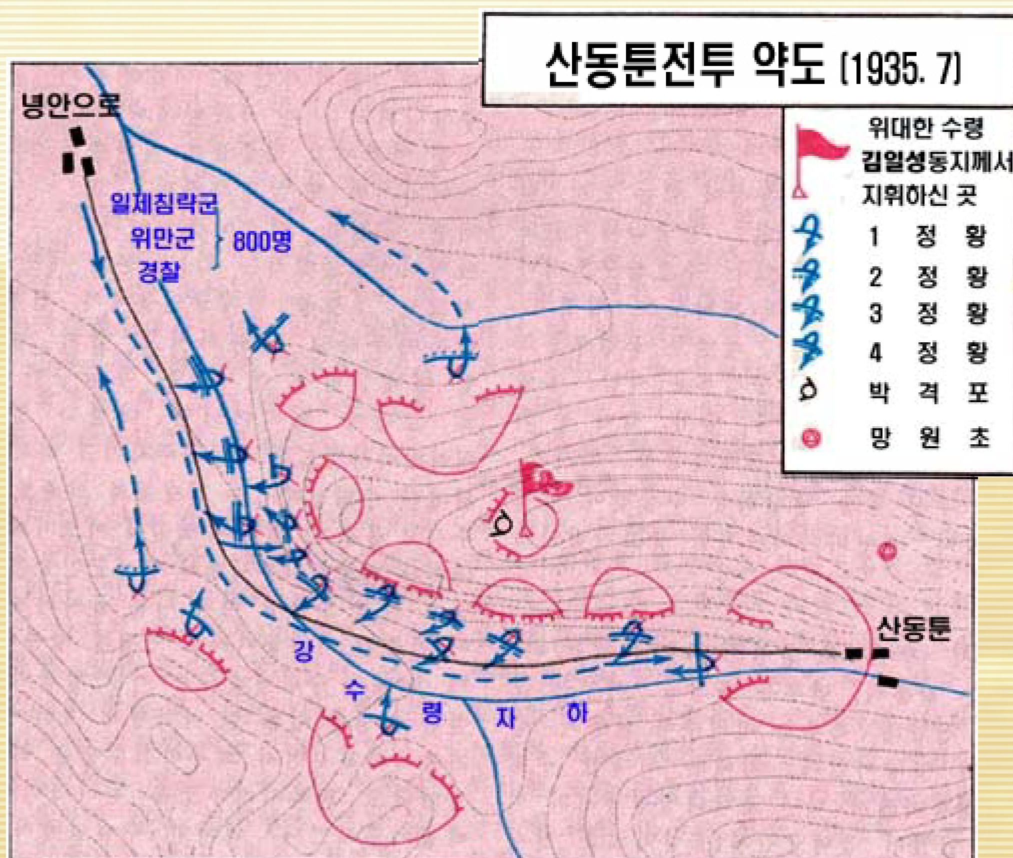
양수천자촌하를 낀 산골길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던 적들은 산동툰 서북쪽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산으로 기여올랐다. 우리는 전방 150-200미터 계선까지 적들을 바싹 접근시킨 다음 일제히 불벼락을 퍼부었다. 살아남은 놈들이 퇴각하였다가 양수천자촌하를 거쳐 남쪽산능선을 타고 다시금 기여들려고 하였으나 거기서도 길목을 지키고 있던 우리의 용사들은 적들을 통쾌하게 쓸어눕혔다. 이런 공방전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적지휘관들은 불리한 정황을 수습해보려고 대오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적들이 지휘소에 밀집되었을 때 박격포중대장은 사격구령을 내렸다. 포탄이 쇠소리를 내면서 연거퍼 적의 무리속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살아남은 적들은 말을 타고 영안쪽으로 퇴각할 차비를 하였다. 우리의 박격포는 철수하는 적들을 향해 포문을 돌리었다.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되어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적들은 ≪공산군이 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서 초연 속을 헤매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뿔뿔이 달아나버렸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박격포를 쏜 데 대한 반향이 대단하였다. 적들은 우리가 쏘련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박격포까지 메고 다닌다고 하면서 고려홍군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우리는 노흑산전투에서 노획한 박격포탄을 산동툰전투에서 다 소비한 다음 박격포를 땅에 묻었다.

산동툰전투에서 어떻게나 혼쌀이 났던지 그 후부터 적들은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꼭 닫고 성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어 적들은 우리가 써보낸 편지를 받고 식량, 기름, 신발을 비롯한 군용필수품들을 꼬박꼬박 보내주



기까지 하였다.

북만땅에 다시한번 승전고를 울렸던 산동툰전투는 수류탄으로 뱀을 잡았던 기상천외한 고사와 더불어 나의 일생에서 그 중 인상이 깊었던 전투의 하나로 추억에 남아있다.

적들은 우리의 포성앞에서 전율하였지만 인민들은 그 포성앞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북만 중국인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은 이처럼 첫 시작에서부터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 실적은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전투적 동맹을 공고히 하여주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였다. 주보중은 그때부터 중무기의 불합이성을 두 번 다시 운운하지 않았다.

우리는 산동툰을 떠난 후 두구자라는 곳에 가서도 방가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북만공산주의자들가의 반일공동투쟁문제를 다시금 논의하였다. 우리의 주동적 발기에 따라 북만원정대는 주보중과의 합의하에 몇 개의 편대로 나뉘어 5군의 활동지역에 나가 공동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원정대는 5군의 정치위원 호인이 활동하는 목릉지방에도 가고 평남양이 활동하는 고장에도 소부대를 보냈다.

주보중은 마창, 단산자, 옥량하, 석두하자 등지로 떠나가는 우리의 편대들에 5군의 일부성원들을 배속시켜 주었다. 이 고장들은 우리가 1차 북만원정 때 손때를 묻혀가며 개량한 옥토지대였다. 우리는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였다.

옥량하의 지하조직은 마을 주변 뿐 아니라 멀리 동경성에까지 줄을 뻗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옥량하를 생각할 때면 한 중국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군 한다. 우리가 1차로 북만에 갔을 때 그 할머니는 부녀회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었다. 환갑이 다된 몸으로 군복도 짓고 원정대의 뒷시중을 하느라고 밤잠도 자지 않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그때 고향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내가 하루동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전령병들에게 ≪진스링(**김**사령)이 왜 안보이는가?≫고 따져 묻군 하였는데 우리가 무고하다는 말을 듣고야 밤에 잠도 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간도에서 고려홍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꿩 한 마리와 함께 그릇에 국수사리를 얹어가지고 두구자에서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부대를 찾아왔다.

≪지난 해 가을에 **김**사령 대접을 변변히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국수감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 노친의 성의를 받아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소이다.≫

노인이 국수감을 전해주면서 우리 동무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전령병들을 구슬렀던지 국수를 좋아하는 내 식성까지 알아냈다.

나는 그날 주보중과 함께 할머니의 지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꿩국물에 꿩고기꾸미와 남새꾸미를 얹은 국수는 별맛이었다. 주보중은 국수를 곱빼기로 들고나서 ≪**김**사령이 어느새 북만땅에 와서 저런 중국노친까지 다 후려냈소? 나는 군중을 쟁취하는 **김**사령의 수완에 늘 탄복하곤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네 부대에 배속된 우리 중대들에 정치사업방법을 배워주었으면 하오.≫하고 농담절반 진담절반의 청탁을 하였다.

그 해 9월 우리부대가 액목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5군 정치위원 호인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연합작전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위하지방으로 남하하는 김책과 사업을 위하여 그 요청을 잠깐 보류해 두었다. 그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호인의 요청에 끝내 응해주지 못하였으나 나는 항일전쟁 전기간 우리에 대한 그의 그 믿음을 늘 고맙게 추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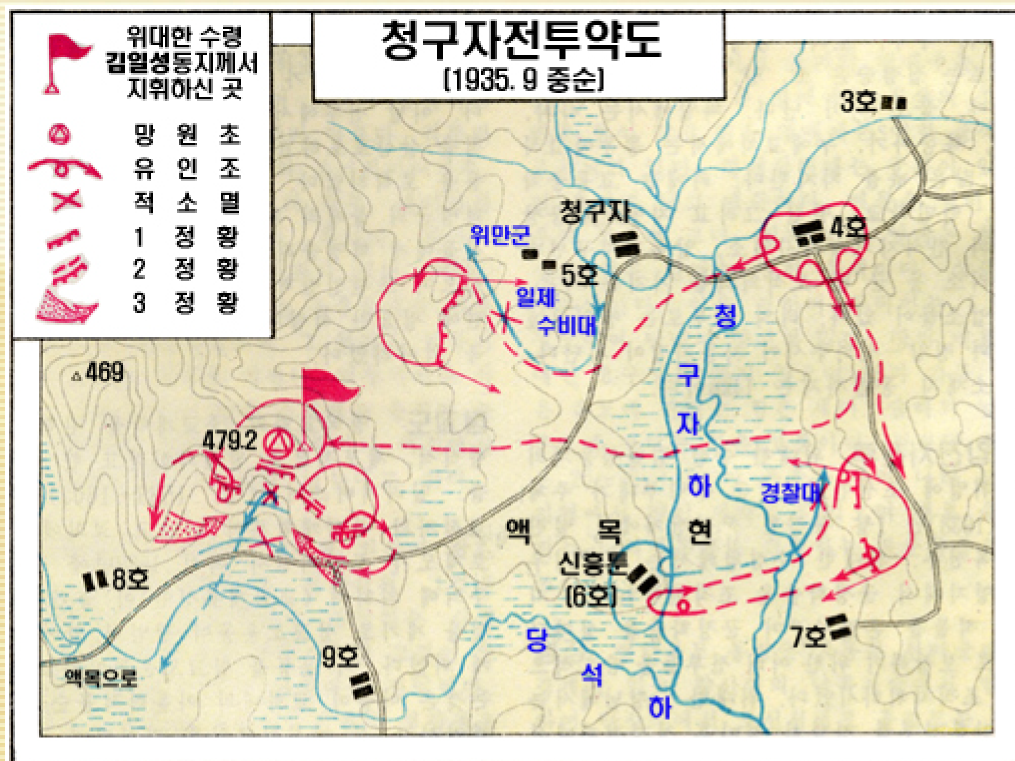
우리가 북만을 개척하는데서 영안 다음으로 중시한 고장은 액목땅이었다. 액목은 우리의 발길이 별로 미치지 않는 고장이였고 중국인부대들조차 혁명바람을 불어넣으려다가 이가 들지 않아서 포기한 곳이었다.

하지만 김책이 소속된 3군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어차피 액목땅에 보습을 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북쪽으로 3군의 활동지역인 위하, 주하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1, 2군의 활동구역과도 이웃하고 있는 이 수수께끼같은 미지의 땅은 적아가 다같이 탐내는 대지였다.

북만의 여러 무장부대들이 액목을 개척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은 이 지방 인민들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반공풍조 때문이었다. 영안도 반공바람이 드센 고장이었으나 이 지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액목이 이처럼 반공의 오염구역으로 된데는 이 지방을 본거지로 삼고 8.1폭동과 같은 무모한 좌경적 망동으로 공산주의망신을 다 시킨 엠엘계 종파들의 책임도 있었다. 8.1폭동의 여파로 하여 액목인민들은 일제와 반동군벌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그 때부터 이 지방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면 도리를 떨었다.

일제는 선무반이라는 것을 파견하여 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다.

액목현 청구자밀림에서 숯구이 노동을 하다가 입대한 한 총각의 체험담은 이 지방 사람들의 반공중독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해 준다. 일찍 전염병 때문에 양친과 형제들을 여의고 혈혈단신이 된 그는 문전걸식으로 모진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오다가 액목땅에까지 굴러들어와 도로공사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그때 총각은 공사장의 어떤 인부에게서 혁명가요를 한 곡 배웠는데 그것이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였다.

그 후 총각은 임가구 근처의 어느 농가에서 계절노동을 하였다. 하루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총각도 주인들을 따라 그 잔치집에 가서 신랑신부를 축하해주고 주예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한 곡 불렀다. 도로공사장에서 배워둔 바로 그 혁명가요였다. 그런데 그 한 곡의 노래 때문에 잔치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식자가 있는 동네의 한 유지가 그 혁명가요를 듣고 그 총각을 공산당이라고 몰아주었던 것이다. 유지는 총각을 고용한 중농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임자, 품팔이꾼을 두겠으면 똑똑한 사람을 둘 것이지 하필이면 왜 공산공처를 한다는 그 잘난 공산당을 두는가?≫고 하였다. 면박을 당한 중농은 그날로 집에서 총각을 쫓아냈다. 비극은 총각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혁명가요를 부르면서도 그것이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노래라는 것을 전혀 감촉하지 못했다는데 있었다. 무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무식의 탓이 아니라 반공풍조의 탓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토비들이나 마적들이 한 짓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역선전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원정대가 액목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은 솔직히 말하여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경박호를 건너 액목땅에 첫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주민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다. 액목지방의 동쪽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락은 중국사람들만 사는 아담한 마을이였다. 우리가 도착하자 대다수의 부락사람들은 ≪홍호자≫가 왔다고 하면서 아이들끼리 데리고 인가에서 달아

나버렸다.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집에 숨어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락에서 얼마쯤 떨어진 수림속에서 천막을 치고 대원들을 휴식시킨 다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소학교에 가보니 교직원, 학생들도 다 숨어버리고 없었다. 이것은 액목땅에 불길을 지펴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동만손님들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랭혹한 대접이었다.

나는 학교마당에 풍금을 내다놓고 그 풍금을 타면서 청년의용군중대원들과 함께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동무들은 한족민요에서도 명창이었다. 이 두노래는 중국의 근로민중이 특별히 애창하는 명곡들이었다. ≪소무가≫는 내가 길림시절에 배운 애국가요였는데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소무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의 충신으로 명망이 높았던 실제인물이었다. 한나라왕의 사신으로 북쪽의 흉노족들에게로 갔었는데 흉노족들은 그를 인질로 잡아놓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양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소무는 19년간 흉노족들속에 갇혀있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 사상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였다.

우리가 풍금을 타면서 ≪소무가≫와 양귀비의 노래를 부르자 숨어있던 소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먼저 호기심과 놀라움을 안고 우리 곁에 모여왔다. 그리고는 내가 치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는 교원들과 동네어른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고려홍군≫이 중국노래를 유창하게 부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서 그들은 홍군과 자기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막연한 공통성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도 원정대를 냉대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친절과 선망의 눈길로 대하게 되었다.

도망갔던 마을사람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자 나는 중국말로 반일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까지 듣고서야 마을사람들은 우리에게 곁을 주었다. 그들은 ≪고려홍군≫은 비적도 아니고 마적도 아니다, ≪고려홍군≫은 진짜 애국적인 혁명군이며 신사멋쟁이군대라고 하면서 우리 부대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소무가≫를 가지고 북만땅의 중국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일을 통해 나는 문학과 음악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각성시키는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실제로 체험하였다. 우리가 문학과 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중시하는 이유가 그때의 체험에 근거를 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2차 북만원정당시 경박호반의 그 중국인부락에서 겪은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나는 해방 후 ≪소무가≫의 가사를 찾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얼마전에야 우리 일군들의 도움으로 중국말 원문으로 된 가사를 입수하였다.

나는 그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80고령이라는 것도 잊고 ≪소무가≫를 불렀다. 80객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겠는가 목이 막혀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멀리 구름너머로 아득히 사라진 청춘시절의 감회가 새롭게 솟아올랐고 우리가 고난속에서 개척한 북만의 대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샘처럼 북받쳐올랐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어려운 공동투쟁의 길을 개척하던 나날이 그리워질때마다 나는 풍금으로 이 노래를 종종 타보곤 한다. 휘파람으로 불때도 있지만 20-30대처럼 생신한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아래에 소무가의 가사를 적는다.

소무목양

1. 소무는 호지에 잡혀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 않았네
눈과 얼음 덮인 흉노땅에서 19년
목마르면 눈을 먹고
배고프면 요털을 삼키며
북해변에서 양을 몰았네
마음은 한나라에 가있으나
늙도록 몸은 돌아가지 못했네
모진 고생 겪을수록
마음은 철석으로 굳어져
변강의 밤 때로 피리소리 들으면
가슴은 아프고 쓰리었네

2. 소무는 호지에 잡혀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 않았네
어느덧 북풍은 불어
기러기떼 한나라로 날아가건만
백발의 어머니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꽃나이 아내는 홀로 빈방을 지키네
삼경이면 다 함께 꿈을 꾸련만
누가 누구의 꿈을 꾸었는가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는다 해도
큰 절개는 조금도 굽히지 않아
흉노족들도 놀라서 그 위덕에 탄복하였네

액목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삼과송이라는 곳에서 전주 김씨노인을 만나던 일이다. 육과송이라는 말이 6대의 소나무라는 말이라면 삼과송이라는 말은 3대의 소나무라는 뜻이다. 우리는 삼과송에 있을 때 현성에서 얼마 멀지않은 어떤 지주집에 지휘부를 정하였다. 그 지주집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몸집이 자그마한 영감이 뙈기논을 부치며 살고 있었다. 전령병이 알아본 데 의하면 그 노인은 조선사람 같은데 조선말은 하지 않고 잘 할줄도 모르는 중국말을 하면서 중국사람으로 행세하며 산다고 하였다.


봉오동전투장소

어느 날 저녁 나는 노인의 집에 마실을 갔다. 통성을 해보니 틀림없는 조선사람이었고 본관도 나와 같은 전주 김씨였다. 홍범도를 따라다니면서 청산리전투에까지 참가한 노인이었는데 그 전투가 있은 다음 부대가 흩어지게 되자 액목땅에 와서 노친을 얻어가지고 은거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내가 전주 김씨라는 것을 알게되자 노인은 만리타향에 와서 동성동본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부인을 시켜 발방아로 벼를 찧어 흰쌀밥을 해주었다. 북만땅에 간 후 처음

으로 먹어보는 흰쌀밥이였다.

≪우리도 처음엔 뜻이 대단하였네. 홍범도장군휘하에서 봉오골대첩을 치를 때만해도 조선독립이 당장 되는 것 같더구만. 그 마적에는 꿈을 꾸어도 독립문밑으로 해서 한양성으로 입성하는 꿈만 꾸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야의 모래알이나 막돌같은 신세가 되어 하는 일도 없이 주름살만 늘어가니 기막힌 일이 아닌가. 이 늙은 것한테 낙이 있다면 한족세상이나 다름없는 북만주 한끝에서 장마철에 별을 보듯 조선동포를 만나는 때일걸세. 아우쪼록 김장군부대가 간도로 돌아가지 않고 액목땅에 그대로 영주하면 얼마나 좋겠나.≫

노인은 이런 말을 하며 한숨을 무겁게 몰아쉬었다.

나라를 찾으려고 화승대를 메고 나섰던 청운의 뜻이 늙은이의 얼굴에 사정없이 그려지고 있는 주름살과 함께 덧없이 스러진다고 생각하니 나도 역시 처량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저 노인의 초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곤란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필승불패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전주 김씨노인한테는 한쪽 귀가 없었다. 식사가 끝난 다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인에게 한쪽귀가 왜 없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목단강에 나가 얼음구멍을 내고 강도낚시질을 하다가 그렇게 되였노라고 하면서 허구프게 웃었다. 큰 잉어 한 마리를 낚아가지고 덥석 끌어안았는데 그 잉어가 요동을 치면서 언 귀를 후려치는 바람에 그런 몰골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노인이 당한 그 봉변을 두고 심심한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삼과송마을에 한주일가량 머무르고 있는 동안 매일밤 노인네 집에 찾아가 홍범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속을 터놓고 보니 액목사람들도 간도사람들처럼 반일사상이 강하였다. 그들이 반공에 오염된 것은 조직의 인도를 받지 못한 탓이었다. 우리는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구자의 4호부락 백가장 유영생과도 친교를 맺었고 나중에는 지휘부도 그 집에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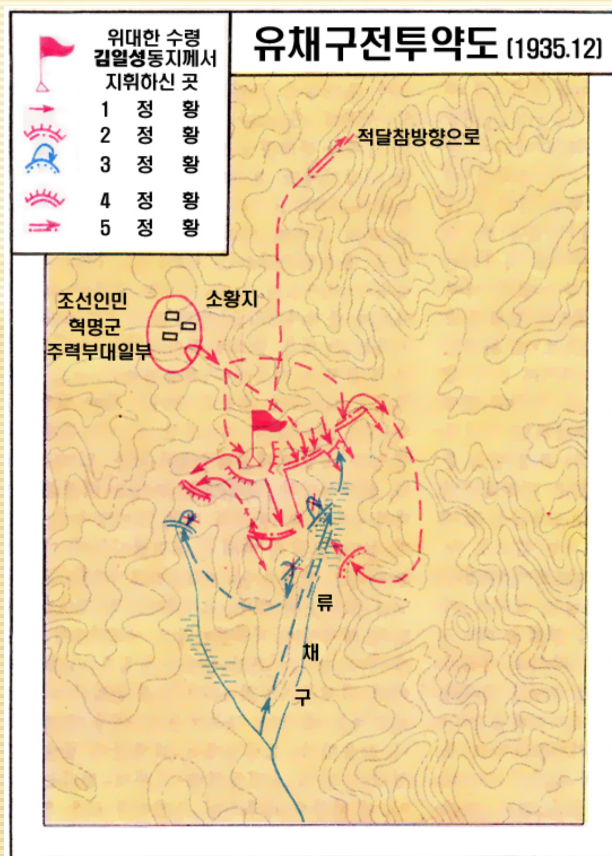
유영생은 인민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밤이면 우등불 두리에 모여앉아 오락회도 하고 여대원, 남대원의 구별이 없이 한데 어울려 춤도 추고 학습도 하는 우리를 보고 별난 군대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때까지 보아온 군대라는 것은 무슨 간판을 가졌든지간에 다 백성들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질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 그런데 간도에서 왔다는 이 ≪고려홍군≫은 백성들의 물도 길어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아이들의 머리도 깎아주고 상하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이상한 군대라고 온 동네가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밤중에 우리는 유영생백가장한테서 6호부락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수비대와 위만군이 4호부락쪽으로 밀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 통보를 받고 전 부대에 취침구령을 내렸다. 대원들은 취침시간도 되기 전에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백가장은 그것을 보고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였다. 다른 군대라면 다 적들을 피해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겠는데 이 ≪고려홍군≫이라는 사람들은 달아날 준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에 늘어붙어서 잠잘 궁리부터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지경 같은 군대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을



가없이 넓은 초원에 굽이쳐 흐르는 목단강



에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 온밤 자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들락날락하였다.

나는 백가장을 옆에 끌어다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백가장님, 우리 군대가 마을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백가장님은 너무 심려하지 말고 푹 쉬십시오.≫

≪아니, 초저녁부터 이불밑에 들어간 군대가 마을을 어떻게 철통같이 지킨다는 겁니까?≫

백가장은 여전히 불안을 털지 못하고 갈팡거렸다.

≪보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홍군≫은 허풍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밤은 푹 쉬셔도 일없습니다. 그 대신 내일아침 우리가 떠나간 다음 적들에게 찾아가서 ≪고려홍군≫이 마을에 왔다갔다고 신고해 주십시오. 백가장님이 본대로 다 이야기하십시오.≫

≪신고라니요. 나는 ≪고려홍군≫같이 훌륭한 군대를 고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백가장님,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고 부탁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길이고 백가장님이 살길이고 동네가 살길입니다. 이제 두고보면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백가장으로 하여금 경찰에 ≪고려홍군≫의 움직임을 그대로 신고하게 한 것은 집단부락안에 배겨있는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4호 부락에서 철수하여 액목행도로를 따라 행군하였다. 행군도중 1개 중대의 무력은 사남능선에 매복시켰다. 유영생백가장의 신고를 받은 적들은 수백명의 토벌대를 내몰아 행군중에 있는 우리 주력부대를 사나운 기세로 추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북만원정대는 액목진출후 처음으로 되는 유인매복전을 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일본군 수비대(헌병대라고도 함)는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되었다. 인민혁명군의 탄막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한 한 명의 수비대원만이 살아서 비행기의 구조를 받았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착륙도중 사고로 풍지박산이 되는 바람에 그놈마저 ≪천당≫으로 갔다고 한다. 우리 나라 답사단이 액목땅을 찾아갔던 1959년까지도 청구자 6호부락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건립한 충령비가 그냥 남아있더라고 하였다.

우리는 1935년 12월 관지부근에서도 또 한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이 전투를 일명 유채구전투라고도 한다. 이 전투에서 우리와 맞다든 200여명의 적들은 대부분이 소멸되었다. 우리에게 쫓겨 혼비백산이 된 적 장교놈이 들판에 있는 관속에 송장대신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전투 뒤에 있었던 일이다.

북만땅에서 우리가 진행한 그 수많은 교전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다. 우리가 액목땅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던 1935년 가을에 국제당은 주보중을 통하여 2군과 5군의 협동작전을 위한 합동지휘부를 구성하였다는 것과 그 합동지휘부의 정치위원 겸 위하부대 사령관으로 나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통지해주었다. 대대와 연대, 사단들에서 정치위원도 역임한 바 있는 지난날의 경력이 아마도 국제당으로 하여금 나를 2군과 5군 합동지휘부 정치위원으로 선발하게 했던 것 같다.

이 임명은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나는 벼슬을 바란 것이 아니라 북만에서 활동하는 핵심적인 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 상봉을 더 안타깝게 갈망하였다. 그런데 결국은 합동지휘부 정치위원이라는 난데없는 벼슬자리가 그 갈망을 아닌보살하게 하였다. 나에게 원정대의 활동 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정치사업까지도 돌보아야 할 막대한 부담이 들씌워졌다. 나는 그 엄청난 중책으로부터 오는 일거리들을 걸머지고 남호두회의를 전후한 시기까지 북만전우들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2개 군의 정치사업을 위해서 영안과 그 주변 현들을 바삐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유대를 더욱더 공고한 기초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 소득은 우리가 원정을 시작할 때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원정의 주목적 가운데서도 가장 선차적인 항목으로 내세웠던 김책, 최용건과의 직접적인 상봉을 이루지 못한 채 그것을 먼 장래의 일로 남겨두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나날에도 언제나 북만의 광야에서 온갖 신고를 다 참아가며 혈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잊지 않았다. 상봉이 지체되면 지체될 수록 그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자라올랐다.

동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남북만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통성을 하고 격정과 사랑에 넘친 포옹을 한 것은 1941년 초였다. 그 후 우리는 모두 같은 밀영에서 한 가마밥을 먹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결전을 준비하다가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 건국의 불도가니속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모두 20세기의 가장 극적인 연대들에 나와 함께 항일전쟁은 물론, 반미전쟁도 해보고 민주개혁과 사회주의건설의 간고한 영봉들을 꾸준하게 돌파해온 충실한 투사들이다.

지금도 북만에서 싸우던 투사들은 나와 함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해 고락을 같이 나누고 있다. 장장 반세기도 넘는 세월 나와 우리의 위업을 받들어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온 그 충신들에게 광망한 앞날의 행복과 더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추억만이 남게 되기를 바란다.

2. 기이한 인연

북만의 액목지구는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고장이였다. 장명근과의 연계밑에 여신청년회라는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 조직에 망라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해오던 교하와 신잔, 삼송도 당시까지는 액목현에 속해 있었다. 이 현이 교하현으로 개칭된 것은 1930년대 말기부터였다고 한다.

우리는 2차 북만원정 때 액목땅에서만도 수천 리의 장정을 하였다. 청구자, 비파정자, 남천문, 상도구, 마록구, 신흥륜, 관지, 유채구, 삼과송, 목단강촌, 흑석향, 타요자 등은 다 우리가 그때 개척한 고장들이며 북만원정대의 무공이 새겨진 추억도 깊은 전적지들이다.

그 과정에 흥미있는 사건들도 많이 체험하고 인상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다.

2차 북만원정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지방에는 혁명바람이 전혀 미치지 못한 미개척지들이 많았다. 우리가 액목원정문제를 토의할 때 주보중이 걱정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김**사령이야 벽창호같은 오의성영감도 일조에 돌려세운 사람이니 어련하겠소만 우리 지난 봄에 액목땅에 갔다가 ≪홍호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곳곳에서 문전거절을 당했소.≫

주보중이 말하는 ≪홍호자≫란 붉은 ≪홍≫, 되 ≪호≫, 아들 ≪자≫를 쓰는 중국말로서 비적을 가리키는 뜻이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을 경원시하던 오의성이 ≪홍호자≫라는 말로 주보중을 욕했는데 그 후 언제부터인지 그 말은 공산주의자들의 군대 일반에게 붙이는 상욕으로 되었다.

과연 주보중의 말대로 우리는 원정부대를 이끌고 액목땅에 들어간 첫 순간부터 ≪홍호자≫의 대접을 받았다. 액목 사람들이 원정부대를 보자 ≪고려홍군≫이 왔다고 하면서 마을을 비우고 도망친 것은 우리를 ≪홍호자≫ 못지않게 경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붉은 ≪홍≫자는 패덕과 잔인성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원정중의 많은 시간을 군중과의 사업에 바쳤다. 군중공작을 위해 시간을 바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민혁명군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연공, 친공의 길로 돌아설 때 우리는 참으로 일확천금에도 비길 수 없는 무상의 희열을 느꼈다.

요영구회의 후 울면서 유격근거지를 떠나가던 인민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고 또 혁명에 대한 걱정이 천갈래 만갈래로 겹쳐서 심신이 고달프던 때에 액목땅에서 얻은 그런 수확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녕 커다란 기쁨으로 되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 중의 기쁨은 동지와 벗을 얻는 것이요, 슬픔 중의 슬픔은 그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액목현경에 들어서기 전에 벌써 경박호반인 소산저자에서 채화라는 중국어부를 사귀여 그 호수를 쉽게 건너올 수 있었다. 채화도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혁명군을 멀리하던 사람이였다. 19살 때부터 30년 가까이 경박호에서 고기잡이를 유일한 생업으로 삼아온 이 순박한 어부는 ≪고려홍군≫을 ≪비적≫이라고 묘사하

던 일본사람들이 선전을 그대로 곧이 듣고 있었다. 그러나 원정대의 위용과 질서정연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 대원들의 소탈하고 겸허한 인품에 끌리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도 태도를 바꾸어 혁명군을 후덥게 대하였다.

격강이 천리란 말처럼 군대의 원정에서 앞길을 막는 강물은 천리길에 맞먹는 장애물이었다. 그러기에 적의 눈을 피해가며 원정대의 경박호도하를 전력을 다하여 보장해 준 채화의 수고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59년 우리 답사단 동무들이 중국에 갔다가 그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속의 채화는 이미 70살 고령에 이른 주름많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키가 크고 목이 성큼한 옛모습만은 그대로 남아있어 자못 감개가 무량했다.


동북의 신비경
경박호

청구자전투 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후발물자를 공급해준 백가장 유영생과 흑석향부근에서 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킨 유춘발노인을 비롯하여 우리는 액목땅에서 참으로 많은 벗을 얻었고 군중을 쟁취하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한 위만군 연대장과도 깊은 친교를 맺었다.

원정대가 돈화현쪽에 있는 목재소를 치려고 밤새껏 강행군을 하던 때였으니 아마 1936년 초에 생긴 일이었을 것이다.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에 우리는 행군을 중지하고 대도로 옆의 어떤 지주집에 여장을 풀었다. 큰 도성을 둘러치고 포대까지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집이었다. 위만군이 조직된 후이고 또 일본사람들이 사설무력을 허용하지 않는 때여서 그 집에 가병만은 없었다.

지주집은 두 채로 되어 있는데 한 채에는 대원들이 들고 다른 한 채에는 지휘부성원들과 후방부일군들이 들었다. 우리는 대문앞에 머슴군차림을 한 대원 3명을 교대로 파견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쉬게 하였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보초소로부터 마차 1대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주집쪽으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금 후 마차가 지주집앞에 멎어섰는데 그 안에서 웬 귀부인이 병사 1명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와 잠깐 몸을 녹이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지주집으로 곧추 들어왔다.

문밖을 내다보니 눈보라가 날리는 마당에 여우털을 댄 외투를 두벌씩이나 껴입은 미모의 젊은 여성이 서있었다. 그 호화로운 옷차림에 눈이 뒤집힌 우리 동무들이 벌써 마당에 쓸어나와 행식이 지나치게 현란한 정체불명의 여인을 에워싸고 검문을 들이대고 있었다.

웬 여자냐고 내가 묻자 나어린 보초는 ≪사령관동지, 수상한 여자입니다.≫라고 무슨 큼직한 고위급특무라도 잡은 것 같은 기세로 우쭐해서 대답하였다. 보초는 그 여자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젊은 중국여인은 사색이 되어 아무말도 못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나는 그 여자의 몸수색까지 하려드는 보초병을 엄하게 꾸짖고 나서 명령하였다.

≪보초동무, 부인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방으로 들여보내시오.≫

여인은 방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조심스레 떨고 있었다.

나는 중국말로 그 여자를 안심시켰다.

≪부인, 무서워 말고 몸을 푹 녹이시오. 어린 보초병이 잘못 보고 좀 하대한 것 같은데 양해하시오.≫

나는 여인에게 차를 권하고 나서 그가 몸을 녹일 수 있게 화로불도 가까이에 밀어

놓았다.

≪부인이 어떻게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고장 사람들이 ≪고려홍군≫이라고 부르는 인민혁명군입니다. 부인은 ≪고려홍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들어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고려홍군≫은 일본사람들이 소문을 내돌리고 있는 것처럼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비적≫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혁명군은 항일구국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의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조중양국을 침해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 뿐이지 인민들의 생명 재산은 털끝만치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마음을 푹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은 감사의 표식으로 두 손을 합장하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서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반신반의의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었다.

나는 부인이 긴장을 풀 때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부인이 위만군병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죄를 묻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되어 병사의 호위를 받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인민을 해치지 않고 혁명군을 해치지 않는 이상에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나가는 길손들을 모욕하고 학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주인장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 집에 잠깐 들려 피곤을 풀던 손님들이니 다른 생각일랑 말고 불이나 뜨뜻하게 쪼이다가 가시오.≫

여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쳐들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의 눈에 문득 경악에 가까운 빛이 어렸다. 여인은 두 손을 가슴에 포개여 얹고 안타깝게 입술을 감빨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내 말이 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대장님의 얼굴이 　전 대장님이 본래부터 인자한 분이라는 걸 　≫

여인은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또다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호송병을 심문하던 오백룡이 범잡은 포수상으로 문가에 나타나서 중국 귀부인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조선말로 넌지시 보고하였다.

≪장군님, 호송병의 말에 의하면 저 여자는 위만군 12연대장의 아내라고 합니다. 큰 고기가 저절로 그물에 걸려든 셈이지요.≫

≪백룡동무, 너무 우쭐해서 그러지마오. 큰 고기인가 작은 고기인가 하는건 이제 두고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 나는 위만군 연대장의 부인이라는 말에 퍼그나 놀랐다. 연대장이라면 간단한 자리가 아니었다. 위만군의 군사등급으로서는 위로는 네번째이고 밑으로부터는 13개나 되는 사닥다리를 톺아올라야 따낼 수 있는 벼슬이었다. 위만군 1개 연대의 관할구역이 몇 개 현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것을 총괄하는 지휘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액목현에는 교하에 본부를 둔 위만군 혼성 제9여단 산하의 12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적군와해를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위만군연대장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물론 연대장의 아내라고 하여 조금도 낯색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니 부인, 위만군연대장의 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형벌이라도 내릴

줄 알았습니까?≫

여인은 몹시 민망스러워하는 낯빛으로 손을 비비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   못 보지 않았는지   실례이지만 성함을 김성주라고 하지 않는지?≫

이 뜻밖의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간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북만땅에서 우연히 만난 위만군연대장의 아내가 내 아명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무심히 스쳐지날 수 없는 비상사건이다. 어데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귀부인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동시에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고 싶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참, 액목땅에 와서 아명을 들으니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김성주이기도 하고 **김일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연대장의 아내는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나는 부인의 얼굴에서 말하고 싶어하면서도 터놓기 주저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주선생님이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할 때 저는 거기서 여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들고 처음으로 나를 쳐다볼 때 여인의 눈동자에 비끼던 그 생동한 열정의 빛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였는지 나는 비로소 이해하였다. 어쨌든 액목과 같은 백사지에서 길림시절의 여자중학교 학생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길림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불현듯 내 가슴속에서 향수에 가까운 짜릿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나는 나를 몇 해 동안 비끄러매 두었던 그 도시에 깊은 정을 두고 있었다.

부인은 내 얼굴에 피어오르는 옛시절의 추억을 읽자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성주선생님도 길회선철도부설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던 1928년 가을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 가을에 길림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도 그때는 학생시위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성의회마당에서 성주선생님의 연설을 듣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

지난날 시위대열에서 구호를 웨치던 길림여자중학교 학생, 그러나 오늘은 여우털 외투로 몸을 감싸고 호송병의 호위를 받으며 친정집나들이를 다니는 연대장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심한 격세의 느낌을 받으며 연대장의 아내를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어제까지 반일을 하던 여성이 오늘은 친일의 열차에 오른 것이다. 무엇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망으로 하여 생겨난 타락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길림시절을 회고하는 그 여성의 절절한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반일을 하던 그전날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는 우리앞에서 눈물로 자신을 회개했고 수치를 무릅쓰고 여학생시절을 추억하였다. 이 여자가 무엇때문에 나를 보는 순간 그리도 놀라고 전율을 일으켰겠는가. 그것은 양심앞에서 느낀 공포였을 것이다.

≪성주선생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이 연설을 하실 때 주먹을 들고 호응했던 그 소녀가 글쎄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고생하는 성주선생님을 보니   감개무량하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인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부인, 진정하시오.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 안됩니다. 그런 절망, 그런 자포자기의 세계에 빠지기에는 시국이 너무도 준엄합니다. 안팎의 정세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중화의 모든 아들딸들과 지성인들을 항일구국의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대장의 아내가 되였다고 해서 항일을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여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다면 저의 처지에서도 항일을 할 수 있는 출로가 있단 말입니까?≫

≪있지요.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그가 혁명군을 토벌하지 않게만 하여도 그것은 곧 항일을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됩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위만군연대장이면 작지 않은 벼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벼슬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기가 중국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데 있습니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중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에 감격하는 위만군연대장부부

≪저의 남편도 연대장이기는 하지만 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이도 민족적 양심만은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주선생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설복해서 유격대토벌에 부하들을 내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연대장이 친일로부터 반일로 방향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 수하의 부하들도 애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인과 부인 남편되는 분의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간도에서 위만군장교로 복무하던 사람들이 친일로부터 항일로 방향전환을 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개하면서 여인에게 신심을 주었다.

여인은 오늘 성주선생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복이다, 선생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되는 바가 많다. 선생이 오늘 나에게 길림시절의 넋을 되찾아주고 우리 부부를 재생의 길로 인도해준 셈이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화민족의 딸답게 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만든 선전물과 송경령, 장내기 등이 상해에서 발표한 항일구국 6대강영도 보여주었다. 1차 북만원정때 영안에 있던 주보중의 산막에서 오평이 보여준 바로 그 6대강령이었다.

연대장의 아내는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품속을 뒤지더니 흰 종이에 싼 물건을 내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중국지폐였다. 아편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면서 군자금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성의가 고마웠으나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돈은 도로 간수하시오. 나는 오늘 잃었던 반일학우를 다시 얻었으니 그것만 해도 큰 재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대장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저녁상을 푸짐히 차려 위만군연대장의 부인에게 접대하였다. 그 여인이 지주집을 떠나가면서 나에게 대준 성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요행 남아있는 것은 ≪지≫라는 성뿐이다. 아쉽게도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얼마 후 우리는 위만군연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당신들은 세상에 더없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나의 아내에 생명을 보호해주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애국의 길을 걷게 한 당신들을 나는 결초보은의 각오를 가지고 도와줄 결심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는데 필치가 아주 비장하였다. 그 연대장의 이름도 ≪장≫무엇이라고 하였는데 기억이 삭막하다.

그 후 우리는 음력설 준비를 하느라고 액목현성 근처에 군수관을 파견하였다. 그는 언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설음식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구입하느라고 시가지에까지 들어갔다가 과업을 채 수행하지 못한 채 현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위만군연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은 경찰서에 인민혁명군은 군대가 관계하는 것만큼 군수관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군수관은 위만군연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연대장은 아내를 시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군수관을 귀빈으로 환대해 주었다. 그는 **김**사령부대가 자기 아내를 잘 도와주어 감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황에 놓이든지 당신들을 토벌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담보하는 것이니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당신네 부대를 만나면 공중에 대고 총을 세 방 쏘겠으니 그럴 때에는 우리 부대인줄 알고 못본척 하고 지나가라, 내 죽더라도 **김**사령의 은혜만은 잊을 수 없다, **김**사령한테 충심으로 되는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군수관에게 말한대로 위만군연대장은 그 후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우리가 삼과송부락에 머물고 있던 그 당시 관지부락쪽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액목현쪽에는 위만군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두 부대가 다 토벌을 다니기는 하였지만 12연대장이 지휘하는 위만군연대는 우리 부대와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교전을 피하곤 하였다. 우리도 일본군대만 골라가면서 쏘았다.

그 당시 일본군과 위만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의 하나는 철갑모였다. 철갑모를 쓰면 일본군이고 안쓰면 위만군이라는 것이 빨치산의 어느 부대에서나 다 통하는 공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만군까지 철갑모를 쓰고 전투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철갑모를 쓴 사람은 일본군으로 알고 무조건 쏠테니 유격대와 싸우지 않으려거든 철갑모를 벗으라고 하였다. 그런 경고를 받은 다음부터 위만군은 우리한테 접근하면 철갑모를 벗고 자기네가 만주군이라는 것을 알렸다.

빨치산은 철갑모를 쓴 자들이 대열앞에 있으면 앞을 치고 뒤에 있으면 뒤를 치군 하였다. 일본군은 ≪빨치산이 신통히도 우리만을 골라 친다.≫고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위만군이 토벌에 나올 때 오발 등의 방법으로 빨치산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은 이 약속도 곧잘 지켰다. 오발도 못할 때에는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한데 모여서 ≪지지가가≫, ≪지지가가≫하고 떠들어대는 방법으로 자기네 위치를 알려주군 하였다.

장연대장은 우리에게 후방물자도 적지않게 보내주었다. 그는 이따금씩 마차에 돼지고기와 언교즈를 가득 싣고 토벌을 간다고 하면서 주둔지역을 떠나서는 부하들을 시켜 우리 부대와의 접선장소에 가져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빨치산도 없는 왕청같은 곳에 부대를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병영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우리 부대가 관지부근의 어느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지휘관들 몇명이 나한테 몰려와 설명절을 앞둔 대원들의 기분상태를 보고한 다음 부락에 나가서 메밀이나 감자가루를 구해다가 명절날 국수라도 누를 수 있게끔 식량공작을 하게 승인해달라고 제기하였다.

나는 인민들에게 끼칠 부담을 고려하여 그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는 부대에 철수명령까지 내렸다. 그때 그 마을인민들은 **김**사령부대와 함께 설을 쇠게 되었다고 하면서 명절준비를 굉장히 하였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부대

의 명절음식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몇 달분 농량이 거덜날 수 있었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마을을 급작스레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 명분 때문에 정작 철수를 단행하기는 하였으나 대원들은 그때 사실 한 사람처럼 볼이 부어 있었다.

황니하자막바지에 거처를 옮긴 원정대는 목재소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산전막을 손질하고 거기서 설 명절을 쇠였다. 명절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차례진 것은 한 사람당 한 그릇밖에 안되는 좁쌀밥뿐이었다. 대원들이 그 밥을 먹고 얌얌해할 때 위만군 연대장이 보내준 돼지고기와 교즈가 도착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와의 친교가 깊어지게 되자 그 연대장은 나중에 원정대앞으로 무기도 보내주고 정보자료까지 제공해 주었다. 한 여인에게 비껴진 우리의 진정은 이처럼 진폭이 큰 결초보은의 메아리를 자져왔다. 위만군연대장은 만주국이 자기에게 준 연대장모자를 그냥 쓰고 있으면서도 과감한 연공실천으로 역사와 인민앞에서 장공속죄하였다.

위만군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하층병사대중을 전취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중하층장교들과 일부 양심적인 상층장교들까지도 전취하여 극소수의 악질장교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할 데 대한 적군와해방침은 그 연대장과의 사업에서도 크게 은을 낸 셈이었다.

이것은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득이였다. 우리와 단 한차례의 접촉도 해보지 않은 연대장이 자기 아내의 교양을 받고 반혁명의 하수인으로부터 연공애국인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길림여자중학교 출신의 연대장부인이 남편의 개심을 위해 적극적인 사상전을 벌인 것 같다. 그 여자가 아주 훌륭한 여자였다.

위만군 연대장은 얼마 후 화전지방으로 이동되었다. 나는 그를 위증민에게 인계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래도록 연대장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1941년에 와서야 화전에서 위증민의 활동을 보좌하던 곽지간을 통하여 한 토막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곽지산은 화전에 있는 위만군 12연대와 13연대가 조만간 열하쪽으로 조동되게 되었다는 것과 그 두 연대의 연대장들이 열하로 이동하기 전에 항일혁명군에 편입할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것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화전에는 그 당시 두 연대를 동시에 수용할 만한 부대도 없었고 두 연대장의 용단을 두고 책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부들도 없었다. 곽지산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그 대답을 받아가기 위해서였다. 위증민이 전사한 다음부터 2군 소속의 군정간부들은 부대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처리와 관련된 결론을 우리한테서 받아가곤 하였다.

나는 위만군이 열하로 조동되어가기 전에 그들을 조속히 의거시킬 데 대한 긴급한 임무를 주어 곽지산을 화전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이 늦은 탓으로 두 연대를 의거시키기 위한 거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연대장은 화전에 있을 때 양가성을 가진 새 연대장에게 자기 연대를 인계하였다. 그는 후임 연대장에게 부대를 인계하면서 반일의 길을 걷도록 교양하였으며 인접부대였던 13연대장에게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일혁명을 도와나서도록 권고하였다.

그 후 나는 열하쪽으로 조동된 위만군 제12연대와 제13연대의 후일담과 관련된 자료는 어데서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일작전시의 위만군의 붕괴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 부대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에 반기를 들고나선 것을 알게 되었다.

적군속에 있는 한 사람의 양심적인 벗은 수천수만의 벗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초시기부터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라는 구호를 내

들었다. 적군속에 포대를 쌓는다는 것은 적군속에 우리의 진지를 쌓는다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적군와해공작을 목적으로 적군속에 우리의 혁명역량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적군와해공작을 대적정치사업이라는 말로 통용하였다. 총탄으로 적을 잡는 것과 대적정치사업으로 적을 와해시키는 이 양자는 항일투쟁을 위한 두 가지 전략적 노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싸움, 어느 편을 막론하고 적과의 투쟁은 항상 이 두 가지 선상에서 진행되어왔다. 하나는 무력에 의한 싸움이요, 다른 하나는 정신과 사상선전에 의한 싸움이다.

일제의 소위 치안숙정에서도 치표공작, 사상공작, 치본공작 등 세 가지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총체적으로 보면 무력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소비공작과 선전선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상공작의 두 측면인 것이다. 적들도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려고 발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적정치사업을 위해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리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적지않은 사람들은 이에 잘 호응해 나서지 않았다.

목숨이 아깝다고 적군와해공작방침을 반대하여나선 졸장부는 물론 한 사람도 없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방침에 흔연히 호응해 나서지 못한 주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계급적 선에서의 탈퇴로 본 데 있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요, 상대는 부르조아군대이니 적아는 수화상극이다, 물과 불이 서로 의좋게 이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이치인데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린다는게 될 말인가고 하면서 머리를 내저었다.

맑스주의고전들을 한배낭씩 지고 다니는 축들은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협조와 비슷한 우경적인 탈선이라고 비평하였다. 그것은 불상용적 모순관계에 있는 계급적 원쑤들과의 제휴를 꾀한다는 것이겠는데 고전에는 적군와해에 대한 명제가 없다고 우겼다.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고전의 명제가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이런 일면적인 입장이 상당한 정도로 득세하였다.

계급투쟁이 심했고 계급적 원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은 때여서 누가 그런 입장에 선다고 해도 그것을 무슨 큰 탈선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다고 만난을 극복하였으며 따라서 계급이라는 이 명사앞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계급투쟁론에 대한 교조적인 해석의 후과로 하여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증오하는 감정이, 포섭하고 용서하는 도량보다도 징벌하고 규탄하는 비타협성을 혁명가의 특질로 보면서 사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년들을 협애한 인간으로, 문자그대로 인정사정 없는 ≪홍호자≫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맑스주의혁명은 이런 폐단으로 하여 진통을 겪었고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에 검은 그을음을 끼게 하였다. 계급옹호와 계급적 비타협성의 구호밑에서 계급의 이익 일면만을 고창해온 좌경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등을 돌려대고 적의 진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문제는 선행고전에 적군와해에 대한 명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혁명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선과 방침을 세우려고 하지 않은데 있었다.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우리는 맑스주의고전을 연구하는데서도 먼저 비타협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단결에 대한 사상부터 얻어내려고 애썼다.

우리가 적군속에 능히 혁명역량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노동자, 농민의 자제들인 절대다수의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물론, 일부 상층장교들속에도 우리 혁명을 동조하고 착취사회의 수난자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양심적인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모두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고 우군으로 전취한다면 적들은 그만큼 와해되고 우리의 혁명역량은 수배로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총포탄을 쏘지 않고 계급적 원쑤들을 섬멸하는 대공격전으로 되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인류의 행복과 화목을 염원하는 고상한 이념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대 선전으로 된다.



김구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입장과 뜻을 가지고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라는 구호를 대적정치사업의 기본구호로 제기하였다.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을 수 있다고 본 우리의 사상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인 동시에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착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경멸한다. 이 고유한 본성이 바로 인간성이다.

극소수의 반동적인 상층을 제외한 다수의 중하층 인간들과 상층의 일부 인물들은 우리가 넓은 도량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기만 하면 혁명의 지지자, 동조자, 방조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극소수의 반동들과 악한들을 제외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울 수 있다고 보는 우리의 정책은 바로 이런 입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김구를 테러의 왕초라고 하면서 이승만과 동열에 놓인 인간으로 반동시 하였다. 그가 일생동안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들에 대한 증오가 오죽했으면 김구, 이승만이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만화까지 나돌았겠는가.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자기네 공장굴뚝에 ≪김구를 타도하라!≫는 구호까지 써갈겼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 중에는 김구를 개조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김구 자신은 4월 남북연석회의때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반공분자로부터 연공, 친공인사로 개조되었다. 그가 이런 개조과정을 거칠 수 있은 것은 우리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에 그가 일생을 바친 애국애족의 정신이 고도로 발동되고 그의 인간성이 최대한으로 계발되었기 때문이다.

애국애족과 인간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를 겨누던 최덕신과도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의 남조선 집권자들과도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남조선의 통치자들과 대회의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협상탁에 마주앉는 것은 비록 제한성은 있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양심과 인간성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며 그 양자가 어느 때든지 민족화합의 대화원에서 꽃으로 만발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군전취의 대상과 방법문제를 놓고도 적지않은 논쟁을 하였다. 일본군대를 상대로 하는 대적정치사업에 대한 논쟁은 더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동무들은 위만군의 중하층의 전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면서도 어릴 때부터 ≪야마도 다마시≫로 ≪천황≫을 맹신하고 강압적인 규율에 길들어진 일본군인은 도저히 전취할 수 없는 존재로, 원쑤로 보았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독립

군 두령에게서도 반공사상을 뽑아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군 장병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도리질을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이 견해를 쉽게 부정해 버렸다.

어느 해인가 간도의 농촌부락들에 열병이 돌아서 일본군대들이 앓는 사람들을 집에 걷어넣고 불을 질러 태워죽이는 살인만행을 감행한 적이 있다. 동장영이 앓고 있은 부락에도 토벌대가 달려들었다.

한 일본장교가 방안에 누워있는 동장영을 보자 대뜸 자기 부하에게 문을 걸고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일본군인은 상관의 말대로 불을 달려고 서둘렀다. 최후의 순간이 닥쳐왔다고 생각한 동장영은 죽을 바에는 마지막으로 선전이나 하다가 값있게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한바탕 선전을 하였다.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그는 일본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였다.

너도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겠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구 죽이는가? 죽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인사불성도 분수가 있지 앓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격렬한 절규에 마음이 움직여진 일본군인은 뒤문짝을 차던지고 상관이 눈치채지 못하게 동장영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야 불을 달았다.


최덕신

동장영은 밭고랑에 숨어있다가 가까스로 사지에서 구원되었다.

이 일화는 일본군을 전취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고집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견결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지략에 능한 동무들을 선발하여 대담하게 적군속에 파견하였다.

적군속에 홀로 있는 고립무원한 상태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대적정치사업을 훌륭히 수행한 유명무명의 많은 공작원들에 의하여 위만군과 자위단들속에서 매일과 같이 병변이 일어났다.

우리는 유격대원이라면 누구나 다 함화, 출판물 보급, 여론유포, 가요보급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대적정치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적군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집단적으로도 하는 우리의 열렬하고 감화력있는 선전공세로 하여 많은 위만군 부대들이 유격대와 싸우기를 그만두고 충실한 무기수송대로 되었다.

위만군들은 편지 한 장만 내도 무기, 탄약, 식량을 실어다 주었고 전투마당에서 ≪요창 부요밍(총을 요구하지 목숨은 필요없다.)≫하고 입대포만 놓아도 총을 바치고 투항하였다.

적 토벌대들은 우리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지만 우리는 적군을 포로하면 위만군이건 일본군이건 차별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으로 잘 대우하고 친절히 교양하여 여비까지 주어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니 심지어 우리 부대에 총을 메고 7차례나 포로되어온 위만군병사까지 있었다. 우리가 그 병사에게 농조로 이 친구 또 왔구만 하면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혁명군에 총 바치러 왔습니다≫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우리는 동만에서 활동할 때 왕청현 나자구 문영장부대의 중대장들을 비롯해서 적의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들도 무수히 전취하였다.

1934년 남하마탕의 마굴령부대에 들어가 와해공작을 훌륭히 수행한 ≪첸렌장≫도 원래는 위만군중대장이였는데 우리가 영향을 주어 공산주의자로 개조하였다.

일본군병사들속에도 우리를 잘 도와준 잊을 수 없는 벗들이 있다.

소왕청방어전투 때 전지수색을 하던 오백룡이 일제침략군 운전수의 시체에서 유격대에 보내는 쪽지편지 한 장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그 편지의 임자는 노동계급출신의 일본침략군 운전수였으며 일본공산당원이었다. 그는 탄알 10만발을 자동차에 싣고 우리를 찾아오다가 유격구가까운 산기슭에서 발각되어 유서를 호주머니에 써넣고 자결하였다.

그가 지닌 고결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혁명정신은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일본에 남겨두고 망망한 창해와 험악한 산악을 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다가 이국의 산기슭에 조용히 묻힌 일본공산당원의 형상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고 있다. 소왕청사람들은 자기네 고장 소학교에 이 국제주의전사의 이름을 달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교명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액목땅에서 위만군 토벌에서 악명을 떨친 1개 대대의 위만군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 대대는 전투경험도 풍부하였고 지휘체계와 대열관리에서도 빈틈이라고는 전혀 없는 악질적인 부대였다. 공작원들을 파견하려고 하여도 우선 침투할 수 없었다. 우리는 허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 부대에 대한 입체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잡아쥔 것이 바로 이 대대의 대대장이 봉급이 낮아서 상급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돈에 궁한 나머지 부관을 시켜 아편장사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부대에 대한 와해공작에 착수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였다.

어느 날 우리 공작조성원들은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아편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는 부관을 체포하였다. 부관은 혁명군이 화폐와 꼭같은 가치를 가지고 통용되는 대대장의 아편을 빼앗을 것 같아서 몹시 걱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은 아편 따위는 다치지는 않고 부관을 잘 교양하여 대대로 돌려보냈다. 여기에 감동된 부관은 부대에 돌아가 자기 대대장에게 일본사람들의 선전을 듣고 공산군을 비적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만나고보니 다 점잖고 문명한 사람들이더라고 누누히 보고하였다.

그 후 우리는 부관을 통하여 그에게 나의 이름자가 찍혀있는 명함장과 편지를 보냈다 유격대는 당신들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비록 혁명군을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을 계산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민을 해치지 말고 인민혁명군을 해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당신들이 만일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혁명군과 우호적으로 지낼 의향이 있다면 철군과 같은 출판물이나 종종 보내달라

이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 부관이 우리에게 ≪철군≫잡지를 가지고 와서 출판물을 넘겨줄 비밀장소를 협의하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고목의 구새통속에 대내와 대외에서 발간되는 여러 가지 신문, 잡지들과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었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 부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군수물자들을 사오라고 하면 그 부탁도 어김없이 들어주었다.

우리의 호의에 감심한 위만군대대장은 유격대 부상병 치료까지도 자진하여 해주었다. 병영 안에 우리 부상병들을 숨겨두고 대접을 잘 해가면서 총상자리가 아물 때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었다.

인민혁명군을 진정한 인민의 군대라고 본 그는 우리와의 우호관계가 깊어지게 되자 ≪산중에 있는 전우들에게 고함≫이라는 격동적인 편지까지 써서 나에게 보내왔다.

진실을 따르고 사랑을 예찬하는 것은 인간본연의 양심이다.

우리는 늘 동무들에게 적들은 기만과 허위, 위협과 공갈로써 우리 대오를 와해시

키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진실과 사랑은 가지고 적군의 심장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이 말을 소중히 생각하고 대적정치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공작원들 중에는 임은하라는 나어린 처녀유격대원도 있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연극 ≪해바라기≫는 바로 그의 실재한 투쟁을 형상한 예술작품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봄 미혼진밀영에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새 사단편성과 조국광복회창건 준비사업을 위한 일련의 주요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있던 무렵에 그 처녀도 우리를 따라 장차 백두산지구로 나갈 생각에 몹시 들떠 있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예쁘고 귀여운 처녀였다. 그의 나이는 그때 20살도 못되었고 소녀처럼 체구도 자그마했다.

≪장군님, 이번엔 꼭 저를 데려가시지요?≫

처녀는 나를 만날 적마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우리는 병약한 위증민을 위하여 처녀를 그의 곁에 떼두었다.


미혼진밀영에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우리를 따라 조국으로 가게 되리라던 기대가 무너지자 처녀는 삽시간 눈물이 가랑가랑해졌다.

나는 그를 위로하였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오. 우리가 백두산쪽에 나가 자리를 잡으면 위증민동질 데려다 치료를 시키겠소. 그러면 동무들도 같이 오게 될거요.≫

≪장군님,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녀는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면서도 맥이 풀린 듯 하염없이 남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며칠후에 우리는 미혼진을 떠나 소프르허부근 마을에서 숙영하게 되었는데 집이 네댓채밖에 안되는 이 외진 산간마을에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당하였다. 새벽에 대포시하에 있던 적들이 마을에 달려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신속히 유리한 지대를 차지하고 달려드는 적을 화력으로 타격하였으나 골짜기 건너편에서 따로 숙영하던 동무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그 집에는 위증민과 모스크바 중산대학 출신으로서 우리에게 새로 파견되어온 이주임 그리고 조아범의 아내와 임은하가 있었다.

적을 격퇴하고 전지를 수색하던 우리는 집천정에서 위증민을 찾아냈다. 총상을 입은 그의 허벅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날 따라 위증민은 병세가 악화되어 운신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임은하가 용케 그를 천장에 숨겨놓았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적의 화력을 피해 산으로 내달리다가 적탄에 다리를 맞고 체포되었다.

그날 조아범의 아내와 이주임은 희생되었다.

적들은 임은하를 대포시하부근에 주둔해 있는 위만군중대로 데리고 가서 빨래도 시키고 식모일도 시켰다. 일본지도관놈이 처음엔 모진 고문을 들이대며 비밀을 짜내려고 했으나 그것이 소용없게 되자 전술을 바꾸어 잡일을 시키면서 속을 뽑아보려고 하였다.

임은하는 적진속에 홀로 있는 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면 혁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위만군의 옹근 중대를 의거시킬 담대한 계획을 가지게 되였다.

임은하는 우선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로써 고달픈 병사생활에 이지러진 사나이들의 가슴을 움직여 보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위만군병사들과 접촉할 기회를 조성하기 위해 빨래줄을 일부러 병영마당에 치고 무시로 빨래를 손질하며 향수를 자아내는 슬픈 노래를 불렀다.

우리에게는 대적정치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낸 좋은 노래가 있었다. 그것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끌려가 죽은 남편의 무덤앞에서 부르던 슬픈 옛 노래의 곡에다 혁명적 내용의 가사를 붙여 만든 것이였다.

임은하는 장교들이 있는데서는 보통노래를 부르고 앞에서는 그 노래를 불렀다.

원래 그가 시중을 들어주는 중대의 병사들은 과거 구국군에 있다가 우두머리의 변절로 위만군에 편입된 사람들이었는데 반일기분이 강했다.

아름답고 유창한 그의 노래는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교들도 그의 애수에 찬 노래를 들을 때면 먼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포로로 잡힌 유격대 처녀가 명창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어떤 병사들은 일부러 찾아와서 노래를 청하기까지 했다.

≪유격대 아가씨, 노래 한번 불러주!≫

그러면 임은하는 생글생글 웃으며 ≪그까짓 돈도 들지 않는 노래 100번인들 못 부르겠어요.≫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가며 처량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 구슬픈 노래속에는 일본사람들의 학대밑에 피흘리며 죽어가는 중국인들의 원한이 사무쳐 있었다.

옛날엔 만리장성의 고역이 중국인의 무덤을 쌓았고 오늘엔 왜놈들의 총칼이 우리의 무덤을 쌓는다. 일어서라, 나가자, 중국인의 원한을 씻으러

이런 노래를 부르노라면 어느덧 처녀도 울게 되고 억대우같은 병사들도 눈물을 짓게 되는 것이다.

임은하는 노래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도와 바느질도 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남겼다가 나누어주기고 하였다.

이 과정에 임은하와 병사들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게 되었다. 그 병사들 중에는 그를 친누나처럼 극진하게 따르는 애숭이사병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유랑걸식하다가 밥술이나 얻어먹으려고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이였다.

임은하는 이 외롭고 불쌍한 청년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인정에 주렸던 어린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는 어느덧 친누나나 어머니와 같은 귀중한 존재로 되었다.

하루는 어린 병사 3명이 그를 찾아와서 결의형제를 뭇자고 하였다.

≪은하는 우리의 맏누님이요. 누나를 위해서라면 이 동생들은 목숨을 바치겠소.≫

청년들의 맹세는 엄숙하고 절절하였다.

임은하는 물론 그들의 제의를 승낙했을 뿐 아니라 ≪이 누나도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어요!≫라고 하면서 뜨겁게 청년들의 손을 잡았다.

임은하는 그들을 핵심으로 결의형제대열을 더욱 확대하고 점차 그것을 반일회조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거사를 위해 위만군중대장에게도 접근하였다. 중대장 역시 구국군출신이였는데 일본지도관놈의 전횡으로 늘 울분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런 기분상태를 제 때에 포착한 임은하는 어느 날 중대장을 찾아가 일부러 품을 내여 유격대에 의거한 여러 위만군들의 생활에 대해 실감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리고 대담하게 들이댔다.

≪중대장님도 부하들을 데리고 의거하세요!≫

처녀의 돌발적인 제기를 받고 처음에 중대장은 당황해 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소처럼 천대받으며 살겠습니까. 어제도 중대장님이 제일 사랑하는 왕사병이 일본 지도관놈한테 매를 맞아 인사불성이 됐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놈에게 말 한마디 못하더군요.≫

임은하는 격분에 치를 떠는 중대장에게 연방 들이댔다.

≪제가 도와드릴테니 의거하세요! 당신의 부하들은 모두 나의 결의형제들이며 반일회원들입니다.≫

중대장은 불같이 타오르는 처녀의 눈을 경이에 차서 바라보았다. 과연 이 조그마한 유격대 처녀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작은 몸집에 비해 심장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에 중대장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내 사내자식으로 태어나 부끄럽소!≫

그는 그저 이 한마디를 내던지고 도망치듯이 처녀의 곁을 떠났다.

그 이튿날이었다.

임은하의 영향을 받고 있던 병사들이 여섯 달째나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여 집단적으로 항의투쟁에 나섰다. 일본지도관은 이날에도 병사대표를 마구 때리고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임은하는 바로 이때야말로 운명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하고 병사들앞에 분연히 나서서 반변을 호소하였다.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오빠들!

저 오만무례한 일본지도관놈을 처단하라!

치욕스러운 위만군생활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항일유격대를 찾아가자!

위만군병사들은 그의 호소에 따라 일본지도관을 처단하고 신속히 대열을 지어 항일유격대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간 무장은 체코제 기관총 3정, 보총 19정, 권총1정, 탄알 4,700여발이었다.

20살도 못되는 나어린 처녀가 적의 1개중대를 의거시킨 이런 사건은 역사에 흔치 않은 일이다. 일제의 비밀문건도 여대원이 일으킨 위만군중대의 반변사건을 미증유의 경이로운 사건으로 특기하였다.

임은하는 우리의 뜻대로 진심과 사랑과 공산주의자의 높은 도량을 가지고 위만군병사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준 유격대의 꽃이었으며 큰 심장을 가진 조선의 딸이었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의 대적정치사업은 더욱 활발해져서 지어 악질적인 정안군까지 혁명조직이 뻗쳤다. 자위단과 위만군, 경찰 같은데는 우리 조직이 판을 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조국광복을 위한 대일작전시에 위만군들은 거의나 다 일제에게 총부리를 돌렸거나 와해상태에 있었다.

부정의의 군대였던 일본침략군과 위만군의 수치스러운 운명은 다르게 될 수 없는 역사의 합법칙적 귀결이었다.

어쨌든 인간은 직선으로 가든 에돌아가든 또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정의와 진리의 편으로 찾아가기 마련이다.

나는 액목에서 사귄 연대장의 생사안위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연대장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부인이나 후손들도 어디엔가 살아있다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3. 경박호 기슭에서


남호두회의 장소

만주대륙의 으뜸가는 명승지 경박호의 남쪽 호반에는 남호두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남호두란 호수의 남쪽머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호수의 북쪽호반에 있는 마을은 북호두라고 부른다. 호수로 흘러드는 소자지하 물줄기를 따라 상류쪽으로 몇십 리 올라가면 깊은 계곡의 어느 한 산탁에 낡은 귀틀집 두채가 있었다. 그 집의 한 채가 바로 1936년 2월에 우리가 회의장소로 사용한 집이었다.

지금은 초목에 묻혀 집터 자리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지만 오륙십 년 전에는 그 귀틀집앞에 커다란 쇠스레나무와 잣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있어 회의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되었다. 1930년대 후반기 역사의 시원지가 다름아닌 우리 나라 역사가들이 ≪소자지하의 귀틀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이다.

우리가 2차 북만원정이라고 부르는 또 한차례의 원정을 끝마치고 그 고장으로 향한 것은 1936년 2월 중순 입춘도 지나고 우수를 맞이한 무렵이였다. 절기로 따지면 봄이 시작된 셈이지만 북만의 혹한은 여전히 기광을 부리며 사나운 대륙풍으로 우리를 후려갈겼다. 경박호에서는 이따금씩 얼음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소자지하의 밀림속에서는 참나무, 박달나무들이 얼어 터지는 쩡쩡 울렸다. 그 고장 혹한이 어찌나 심했던지 한다하는 작식대원들조차 한지에서 밥을 짓는 날은 설구지 않는 적이 거의 없었다. 밑굽의 쌀은 새까맣게 타도 영하 40도의 강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웃층은 끓지 않아 식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북만은 나의 일생에서 선음식을 가장 많이 먹은 고장으로도 인상이 깊다.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때였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장성하였고 투쟁의 전망도 낙관적이었다. 파란과 역경을 헤쳐온 항일혁명은 분명 새로운 전환기를 향하여 힘차게 줄달음치고 있었다.

원정을 종결짓고 겹쌓인 노독을 풀 사이도 없이 위증민과의 상봉장소로 내정되어 있는 남호두를 향해 발걸음을 다그치는 나의 마음은 혁명의 장래에 대한 천 갈래 만 갈래의 생각으로 하여 실로 착잡하고 번거로왔다.

나는 북만원정의 전 기간은 물론이고 원정을 마친 다음 소자지하에 가 있으면서도 반년 전에 모스크바로 떠나간 사절들을 학수고대하였다.

요영구회의 결정에 따라 위증민이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되어있는 기본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동만에서 수천 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였던 ≪민생단≫문제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공사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였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약관화한 것이지만 국제공산당이 존재하였고 1국1당제원칙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어 있던 당시로서는 어느 견해가 옳고 어느 견해가 그르다고 가볍게 판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심각한 난문제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운명문제이기도 하였다.

1국1당제원칙을 휘두르며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답지 않은 이단행위이며 비당적 분파행위라고 걸고드는 사람들의 지론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였다.

공산주의자란 곧 국제주의자인데 어떻게 협애한 민족주의이념에 사로잡혀 자기가 당적을 붙이고 있는 나라의 혁명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조차 없는 고국생각에 골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2국제당시기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었던 수정주의자들과 같은 입장이다. 레닌은 일찌이 조국방위론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배신자로, 원쑤로 낙인하고 규탄하였다, 당신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론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사회주의자의의 배신자로, 원쑤로 낙인될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위증민이 가지고 올 결과를 대체로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였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위증민도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나는 국제당에 있는 일군들이 조선혁명의 근본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제소에 응당 긍정적으로 대답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제당이 우리의 고충을 진리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우리가 위증민을 통하여 모스크바에 제소한 문제점들이 어느모로 보나 혁명적 원칙과 혁명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변함없이 믿어온데도 있었지만 국제당이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정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 있었다.

레닌에 의하여 국제공산당이 조직되던 1919년만 해도 집권한 노동계급의 정당은 오직 러시아 공산당 밖에 없었다. 제2국제당의 수정주의적인 사회민주당으로부터 혁명적인 좌익이 떨어져 나와 공산당들을 조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매우 미숙하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힘으로 맡아 할만한 역량으로까지는 자라나지 못하였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전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쏘비에트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세차게 벌어졌으나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이라는 유리한 객관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매개 나라의 주체적 혁명역량은 적들을 압도하고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으리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앞에 신생 러시아와 러시아공산당을 축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재편성하고 조직적으로 결속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게 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조직형식과 활동방식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세우며 매개 나라의 당과 혁명운동이 국제적 중앙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일부 공산주의자들속에서 자기나라 혁명의 목적과 민족적 이익을 떠나 모스크바바람에 덮어놓고 추종하는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발로되었은 바 이런 경향으로 하여 각국의 혁명운동은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그러나 국제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각국의 혁명운동은 발전하였고 매개 나라들에서의 혁명역량도 장성하였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맡아 수행할만한 역량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초엽부터는 아세아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도 공산당들이 연이어 출연하였고 그 당들의 영도밑에 민족해방투쟁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많은 나라 당들의 발언권이 서게 되고 자기당의 노선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공산당이 모스크바에 앉아서 세계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 여러 대륙에 널려 있는 나라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처방을 제때에 내리거나 천변만화하는 정황과 조건에 맞게 그 나라들의 혁명투쟁을 조종하고 지도한다는 것도 기실은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연합으로 조직된 국제당은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시달하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중들의
강제군사훈련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혁명역량을 조직하고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그 조직형식과 지도방식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되었다. 혁명은 수출입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매개 나라의 혁명역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워야 할 절박성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노선 작성과 집행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기 당의 독자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천된 정세는 국제당이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었다.

위증민은 1935년 여름에 훈춘쪽으로 해서 쏘련으로 들어갔는데 나올적에는 하얼빈이나 목릉을 거쳐서 영안행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남호두에로의 걸음을 다그치고 있던 그 시기를 전후하여 국제무대에서는 파시즘의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었다.

에스파니아내전은 파쑈들의 노골적인 무력간섭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띤 열전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동방에서는 일본열도가 새 전쟁의 온상으로 번져 갔다. 일본의 군국화는 시시각각으로 가속되었다. 1932년 5.15사건에 이어 사이또 내각의 성립으로 정당내각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군부내각시대를 맞이한 일본땅에서는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이고 문화의 어머니≫라고 찬미하는 열기띤 말마디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전세계를 향하여 난사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파쑈화 추세는 우리가 남호두회의를 하기 직전인 1936년 2월 26일의 사건으로 극한점에 이르러 마침내 소장파 군부의 해외침략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숨가쁜 국면을 빚어냈다.

반란에 참가한 청년장교들과 1,000여명의 하사관, 병사들은 수상이하 여러 대신들의 관저를 습격하여 내대신, 장상, 교육총감, 시종장 등의 정부요인들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경시청, 육군성, 참모본부, 육상관저를 점거함으로써 이른바 ≪일본정치의 심장부≫를 제압하였다.

≪존황토간≫의 구호밑에 일어난 무장반란은 나흘만에 진압되고 주동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국은 수습되었지만 이 사건은 일본군국주의 발호의 위험신호로 되었다.

황도과와 통제과의 대립으로 나타난 일본군부계층들간의 알력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는 2.26사건은 일본에서의 파쑈화, 군부독재에 의한 군국주의체계의 확립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었다. 일본국내에서의 군국

주의세력의 준동은 새로운 전쟁과 보다 큰 규모의 군사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이 사태발전을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였으며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후과를 예상하면서 우리의 투쟁전략을 재검토하였다. 반란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일본군국주의가 국내정치생활에 얼마나 횡포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침략의 길을 닦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실 일본은 그때로부터 1년반이 못되어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보다 큰 침략의 길로 줄달음을 쳐나갔다.

일본의 파쑈화는 식민지조선의 질식도 가속화시켰다. 조선반도에서는 모든 조선적인 것을 말살하고 모든 형태의 반일운동과 반일적인 요소들까지 전멸시키기 위한 광란적인 대섬멸전이 벌어졌다.


창씨개명에 내몰린 서울 시민들

일본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을 하는 것, 색옷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는 것, ≪히노마루≫를 게양하지 않는 것,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지 않는 것, 심지어는 게다를 신지 않는 현상까지도 반일, 반역, 반국가 행위로 범죄시하면서 벌을 주고 벌금을 물리고 붙잡아 가고 가두어 넣었다.

민족멸살의 무시무시한 대풍랑속에서 양심의 마지막 쪼박마저 잃어버린 어제날의 애국지사들은 목숨이라도 살려보자고 ≪동조동근≫과 ≪내선일체≫를 부르짖어며 반역의 길을 걸었다.

애국은 죽어가고 매국만이 살판치던 세월이었다. 조선은 통채로 죽어가고 있었다.

조선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백두산에 나가서 조선은 살아 있다, 조선은 싸우고 있다, 조선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실증해주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박한 이유로 되고 있었다.

남호두회의를 전후한 시기 국제국내적으로 이처럼 충격적인 변화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사변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중압감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 나는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게 되면 얼마든지 일제를 타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행군은 고되고 노독도 이를 데 없이 심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백두산지구 진출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대원들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우리가 경박호에 깃들어 있는 진주문 마을의 전설을 들으면서 그 전설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도 남호두로 갈 때였다고 생각된다. 그 전설의 줄거리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었다.


농촌의 부녀자들까지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게 하였다

경박호기슭의 진주문이라는 마을에 가난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다. 20살 전야의 딸은 경국지색이라고 불리울만큼 미모가 뛰어난 처녀여서 아근의 총각들은 누구나 그 처녀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어하였다.

그런가 하면 처녀의 아버지는 천길 물속이라도 꿰뚫어볼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전날 낚시질을 하면서 보니 호수의 깊은 물속에 금거울이 갈아 앉아 있더라. 그 금거울을 꺼내오자면 물밑에 있는 대가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거사를 하자면 아주 용감하고 담이 큰 방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방조자가 됨직한 인물을 물색하지 못해 요즘 이 아버지는 며칠째 궁리를 하는 중이다.≫

효성이 지극한 딸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도와서 금거울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는 총각이 있으면 나는 그런 총각에게 시집가겠어요.≫

딸의 발기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딸의 의사가 여차여차하다고 인근 마을들에 소문을 돌렸다. 그 소문을 듣고 숱한 총각들이 진주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에게 금거울을 끌어올릴 계획이 어떠어떠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누구도 방조자가 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양가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나타나 방조자가 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아버지와 딸은 즉석에서 그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금거울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 사위로 맞아들인다는 언약까지 하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게 개인 어느 날 아버지는 양총각과 함께 호수에 나갔다. 배를 호수위에 띄운 노인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된 세 개의 검을 젊은이에게 주면서 ≪내가 첫 번째로 물위로 떠오를 때 자넨 나에게 제일 작은 검을 주어야 하네. 겁을 먹어선 안되네, 금거울을 꺼내오기 전에 중도에서 겁을 먹고 도망치면 내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자네 목숨도 없어지고 마네.≫

총각은 ≪아버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하고 노인을 안심시켰다.

총각은 배 위에서 물 속을 들여다보고 처녀는 호반에서 총각을 주시하였다. 잠시 후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불쑥 물위에 떠올라 왔다. 총각은 약속대로 소검을 늙은이에게 넘겨주었다. 노인은 그 검을 받아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호수의 심층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노인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머리만한 괴물의 대가리를 들고 물 우에 나타나 두 번째로 검을 받아쥐고 재차 물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이 자나자 수면의 물결이 갑자기 높아지고 배가 뒤집힐 듯한 풍랑이 일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이 이번에는 말대가리만한 괴물의 목을 잘라가지고 올라와 총각의 손에서 세 번째 대검을 받아 쥐고는 또다시 사품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우레가 일고 호수 위에서는 격랑이 끓어번졌다. 총각이 탄 배는 그 격랑 위에 당장 물에 처박힐 듯이 아슬아슬하게 기우뚱거렸다. 호반의 처녀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앞에서 간이 마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며 손에 땀을 쥐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경박호

정신착란을 일으킨 젊은이는 노인과의 언약도 저버리고 호반에서 가기를 지켜보는 처녀에 대한 미련도 다 집어던지고 호수가 향해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나갔다. 격노한 호반의 처녀는 발을 구르며 총각을 욕질하다가 그를 설복하여 배머리를 호수 복판으로 돌리게 하고는 자기도 총각과 함께 배를 타고 아버지를 찾았다. 바람도 지고 격랑도 잠들었으나 아버지의 형체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처녀와 총각이 목청을 합쳐 안타깝게 부르고 또 불렀지만 수중고혼이 된 아버지는 그들의 피타는 절규에 호응할 수 없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배 위에서 언약을 어긴 총각을 꾸짖었다. 하지만 말다툼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두 젊은이의 모습도 얼마후에는 안개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액목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영안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식으로 지방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설의 줄거리는 대체로 이러하였다. 짐작컨대 경박호란 호수의 이름도 진주문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 같다. 전설은 우리로 하여금 의리와 희생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총각을 의리가 없는 비겁한 놈이라고 욕하였다. 이 전설이 남긴 여운이 대단히 컸다. 빨치산대원들은 훗날 대열 내에서 비겁분자가 생길 때마다 ≪경박호의 양총각 같은 놈≫이라고 규탄하였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우리들앞에 제기하고 있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취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짓기 위하여 나는 백두산으로 떠나가 전에 먼저 소자지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지하기로 하였다.

모스크바에 간 사절들을 기다리면서 회의에 제기할 보고서 초고를 거의 끝내가고 있던 2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무렵 기척도 없이 귀틀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위증민이 불쑥 내앞에 나타났다. 몇달동안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예정보다 늦게 돌아왔노라고 하면서 그는 퍽이나 미안해하였다. 비록 예정기일은 초과하였지만 그가 병약한 몸을 추세워가기고 만주로 돌아온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었다. 모스크바 바람을 쏘이고나서 그런지 몸이 퍽 충실해진 것 같았다. 아직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겉모습과 여유작작한 표정만 보고서도 그의 모스크바행이 좋은 결실을 자져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위증민

위증민의 귀환노정이 순탄치 않았다. 그는 철도로 하얼빈을 거쳐 영안에까지 와서 주보중의 5군 동무들을 만나 본 다음 남호두로 오다가 만구부락근처에서 순찰중에 있던 경찰들에게 걸려들었다. 몇 마디의 심문 끝에 상대를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자기네 분서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위증민의 보따리속에는 국제당에서 받은 중요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끌려만가면 만사가 끝장날 판이였다. 그는 돈 50원을 경찰의 손에 쥐여주고 무사히 풀려나왔다.

위증민은 자기 몸값이 몇 만원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50원 밖에 안되더라고 하면서 농을 하였다.

위증민은 별스럽게도 나에게 새삼스러운 악수를 청하였다.

≪**김일성**동지, 그 손을 다시한번 잡아봅시다.≫

순간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방금 전에 악수했는데 또 무슨 악수입니까?≫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악수는 의의있는 악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김일성**동지, 국제당에서는 동지의 제소를 받고 그것을 심중히 토의한 끝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짓고 그를 지지하여 중대한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일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눈굽이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위증민의 두 팔을 덥석 끌어당겼다.

≪그렇습니까!≫

≪예, 국제당은 반≪민생단≫투쟁문제를 비롯해서 동만당의 일부 활동에서 엄중한 좌경적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당의 책임일

군들로부터 거기에 가 있는 중공당대표부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을 국제당이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당은 앞으로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중국혁명을 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맡아 하도록 책임을 서로 분담할 데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왜인지 한동안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그가 무엇인가 심중한 자책과 회오에 잠겨 있음을 간과하였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하던 지난날의 격론을 돌이켜보는 것인가, 다홍왜와 요영구의 회의장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논란을 겪어 왔던가,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그런데 위증민의 모스크바행으로 하여 그처럼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소망과 염원대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 것이다.

위증민의 모스크바행과 관련한 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그가 국제당 7차대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학습시찰을 목적으로 지방당간부 10여명을 대동하고 훈춘에서 떠났으며 그의 주요임무는 국제당 주재 중국대표단에 ≪민생단≫문제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가 국제당 7차대회에 참석했다는 자료가 지금도 국제당문헌고에 엄연히 남아있다.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가서 만주에서 빨치산 투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국제당에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국제당에 제출한 보고는 ≪풍강보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어떤 자료들에는 그 극좌의 주되는 책임이 위증민에게 있다고 씌여 있으며 그와 반대로 어떤 자료들에는 그가 동만특위 서기로 파견되어온 다음부터 반≪민생단≫투쟁에서의 편향이 바로 잡히게 되었다고 지적되어있다.

나는 반≪민생단≫투쟁의 모든 해독적 후과에 대한 책임이 다 위증민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1934년 겨울 위증민이 하얼빈사당 서기로 있으면서 성위순시원으로 동만에 파견되어 왔던 초시기 ≪민생단≫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태에 그가 매우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당시 그는 혁명조직과 유격대안에 ≪민생단≫이 많이 박혀 있고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숙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성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게 매달려 있었다. 후에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대부분의 조선사람이 다 ≪민생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실토하였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가서 우리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를 놓고 보아도 그의 말은 대체로 진실인 것 같다.

≪**김일성**, 조선인.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중국어를 잘한다. 빨치산 출신이다. ≪민생단≫이라는 진술이 대단히 많다. 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대원들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구국군속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어쨌든 위증민은 초기의 이러저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민생단≫문제와 관련한 국제당의 결론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가 숙반투쟁에서의 극좌적 오류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실 그는 다홍왜회의 때에도 ≪민생단≫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였다.

그가 민족관념을 초월하여 국제당에 동만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에게

이룹도록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돌아온 것은 고마운 일이였다.

≪고맙습니다. 국제당도 고맙고 특히 우리를 위해 병약한 몸으로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수고해 준 위증민동지가 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되는 나의 인사였다.

위증민은 과분한 칭찬이라고 하면서 몹시 계면쩍어 하였다.

≪동만특위와 그 산하의 우리 중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문제를 편협하게 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처리한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애매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로 출정하는 기계화 부대를 사열하는 무쏠리니

반≪민생단≫투쟁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나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위증민의 말을 진실한 자기반성으로 받아들였다.

≪로위,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인데 왜 실책을 범할 때가 없겠습니까. 나는 ≪민생단≫문제가 복잡하게 된 근본원인을 일본놈들의 민족이간 책동에서 찾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적이 던진 계책에 한동안 빠져서 골육상쟁을 벌림 셈이지요. 제편끼리 해칠내기를 했으니깐 ≫

위증민은 ≪내가 동만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간도땅을 자기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도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필시 일본놈을 등에 업고 간도땅을 차지하려 할 터이니 철저히 경계하라고 했지요. 내가 처음에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하고 허구프게 웃었다.

위증민의 얼굴을 쳐다보는 나는 어딘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로위, 만사가 다 좋게 풀렸는데 지난날의 일들을 더 생각하지 맙시다. 솔직히 말하여 로위를 국제당으로 전송할 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위가 우리의 제의를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제당에 책임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언명했을 때 그 성실성을 믿었더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국제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 것은 죄로 되지 않겠다는 것과 그것은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응당히 분공주었어야 할 신성한 의무이며 1국1당제 원칙으로도 빼아낼 수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당한 권리라는데 대해서도 명백하게 결론하였다.

우리는 조롱속에 갇혔다가 놓여난 새처럼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는 광활한 자유를 선사받은 듯한 심정이였다.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날개가 생긴 셈이였다. 날개가 생긴 이상 조선혁명은 급속히 상승비행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위증민은 국제당 제7차대회의 전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해 주었다.

당시 국제공산당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세계적 판도에서 강력하게 벌이는 것이였다.



히틀러와 항공상 게링그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파시즘은 많은 구라파 나라들에서 음산하고 불안스러운 정치적 변동을 가져왔고 인류의 머리위에 새로운 전쟁의 구름을 몰아왔다. 이탈리아의 무쏠리니에 의해 조직된 ≪국민파시스트당≫으로부터 시작된 파시즘은 독일의 히틀러와 그에 의하여 조직된 나치스당에 의해 극치를 이루었다.

파시즘은 극단적인 민족배타주의를 고취하였는 바 이것은 독일이 새로운 세계대

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화근으로 되였다. 파시즘이 안고 있는 극단한 반공심리는 반유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그때까지 존재한 고금동서의 모든 반동사조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해독적인 사조로 되였다. 파시스트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정치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독일부르조아지는 히틀러와 같은 파쑈독재자의 강력한 주먹만이 독일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제압하고 독일제국의 새로운 중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미트로프

히틀러파시스트는 권력을 탈취한 후의 첫 사업으로 독일공산당을 반대하는 모략에 달라 붙었다. 온 세상을 경악케 한 악명높은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은 이 모략에 의해 연출된 희세의 광대극이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면서 히틀러나 게링그가 노렸던 정치적 목적은 수치스러운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물론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을 비법화하고 국회 자체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기는 했지만 세계의 면전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부르조아정치체제로서의 파시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독일파시스트는 세계의 면전에서 도발자, 독재자, 전쟁방화자로 낙인되였다.

독일에서의 파시즘의 강화는 진보적 인류를 각성시켰다.

파시즘의 대두와 새 전쟁 위험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을 막고 통일적인 보조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국제적으로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동방 피압박민족들과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의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처하여 모든 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산당
7차대회 회의장

국제공산당 제7차대회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걸고 각국 공산당들이 모든 반파쑈 역량과 반제역량을 결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증민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강력히 벌일 데 대한 지미트로프를 당대의 거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파시즘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데 대한 그의 호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쏘련 사람들인 지노비예브나 부하린, 마누일스키를 대신하여 불가리아 사람인 지미트로프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국제당의 활동이 독자적인 매개 공산당들의 활동에 입각하여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산 실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국제당 제7차대회가 자기결의에서 매개 당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상당한 정도로 허용하였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회가 조선 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위증민의 귀환보고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위업의 정당성, 우리 노선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 위증민은 ≪만주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양송의 기사가 실린 국제공산당 기관지 ≪공산국제≫와 국제공산당 동양부에

있는 왕명, 강생이 연명한 국제공산당에서 길동지구책임일군에게 보내는 서한을 나에게 주면서 여기에 조선에 대한 국제당 결정의 기본부분이 다 해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양송은 자기의 글에서 좌경기회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반일통일전선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제기하면서 중국공산당은 이제 중, 조, 몽, 만 피압박민족의 통일전선이라는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중조민족은 굳게 연합하여 일본의 괴뢰만주국통치를 전복하고 간도 조선인자치주를 건립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중조반일연합군에 망라되어 활동하면서 조선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었다. 양송이란 내가 1차 북만원정 때 주보중이 산막에서 만나보았던 국제당파견원 오평을 말한다.

국제당에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신적지지, 노선 상의 지지만 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조선혁명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적인 안까지 주어 행동상 지지도 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던 반일유격부대들을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갈라 재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시었다.

이 문제로 말하면 사실상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선혁명의 주체성, 독자성을 견지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당의 지시대로 만주의 모든 유격부대들에서 조선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순수한 조선인 부대를 따로 편성한다면 그 역량만으로도 능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2개 사단 역량과 대적하여 혈투를 벌일 수 있었다. 우리가 일당십의 정신으로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게 되면 조선청년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합세하면 전국은 달라지고 조국광복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한 전호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연합항일을 해온 공산주의자들로서의 형제적 의리, 전우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자기들 쪽에 유리하다고 하여 조선사람들을 다 매오게 된다면 조선족 군사인원이 90%나 되는 제2군같은 것은 허물어지고 말 수 있었다.

2군을 제외한 다른 유격부대들에는 중국인들이 과반수였으나 그 대부분은 반일부대 출신들이였고 공산주의자들은 많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지휘성원들은 어느 부대에서나 다수가 조선사람들이었다. 각 부대의 핵심역량도 역시 조선인대원들이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인들과 중국인민들을 따로 갈라 부대를 꾸리게 되면 당장은 항일연군부대들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중기부터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편성하고 반만항일의 기치밑에 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국경지대에 진출하여 조선혁명에 주력한다고 하여 중국인민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파시스트의 연합된 역량에 맞서 에스파냐와 같은 나라들에서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이 단결하여 싸우고 있는 때에 조중항일무장부대를 조선인부대와 중국인부대로 가른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자 않고 도리에도 어그러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중국땅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편에서 조선 사람들이 따로 갈라져 나와 부대를 조직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와 도움도 종전보다 약화될 수 있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주권이였지 분권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 제한과 구속과 방해를 받지 않고 조선혁명을 해나갈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세력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동지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증민은 자기가 모스크바에 다녀와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분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국제당의 의사대로 부대를 민족별로 가르기 위한 대안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거듭 말하였다.

≪위증민동지, 나는 동지의 심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한곬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혁명의 원칙과 계급적 이익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협애한 민족적 이익만을 추구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의 민족적 이익은 언제나 국제적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민족적 이익과 배치되는 그 어떤 국제적 이익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중항일부대, 그것도 벌써 몇 해째 한 전호속에서 싸우고 있는 통일적인 무장부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혁명에 더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민족별로 가르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나로서는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일무장부대를 민족별로 가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존중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문제를 형식적으로 고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우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는 형식적인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증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게 되면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일연군부대에 조선동지들을 잡아둘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군체계대로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조선국내와 동북의 조선인 부락에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 하고 중국인부락에 가서는 항일연군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군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당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동지가 그처럼 폭넓게 이해해주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아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그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크나큰 지지로 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위증민의 손을 잡았다.

≪로위, 우리가 한두 해 같이 싸웠습니까. 또 앞으로도 한두 해만 같이 싸우다가 헤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의 이웃에 있고 공산주의이념이 승리하는 나라로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우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지, 나는 동지와 같은 조선동지들과 한 대오에서 싸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김일성**사령의 정치위원으로 되려고 합니다. 조선동지들과 더 밀접히 단합해서 조선혁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가슴 후련해지게 웃었다.

사실 나는 남호두에서 위증민을 만난 다음부터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위증민 자신도 지난날의 실책을 놓고 늘 미안한 생각을 가시지 못해하였다. 그는 국제당 제7차대회 이후 만주지방의 당조직체계를 개편한 다음 남만성위서기

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정치위원의 책임적인 직책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간을 중국동무들이 지휘한 부대가 아니라 내가 친솔한 부대와 함께 다녔다. 그 자신이 농담삼아 말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위원이 된 셈이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다. 일제의 관헌자료가 위증민(위민생)을 나의 정치위원이였다고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사실 나와 함께 장백지구에도 오래 나가 있었고 백두산 비밀근거지에도 몇번 다녀갔다.

위증민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이나 제의에 대하여 거의 반대한 일이 없었다.

반≪민생단≫투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중공산주의자들의 동맹은 남호두회의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 후에도 중국공산주의자들, 중국의 반일역량과 공동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0년 가까이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혁명을 적극 도와주었다. 조중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 역사는 이렇게 1930년대초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어느 한 지도자는 조중인민의 이러한 형제적 우의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조선인민의 중국에 대한 지지는 가늘지만 길며 중국인민의 조선에 대한 지지는 굵지만 짧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작은 나라로서 오랜 기간 형제적 중국인민을 도와준 우리 인민의 업적에 대한 충심으로 되는 평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위증민과 상봉은 나의 추억속에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인상깊은 사변들 중의 하나다. 그의 모스크바행이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한데서 큰 몫을 담당했던 것으로 하여 나는 오늘까지도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위증민과의 상봉을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일화가 있다.

우리가 군정간부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참에 전령병이 뛰어와서 큰 범이 우리 망원초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총소리를 내게 승인해 달라고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감시조건이 좋은 벼랑 바위위에 망원초를 정하였는데 그 벼랑밑에 범의 굴이 있고 큰 범이 새끼 두 마리를 거느리고 그 굴에서 산다는 것이였다. 입초성원들이 무섭다고 망원초 위치를 옮기려고 하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는데다가 범도 해치려는 기색이 없어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어제부터 범이 매우 날친다는 것이였다.

나는 범이 갑자기 사납게 날치는데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것만 같아 망원초가 자리잡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았다. 벼랑 바위위에서 내려다보니 굉장히 큰 갈범이 굴앞에 도사리고 있었다. 사연을 알아본 데 의하면 범을 노엽힌 것은 망원초에 나가 있던 우리 대원들이였다. 그들은 굴밖에서 해바라기를 하는 새끼범들을 데리고 놀다가 발톱에 손등을 긁히게 되자 장난삼아 한 대씩 볼통을 때려주었다. 먹이를 구하러 갔던 어미범이 이 광경을 본 다음부터는 망원초를 향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뇌성벽력과 같은 고함을 지르며 높은 벼랑바위의 중턱까지 길길이 뛰어 오른다는 것이였다.

≪너무 걱정할 것은 없소. 범이 저렇게 야료를 부리는 것은 망원초의 동무들이 자기 새끼들을 해칠 것 같아 미리부터 위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소. 저건 두번 다시 새끼들을 학대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종이나 다름없소. 범도 화약을 가진 사람들과 승산없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 안심하는 것이 좋겠소.≫

내가 이런말을 해서야 망원초의 동무들은 범을 잡으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그 무서운 산중의 왕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였다. 첫 조치로 각을 뜬 노루다

리 하나를 벼랑바위 밑으로 내리던졌다. 그 후에도 먹이공급은 며칠동안 계속되였다. 물론 범은 위력시위를 중지하였다. 그 후부터 범은 친선적인 우리의 이웃이 되였다. 우리가 남호두를 떠나 백두산지구로 나간 다음에도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민혁명군 장병들은 그 범과 선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임춘추의 말에 의하면 이 범의 굴을 맨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대자지하골 안에 와 있던 최인준이네 중대라고 하였다. 대자지하골에는 병원도 있고 병기창도 있고 통신처도 있었다. 후방부문 사업을 맡아보는 사람들도 이 골안에 와있었다.

1935년말에 우리의 부름을 받고 왕청에서 남호두쪽으로 원정대를 찾아 들어온 임춘추는 한동안 소구의 빈 탕자막에 병원을 차려 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대자지하의 등판에서 더좋은 밀영지를 발견해내자 그리고 옮겨앉았다. 탕자막이란 산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쳐하는 초막을 말한다. 젊어서 산에 들어와서는 칠팔십이 되도록 한평생 탕자막에서 세상을 등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은 짐승사냥과 약초캐기와 아편재배였다. 탕자막의 주인들은 대개가 장수들이었다. 그러나 장수자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고독한 그 인생이 종말을 고하면 주인 없는 탕자막은 텅 비게 된다.

임춘추네 병원에서는 우리 유격대원들뿐만 아니라 5군의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바로 왕청연대의 참모장이었던 유란한이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였다.

최인준이 지휘하는 왕청 3중대는 그들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중대는 무기와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위만군의 병영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그 전투를 치르고 100여정에 달하는 무기를 노획하였다. 그들은 무기를 보관해 둘만한 처소를 물색하다가 병원과 통신처가 자리잡고 있는 등판아래의 바위벼랑에서 굴을 하나 발견하였다. 최인준은 그 굴속에 10여자루의 보총을 집어넣었다. 돌로 굴입구를 대강 막아놓고 벼랑에서 내려오던 그는 또 하나의 굴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범굴이었다.

나는 남호두회의를 회상할 때마다 위증민을 추억하게 되며 동시에 이 회의과정의 인기있는 화제거리가 되었던 대자지하밀영의 그 호랑이를 되그려보게 된다.

우리는 1936년 2월 하순부터 근 한 일주일 동안 소자지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일명 남호두회의라고도 부른다. 회의에는 위증민을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함께 김산호, 한흥권, 최춘국, 전만송, 최인준, 박태화, 김려중, 임춘추, 전창철 등 군정간부 30, 40명이 참가하였다. 국제당에 갔다가 쏘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윤병도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소자지하에서 여러 달만에 위증민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위증민은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제기하였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와 지시를 전달해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증민이 신병을 무릅쓰고 모스크바에까지 가서 좋은 결론을 받아온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나는 보고에서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에서 우리가 전개해온 군사정치활동 경험을 총화하고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그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다시말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 지구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할 데 대한 방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할 데 대한 방침,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데 대한 방침,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 등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

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방도들을 제기하고 토의에 붙였다.

토론자들은 보고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침들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하나의 방침을 두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입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항일혁명을 시작한 후 수많은 회의들을 집행해 보았지만 나는 노선토의가 그처럼 순조롭게 되고 회의참가자들의 기분상태가 그처럼 앙양된 회의는 처음 보았다. 그것은 실로 웃음으로 시작되었다가 웃음으로 끝난 회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백두산으로 나갈 날, 국내깊이에 진출하여 원쑤들과의 결전을 벌이게 될 날을 눈앞에 그리며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백두산과 국내깊이에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쳐물리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투쟁노선이였다. 백두산으로 나가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먼저 국경지대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투쟁무대를 국내깊이에로 확대할 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받았다.

우리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꾸리고 국경지대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인다면 일제의 야만적인 군사파쑈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줄 수 있고 우리 혁명군을 일일천추로 기다리며 그 모습만이라도 보고싶어하는 2천만의 동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백 마디의 말보다 더 힘있는 시위로 될 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전국적 판도에서 조국광복회를 조직하고 공산당 창건사업을 추진시킬 데 대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방침이 채택되었다.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남호두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남호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가지게 되었다.

남호두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정들은 그 이후 여러 단계의 혁명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나 그것을 민족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남호두회의는 또한 승리자들의 잔치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승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인민과 역사와 시대앞에 아낌없이 바친 무수한 희생과 피와 노고의 대가로써 이루어진 것이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오류로 하여 국제당에서도 경원시되고 형제나라 당들에서도 경원시되고 부분적이기는 하나 우리 인민들에게도 경원시된 조선공산주의운동은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난날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승승장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자지하에서는 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강습이 한 주일가량 계속되고 당창건방침에 한 실현방도를 토의하기 위한 당정치일군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강습과 회의들에서 남호두회의방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회의의 기본정신을 반영한 당면한 구호를 제기하였다. ≪조국에 무보를 뻗치고 군호를 올리자!≫이것은 우리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 것을 바라고 내놓은 우리의 구호였다. 우리는 남호두회의 후에 보무당당히 조국에로 진출의 길에 올랐다.

항일무장투쟁은 자기발전의 새로운 단계에로 바야흐로 들어서고 있었다.

4.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

우리가 남호두회의를 끝내고 백두산 지구로 나가기 위해 소자지하를 떠나던 아침은 바람소리가 유난히도 소연하였다.

신들메를 매고 남행길에 오를 때 내머리에 맨처음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우리 나라 격언이였다. 소자지하의 귀틀집 마당을 떠난 우리는 방금 내린 함박눈우에 행군이 첫 자욱을 찍었다.

일행 중에는 왕덕태, 위증민과 같은 중국인군정간부들도 끼여 있었다.

심장병이 도져서 쏘련병원의 신세까지 지고 돌아온 위증민조차도 그날은 왕덕태와 함께 걸죽한 농질을 해가며 명랑한 기분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차고 사나운 날씨였으나 행군은 시원스럽게 자리가 났다. 그런데 남호두회의의 결정에 따르는 백두산지구진출의 시발점에서 우리는 응당 소자지하로부터 노야령－이청배－명월구－안도를 거쳐 백두산으로 가는 직선행로로 타고 남행길을 걸어야 했으나 소자지하에서 액목현 청구자－관지－안도－무송현을 거쳐 백두산 지구로 들어서는 우회로를 타고 액목방향으로 북상행군을 하고 있었다. 이 우회로는 직선행군로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먼 노정이였다.

우리가 우회로를 타고 북상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은 우리와 함께 2차 북만원정에 참가했던 동무들이 새로 개척한 액목현 청구자밀영에서 남호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동만에서 우리를 찾아온 유격대원들과 노약자, 병상자, 부모잃은 어린이들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생단≫문제와 관련하여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발생되였던 모든 극좌적 망동들에 조종을 울리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만천하에 선포한 남호두회의의 결정은 청구자밀영에서도 격정에 끓는 환호를 불러일으킬 것이였다.

동북만의 광활한 대지에서 여러 해 동안 혈전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오매불망 그려온 것은 조국이였고 조국으로 진군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관지일대와 청구자밀영의 전우들 중 대부분은 우리와 함께 조국진군의 남행길을 걷지 못하고 오히려 북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북만부대동무들과 공동투쟁을 해야 했다.

남호두회의를 결절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전환기가 마련된 그 때부터 백두산을 타고 앉아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일차적 염원으로 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들과의 공동투쟁을 항일혁명의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온 우리로서는 그 공동투쟁

의 경륜을 중도에서 집어던지고 모두 백두산으로만 갈 수는 없었다. 만일 우리가 자기 나라 혁명만을 생각하고 조선인유격대원들을 다 이끌고 백두산으로만 나간다면 동북지방의 유격투쟁은 심각한 난국에 봉착할 수 있었다.

군정간부들과 핵심군인들의 부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던 북만부대들에서는 동만의 부대들에 공동투쟁을 무시로 요구해왔다. 이 요구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이었다. 소자지하에서 남호두회의가 소집되던 그 무렵에도 북만의 각 군들에서는 우리에게 인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남호두회의에서 북만주지방의 항일연군부대들에 대한 전투적 지원문제를 하나의 부수적인 의제로 상정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여 나는 백두산지구진출을 단행하게 된 사변적인 시각에 여러 해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과 헤어질 작정으로 북행길부터 걷게 된 것이다. 백두산 지구진출의 역사적 장거는 우리로 하여금 피치 못하게도 오래동안 심력을 다하여 애지중지 키워온 전우들과의 기약없는 이별의 고통부터 맛보게 하였다.

우리를 따라 백두산 지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북방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나는 소자지하를 떠날 때부터 그 문제로 해서 생각이 번거로왔다.

돌이켜보면 혁명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나는 이와 같은 이별의 고통을 수없이 겪었다. 14살 어린 나이에 만경대 고향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했고 화전에 가서도 ≪ㅌ·ㄷ≫를 내오기 바쁘게 방금 정을 나누기 시작한 동무들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별은 미구에 가슴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포옹과 악수를 동반하는 상봉으로 이어졌다. 화전에서 헤어졌던 ≪ㅌ·ㄷ≫의 첫아들 둘이 길림에서 다시 만나 ≪타도제국주의≫의 깃발밑에 청년학생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했다. 그 깃발 밑으로 모여온 청년들이란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대장부들이었다. 그 하나하나의 동지들은 실로 혈육에도 비길 수 없고 천금에도 대비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 나오자 투쟁무대를 중부만주에서 동부만주에로 옮겨야 했고 따라서 이별이라는 쓴약을 또다시 맛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삼삼오오 패를 지어 밀려다니던 나의 전우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떠메고 중만, 남만, 북만의 망망대해로 뿔뿔이 떠나가 버렸다. 화전에서의 이별과는 달리 그 때의 이별은 어느 때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기약할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하고 뼈아픈 것이었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강병선, 박소심, 최일천, 고재봉, 박일파와의 이별과 마찬가지로 나의 길동무가 되어 하얼빈까지 동행했던 한영애와의 이별도 그런 것이었다.

국제당 연락소와의 접촉을 끝내고 내가 하얼빈에서 떠날 때 한영애는 나를 찾아와 동만으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이왕 혁명을 하는 바에는 길림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한별동무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혁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니 그 소원을 막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다. 그 때의 그는 이미 나에게서 우리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미결로 남겨두고 가는 두 가지의 일거리를 넘겨받은 몸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하얼빈에 그냥 남아서 파괴된 조직선들을 이어달라는 것과 만주성당 순시

원과의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나는 한영애와 함께 동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서도 사업을 위해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속에서 하얼빈을 떠났다. 길동공청책임비서의 사업을 하느라면 적어도 두석달 이내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타산을 하면서 그와 헤어졌다.

내가 한영애의 소망과는 관계없이 그를 하얼빈지구의 특파원으로 떼두고 온 것은 조직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매양 착실하게 수행하곤 하는 그의 높은 책임성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책임성이 하얼빈일대의 혁명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이였다. 이상하게도 나는 이처럼 매번 측근의 전우들을 그들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 떨구어 두거나 먼 곳으로 보내곤 하였다.


한영애

이렇게 되어 나는 남으로 오고 한영애는 북에 남았다. 그 때의 그 이별은 참으로 씁쓸한 것이였다.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지짐마저 매번 절반을 갈라 내앞으로 밀어놓곤 하던 그 성실한 전우를 북만주 한끝에 떼여두고 잘 있으라는 손짓 한번으로 작별을 굼때던 그 때의 내 심정도 결코 평온치는 않았다.

그러고보면 혁명앞에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이별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 셈이였다. 우리가 온갖 공을 다하여 가꾼 혁명조직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고히 해나가자면 어차피 투쟁속에서 길러낸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초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새로운 처녀지들을 연속 개척하는 기경작업을 하였다면 전우들은 우리가 개척한 처녀지들을 기름진 과원과 옥답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요구가 우리들의 이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성실한 동무들이 혁명이 요구하는 이별앞에서는 자주 불복하고 말썽을 부렸다.

내가 동만으로 활동무대를 옮길 때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어린애들처럼 생떼를 쓴 것은 비단 한영애뿐이 아니였다.

하기는 3, 4년간이나 피와 정을 나누어 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사이의 이별이 출장길에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작별처럼 그렇게 범상할 수는 없었다. 알아들을만큼 해설도 하고 꾸짖고 나무람도 해보았으나 막무가내였다.

나를 잘 이해해주어야 할 차광수가 오히려 ≪이렇게 헤어지자고 우리 생사를 같이 해 왔는가? 헤어지지 않고 혁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보자≫고 열을 올리며 20리길까지 나를 따라와서 애를 먹였다. 우리와의 작별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문조양은 여자들처럼 소리를 내오 울었다.

우리는 그 때 혁명이란 이렇게 모진 것인가. 차광수의 말대로 과연 헤어지지 않고 혁명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하고 몇 번이나 자문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동무들에게 우리는 오래지 않아 다시 만나게 된다, 이별이란 일시적인 것이다, 상봉의 그날을 생각하며 이별의 슬픔을 참아내자,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헤어지자고 설복하였다. 이별이 백이라면 상봉이 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나의 예언을 종종 배신하곤 하였으니 그 후 살아서 다시 나를 만난 동무들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그 몇 사람마저 우리의 곁을 떠나 영별의 길로 총총

히 가곤 하였다. 생활이란 이별과 해후의 끊임없는 순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별이 아주 많았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이런 이유로 하여 이별을 고하는 마당에서 은근히 불안을 느끼고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청구자밀영에 가서 수년간이나 동만땅에서 함께 싸워온 전우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해야만 하였으니 그것은 백두산 지구로 나가게 된 우리의 기쁨속에 숨어 있는 슬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두산 지구 진출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나의 표정에서 침울한 기분을 읽게 된 위증민은 무슨 근심이라도 있지 않는가고 물었다.

나는 가슴속에 서려있는 만단사연을 한마디로 논할 수 없었거니와 그런 심정을 남들에게 내비칠 의향도 없어 별다른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참, **김일성**동지 작년에 희생된 철주동생 소식을 근일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지요? 어쩌겠소. 마음을 굳게 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나의 기분이 침울해진 까닭을 위증민은 제나름대로 짐작하고 있었다.

하기는 그 상실의 고통도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때 나는 낯설은 만주땅에 일점혈육으로 남은 어린 영주 동생의 생사안위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슬픔 위에 동지들과의 이별이 겹쳐서 내 얼굴에 더욱 어두운 그늘이 덮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위증민은 나의 기분을 밝게 해주려고 농을 하였다.

≪**김일성**동지, 속이 상할 때 제일 좋은 약으로 되는 것은 해학입니다. **김**동지를 위해서 옛날 우리 부부가 사랑싸움하던 이야기나 해주리다. **김일성**동지도 부부생활의 다반사에 대해서는 참고로 들어두는게 좋습니다. 늘 독신으로만 살 순 없으니까.≫

≪그렇구말구요. 남아 스물다섯이면 때를 놓친 셈이지요. 혹시 알겠소. 지금 **김**사령이 연인과의 이별을 앞두고 상심해 있는지 .≫

왕덕래도 어떻게 하나 나의 기분을 돌려보려고 위증민의 농담에 동을 달았다.

위증민은 성수가 났다. ≪옳소, 그럴수도 있겠소. 이왕 이별이야기가 나온 바에는 부부싸움이야기가 아니라 이별과 더불어 전하여 오는 ≪절류≫라는 우리 나라 고사를 소개해야겠구만.≫

위증민은 ≪절류≫라는 제명으로 전해지는 그 중국고사의 방법대로 하면 행운이 찾아든다고 하였다.

≪절류≫라는 말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는다는 뜻으로서 그 고사는 한나라때부터 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의 도읍이 있던 곳 가까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한나라 사람들은 친우와 이별할 때에는 언제나 그 다리에 나와 앞날의 행운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주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중국에서는 이별마당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었는데 위증민의 고향에서도 그 의식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증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버들가지를 꺾어주면 틀림없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니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그 고사 속의 버들은 아마도 고향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갈라지더라도 푸른 버들가지를 보며 자기를 낳아준 고향과 고향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도 그런 고사가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짐작이 든다.

북만의 강추위가 위세를 휘두르던 그때 이별하는 동지들에게 버들가지를 하나씩 꺾어주자면 한 지게도 넘어야 할텐데 어디서 그 많은 버들가지를 꺾으며 설사 꺾어준들 나의 시름이 가셔질 수가 있겠는가. 그야 어쨌든 나의 무거운 마음을 다소라도 가볍게 해주려고 ≪절류≫를 이야기해 준 위증민의 심정만은 여간 고맙지 않았다.

언제인가 최창걸은 이별을 앞두고 고유수의 버들방천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이 최창걸은 남강과 단재의 이별처럼 격식도 없고 송별연도 없이 소리없이 사라지겠소.≫

최창걸이 말한 남강은 이승훈이며 단재는 신채호이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강 이승훈은 우리 나라 굴지의 자산가로서 일찍부터 애국적인 교육운동과 자선사업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정주의 오산학교가 남강이 세운 학교라는 것은 후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승훈은 거기서 해외로 떠나는 독립지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 단재 신채호와도 깊은 친교를 맺었다.

신채호는 남강의 강권으로 한때 오산학교에서 국사와 서양사를 가르치는 교사로 되었는데 그가 역사강의를 어찌나 잘 하였던지 그 소문이 해외에까지 널리 퍼져서 단재의 존재는 길림바닥에서도 학생들의 열변을 토하는 최상급의 화제거리로 되곤 했었다.

단재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경술년 전야의 겨울을 오산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강에게 말하였다.

≪나는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소.≫

그러자 남강은 저으기 놀라며 만류하였다.

≪아니, 갑작스레 이 추위에 어디로 간다고 그러슈. 떠나도 해토나 되거든 천천히 가시지.≫

≪해토고 뭐고 일본놈 꼴보기 싫어 가야겠소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단재는 이튿날 홀연 정주땅을 떠나 기약도 없이 사라졌다.

그 때 신채호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갔다고 한다.

남강은 단재가 떠나간 것을 못내 서운해하면서 혼자소리로 원망하였다.

≪원 사람두, 노자나 좀 보태가지고 가지않구 간다온다 소리도 없이 ≫

독립운동자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푸짐한 송별연을 차리고 노자를 푼푼히 마련해주던 남강이고 보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헤어진 단재와의 이별이 그에게 있어서 그처럼 아쉽고 섭섭한 이별로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창걸이 유하로 떠나가면서 말한 남강과 단재의 이별이란 이런 것이었다.

김혁은 남강에게 인사 한 마디 없이 떠나간 단재의 처신이 너무 매정하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최창걸은 신채호의 인간됨을 알지 못하거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재야말로 누구보다도 남강을 아낀 뜨거운 인간이었다고 언명하였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신채호가 인사도 없이 정주땅을 총망히 떠난 것은 독립지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고 이별석에서 당하게 될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최창걸의 말이 옳았다. 단재는 불처럼 뜨거운 사람이었고 남강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였다.

단재와 남강의 이별을 본따고저 한 최창걸은 말할 것도 없고 김원우, 계영춘을 비롯한 다른 전우들도 모두 임무를 받고 떠나갈 때면 신채호처럼 내곁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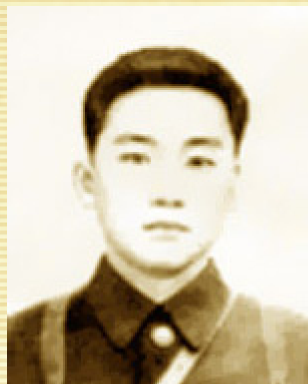
나의 전우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였다.

나는 그 후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키운 유능한 군정간부들과 귀여운 전령병들 그리고 금싸래기같은 대원들을 군사역량이 부족한 남북만의 여러 부대들에 보내주었다. 그 때마다 흘리게 되는 석별의 눈물은 그대로 가슴속에 점점이 멀어져 살을 저며내였다. 더구나 그런 동무들이 아무 때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비보를 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종신상처로 되어버리는 것이였다.

나는 이러한 이별을 통해 혁명동지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였고 혁명가의 일생에서 동지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큰가를 절절히 깨닫게 되였다.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내가 일군들에게 이 세상에는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등 별의별 사랑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혁명동지들간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

진실한 동지적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으며 총탄이 우박치는 전투장에서 생사를 같이 해보지 않고서는 터득할 수 없는 사랑이다.


최금산

지난날 우리 동무들은 며칠씩 맹물로 끼니를 에우며 혈전을 벌이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어쩌다 얼어떨어진 산열매 한 알이라도 눈속에서 얻어내면 그것을 먼저 동지들의 입에 넣어주었다.

견우와 직녀의 슬픈 전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이 지극할수록 이별의 슬픔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혁명동지들간의 이별도 그처럼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별이 아무리 슬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없이는 혁명을 할 수가 없었으니 어찌하겠는가.

이제 영만 내리면 동서남북을 각자 흩어져 가게 될 한사람한사람의 전우들을 놓고 천사만념을 굴려가는 내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활활 재를 날리며 타고 있었다.

어린 전령병들인 오대성과 최금산은 나의 속내도 잘 모르고 조국에 가게 된다고 기뻐하면서 들뜬 기분으로 나를 따라왔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북만부대로 보내야 했다.

우리가 먼 행군 끝에 청구자밀영에 도착한 것은 한낮이 기울어진 때였다.

밀림 속 귀틀집에서 숱한 사람들이 밀려나와 우리를 에워싸고 반가와하며 법석 떠들었다. 그들이 북만에 떨어져야 할 왕청과 훈춘에서 온 동무들이였고 그밖에 쏘련으로 보내게 될 병상자들과 노약자들이였다.

나어린 소녀 하나가 나를 부르며 총알같이 달려와서 팔에 매달렸다.

≪이게 누구냐? 너도 여기 와 있었구나.:≫

나는 소녀를 품에 안아올린 다음 그 애의 조그마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왕청유격근거지에서 양친을 다 잃고 할머니까지 여윈 양성룡의 딸 양귀동녀였다.

≪장군님께서 여기루 오신다구해서 왔어요. 장군님, 이제 백두산으로 가신다지요?≫

≪아니 네가 어떻게 벌써 그걸 아느냐?≫

≪저 이응만 아저씨가 그랬어요. 우리 다같이 장군님을 따라 조선으로 꼭 나가게 된다구 했어요.≫

소녀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니 이응만이 쌍지팽이를 짚고 대원들속에서 서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왕청유격대중대장이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소개하였다. 자진이나 능력으로 보면 대대나 연대도 이끌 수 있는 큼직한 지휘관이였는데 그만 한쪽다리를 자르는 바람에 군직을 내놓고 2선에 물러섰다.

그는 채 아물지도 않은 다리를 가지고 병기창에서 무기를 수리하면서 낙천적으로 살았다.

≪장군님, 제 말이 틀림없습지요? 전 여기 앉아서두 그 쪽에서 하는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응만은 한참 너스레를 떨고 나서 남호두회의 소식을 알려 달라고 성급하게 졸라댔다.

나는 여장을 풀어놓은 다음 밀영안의 모든 군민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남호두회의 결정을 전달하였다.

귀틀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불렀다. 국제당이 지난날 간도에서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이였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 것이 그 누구도 훼방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포하였다는 말까지 듣고는 이제야 내 나라, 내 고향을 밟게 되고 태를 묻은 조국땅에서 일제와의 결전을 하게 되었다고 다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국태생들도 한시바삐 조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누구인가는 만장판에서 백두산에 대한 자랑을 터놓았다.

자기가 북만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감격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로서는 점점 더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렇지만 나는 가슴아픈대로 이별에 대해서 실토해야 하였다.

≪동무들, 돌이켜보라!

무장투쟁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이별이 찾아왔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의 전환기가 마련된 오늘에 와서도 이것은 예외로 될 수 없으니 모두가 그러한 이별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의 군부파쑈집단은 ≪2.26사건≫을 도발한 후 북방침략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일제가 치치할과 북부중국을 장악하고 쏘련침공의 구실을 찾기 위해 쏘만국경에서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만의 유격부대들은 이에 대처하여 항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핵심의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을 요구하였다.

동무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모두 백두산쪽으로만 나가게 되면 어떤 후과가 빚어지겠는가.≫

나는 청중이 내 말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느라고 잠깐동안 장내를 돌아보았다. 군중들속에서는 불안스러운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한쪽구석에서만 조용조용 울리던 그 속삭임 소리는 한사람한사람의 청중을 파도처럼 휩쓸며 사정없이 번져

가다가 마침내 온 장내를 벌둥지처럼 소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예상했던 바 그대로의 격렬한 반사작용이였지만 나는 그런 반응앞에서 얼마간 당황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우들과의 이별이 엄혹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예감 때문에 나는 다음 말을 가볍게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군중은 어느새 사담을 그치고 나를 주시하였다.

이별을 선포할 순간이 되었다고 판단한 나는 남호두를 떠난 순간부터 머리 속에서 수십번도 더 굴리고 굴린 인사변동계획을 거침없이 발표하였다.

≪이제부터 왕청연대는 최용건동무가 활동하는 구역으로 가야 하며 훈춘연대는 3군의 활동지역으로 가야한다. 그 3군에 바로 김책동무가 있다. 왕청연대와 훈춘연대에서 일부 역량은 주보중휘하의 5군과 함께 명안, 목릉, 위하 일대에서 공동작전을 하게 된다. 부상자들과 노약자들은 쏘련에 가서 치료를 받고 빨리 몸을 추세워야 한다.

동무들, 용서하라, 보는바와 같이 나는 동무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최춘국

사람들은 정적속에서 몇 초동안 나를 뚫어지게 주시하였다. 불복의 뜻을 담은 목소리들로 혼잡을 이루리라고 예측했던 장내에 믿기 어려운 정적이 찾아들고 그 숨막힐듯한 무언속에서 사람들이 침착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은 자못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수천수만 마디의 항변을 대신하고 있는 그 무언이 더 두려웠다.

그렇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이상스러운 정적을 대신하여 흐느낌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별선언으로 하여 기가 죽은 대원들앞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래도 내 수하에서 정치일군을 몇 해 동안 일해온 최춘국이 도량은 있었다. 그는 ≪장군님, 우리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말구 들어가서 노독이나 좀 푸십시오.≫하고 나를 위로하였다. 사실은 그도 우리와 헤어져 독립여단을 꾸려가지고 활동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북만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과의 사업을 최춘국에게 맡긴 나는 쏘련으로 들어갈 부상자들과 노약자들을 따로 만나보았다. 수년간의 유격투쟁과정에 우리의 대오에서는 많은 부상병들과 허약자들이 생겨났다. 유격구가 존재할 때에는 근거지병원에서 전적으로 그들의 치료를 감당해 왔지만 유격구가 해산된 다음부터는 부상자처리가 커다란 난문제로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상병들과 노약자들은 사하장과 경박호 부근으로 보내여 임시치료를 받게 하다가 후에 청구자밀영을 꾸려놓고 거기에 그들을 모두 집결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안전책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위증민이 국제당 해당 조직과의 교섭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큰 골치거리로 여기고 있던 부상자와 허약자의 치료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그 교섭에 의하여 인민혁명군 부상병들과 허약자들은 당분간 쏘련 영내에 들어가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증민은 국제당과의 협의하에 쏘련영내에 들어가는 부상병들의 인계인수와 관련되 실무적 절차까지 약속해놓고 돌아왔다. 위증민의 노력에 의하여 국제당산하 학교들에 유학생들을 보내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제 왕청연대와 훈춘연대 동무들이 북만부대로 떠날 때에는 유학생들의 그룹도 부상자집단과 함께 쏘련으로 갈 것이었다.

먼저 우리 부대의 부상병, 로약자, 무의무탁 어린이들로 두 개조의 대열을 편성하고 한 개 조씩 두차례에 걸쳐 쏘련에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국경까지의 부상자호위는 왕윤성이 일부대원들을 데리고 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도 남호두에서 이미 내정을 짓고 왔으므로 청구자에 있는 부상병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부상병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을 때 어느새 이응만이 쌍지팽이를 짚고 나타나서 내앞을 막아나섰다.

≪장군님,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이응만이도 쏘련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첫마디부터 소리가 높았고 과도한 흥분으로 볼편까지 실룩거렸다.

≪응만동무,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소.≫

나는 수림속에 누워 있는 진대나무에 그를 부축하여 앉혔다.

이응만은 나의 팔을 붙들고 애원하였다.

≪장군님, 제발 저를 장군님 곁에서 혁명을 하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제 비록 외다리이지만 총을 쏠 수 있고 무기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 혁명을 선동하는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이응만이가 동지들이 피를 흘리며 악전고투할 때 쏘련에 가서 호강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성미가 불같은 왕년의 유격중대장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다 짐작하고 있었다. 사실 이응만은 혁명을 하기 위해 다리를 자른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응만의 손을 잡고 사정하였다.

동무가 이러면 다른 부상병들도 더 떼를 쓰게 된다. 나도 항일무장투쟁대오에서 떨어지게 되는 동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동무들은 육체적 조건 때문에 늘 생활에서 구속을 받아 오던 사람들이 아닌가. 유격구가 있을 때는 불편한대로 그럭저럭 견뎌낼 수 있었지만 울타리를 터치고 홍길동이처럼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해야 하는 새로운 투쟁 환경에서 그 몸으로 어떻게 부대를 따라다니겠는가.

나는 한 시간나마 그를 설복하였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장군님, 저는 혁명이 승리한 나라에 가서 남들의 빵이나 축내며 편안하게 지낼 생각이 없습니다. 혁명도 하지 않고 호강을 할 것 같으면 제 무엇 때문에 집재산을 다 털어서 부로닝 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유격대에 들어왔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저를 장군님곁에 남게 해주십시오. 저는 낙오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응만을 혁명대열에서의 낙오 그 자체를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 진짜배기 공산주의자였다.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너무도 극단적인 데가 있었다. 쏘련에 들어간다고 하여 혁명을 포기하거나 호강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응만이 안전한 곳에서 여유있게 치료를 받고 의족이라도 하고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나는 이응만의 호소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유격구를 지키던 왕청시절을 감개무량하게 돌이켜보며 묵묵히 밀영의 눈무지 위를 거닐었다. 그런데 고통속에서 무겁게 흘러가는 끝없는 그 침묵이 오히려 이응만의 마음을 움직여놓았다

그는 내 표정을 한참 살펴보더니 별안간 나의 어깨에 얼굴을 틀어박고 ≪저 때문에 장군님께서 속을 썩이시누만요. 제 그럼 쏘련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백두산쪽을 향해 장군님의 승전을 매일 빌겠습니다.≫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이응만과의 작별에 못지않게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양귀동녀와의 이별이

었다. 그 어린 것도 쏘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줄곧 울었다.

그래서 나는 청구자밀영을 떠나기 전날 밤에는 어린것이 모포밑에서 자지 않고 계속 조잘거렸다.

≪장군님, 쏘련은 여기보다두 더 춥다지요?≫

그 애는 아마도 어른들에게서 쏘련이란 나라에 무시무시하게 추운 동토대가 있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일없다. 네가 가는 곳은 그저 여기만큼 춥다.≫

귀틀집 밖에서 설레이는 북만의 스산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그런 대답을 하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듯했다. 부모도 없는 그 어린것을 타향에서 또 다른 타향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애의 인식속에 눈보라와 찬바람이라는 두 가지의 표상만으로 새겨진 그 풍토사나운 땅은 왜놈들도 없고 착취도 없고 압제의 채찍도 없는 사회주의 나라였다.

이제 그 애는 거기에 가서 착한 사람들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저주스러운 세상과 결별하고 종달새처럼 낭랑하게, 수리개처럼 자유롭게, 비둘기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우리 대오에 돌아와 혁명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양귀동녀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을 쏘련으로 보내게 된 데는 이런 위안과 희망이 있었다.

≪응만아저씨가 그러는데 장군님을 백두산에서 싸우면서도 한달에 한번씩은 꼭꼭 나를 찾아오신댔어요. 정말인가요?≫

그 애가 쏘련으로 안가겠다고 하도 조르니 이응만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애의 티없이 맑은 눈동자만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질문앞에서 내가 이처럼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어린것이 스스로 나를 구원해주었다.

≪장군님이 백두산을 비우구 우리한테 오시면 그새 왜놈들이 또 조선사람을 죽이겠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장군님, 나한테 오시지 말구 내내 백두산에 계시라요.≫

나는 부지중 그 애를 그러안았다.

양귀동녀는 어린 새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며 이상하게 몸을 떨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참혹한 죽음을 수없이 목격해온 소녀의 눈앞에 치떨리는 과거의 영상들이 한꺼번에 비껴와서 그처럼 몸을 떠는지도 몰랐다.

백두산을 비우지 말라는 어린이의 그 말속에 온 조선사람들의 염원과 부탁이 담겨져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한참만에 양귀동녀는 다시 나를 불렀다.

≪장군님! 백두산은 너무 높아서 나같은 애들은 올라가지 못한다지요? 그래서 나는 백두산으로 못가구 응만아저씨를 따라 쏘련으로 간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어린애의 머리를 자꾸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었다. ≪귀동녀야, 이제 때가 되면 너도 백두산으로 찾아오거라. 그 때면 우리 조선도 쏘련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될 게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날이 새면 벌어지게 될 눈물겨운 석별의 광경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혔다. 어떻게 그들과 헤어질 것인가? 정말 ≪절류≫식으로 여기에 있는 나무가지들을 하나씩 꺾어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단재처럼 슬그머니 사라질 것인가.

날이 밝아올 무렵에 최춘국이 나를 찾아왔다.

≪장군님,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일찌감치 조반이나 먹고 떠나야지, 관지에 있는 중대동무들이 나를 눈이 까매서 기다릴거요. 그래 어떻소? 여기 동무들이 마음을 좀 안착했는지… 동무들도 곧 북상행군을 해야겠는데.≫

온밤 내 곁에서 자지 않고 조잘거리던 양귀동녀는 이별의 날이 밝아온 줄도 모르고 쌔근쌔근 단잠을 자고 있었다.


오진우

≪장군님, 우리 동무들에 대해선 염려마십시오. 북만에서 잘 싸울테니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좋은 동무들이지, 그래서 나도 헤어지기가 괴롭소. 그러니 이젠 춘국이와도…≫

나는 말끝을 채 마무리지 못하고 최춘국을 바라보았다. 한참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꽉 거머쥐였다.

≪춘국동무와는 이렇게 서로 말이라도 해보고 헤어지니 괜찮소. 한흥권동무하군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게 됐으니 더욱 속이 좋지 않소. 후에 북만부대에 가서 만나거든 보지 못하고 가는 내 심정을 전해주오.≫

우리는 그날 간소한 아침식사로 이별연을 대신하고 헤어졌다.

최춘국의 말대로 청구자동무들은 관지 쪽으로 떠나는 나를 웃음으로 바래주었다.

다만 양귀동녀가 서럽게 울었을 뿐이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9살 소년의 손목을 이응만에게 넘겨주고 천근같은 발걸음으로 청구자밀영을 떠나가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가슴이 아파난다.

이응만이와 양귀동녀는 그 후 1차인가 2차 대열에 포함되어 쏘련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후 오래동안 우리는 그들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우리에게 그들의 안부를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은 청구자밀영에서 부대와 헤어져 쏘련으로 들어갔다가 해방 후에야 귀국한 지난날의 빨치산 재봉대원 전문진이였다.

늦게나마 그들이 살아서 건재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양귀동녀의 지금 나이가 아마 70살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그 나이면 인생으로서는 석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민생단≫모자를 쓰고 마음고생으로 시들어가던 옛 대대장의 딸 양귀동녀를 이따금씩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그러나 내 눈앞에 매번 떠오르는 것은 진갑을 앞둔 할머니가 아니라 9살내기 꽃망울 소녀의 모습뿐이다. 나는 할머니가 된 그를 상상할 수가 없다. 나의 추억속에는 언제나 나를 따라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참새처럼 재잘거리던 소녀의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다.

청구자에서는 최춘국이 북으로 들어갈 자기네 대원들을 잘 설복한 덕에 별로 어렵지 않게 헤어졌으나 관지에 있는 김려중네 중대와 오진우가 속한 중대를 북만부대에 파견하는 일은 여간 힘들게 되지 않았다. 오진우가 속한 중대는 기어이 우리를 따라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떼를 썼다.

우리가 거듭 설복하자 그들은 북만부대로 가기는 하겠는데 안도계선까지만이라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훈춘청년의용군의 1개소대 동무들도 덩달아서 안도행을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 소대안에 한때 우리의 지시를 받고 훈춘에서 위만군

반변공작을 했던 황정해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주동이 되어 나의 승낙을 받아내려고 달라붙었다.

나는 북만지구의 실태를 이야기해주면서 여러 시간 그들을 설복하였다.

위증민이 황정해가 속한 훈춘청년의용군 소대를 몹시 탐냈기 때문에 그 1개 소대만은 그에게 떼주기로 하였다. 오진우가 속한 중대동무들은 풀이 죽어서 미혼진을 떠났다.

위증민과 함께 바람소리 처량한 미혼진의 언덕에서 눈물을 머금고 떠나가는 오진우가 속한 중대동무들을 바래줄 때 내 마음도 이별의 정을 뜨겁게 젖어들었다


김여중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에 개별적으로 파견되어 가는 동무들과의 이별은 그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드는 괴로움속에 진행되었다. 참군의 걸음마를 뗀지 얼마 되지 않는 북만의 항일연군부대들에서는 군정간부의 부족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한흥권, 전창철, 박길송, 박락권, 김태준을 비롯한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어는 나의 전령병이었던 오대성이마저 북만에 파견하였다. 간도에서 애지중지 키운 간부들은 그 때 송두리채 넘겨준 셈이었다.

오대성은 오중흡의 손아래 동생이었다. 십리평에서 소년선봉대활동을 하던 그는 형들이 연줄연줄 유격대에 입대하는 것을 보고 감질이 나서 시샘을 하던 끝에 자청하여 우리의 전령병으로 되었다.

내가 북만부대에 가라고 말하자 오대성은 처음에 히죽히죽 웃기만 하였다. 아마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울상이 되어 나한테 대들었다.

≪장군님, 왜 절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전 못가겠습니다. 나같은 게 북만부대에 안간다구 혁명이 망가지겠습니까. 장군님 곁에 그냥 있게 해주십시오.≫

지시만 내리면 그저 곰살궂게 ≪알았습니다≫하는 한 마디의 대답으로 나를 흐뭇하게 해주던 전령병이 그 마당에서 하는 처신은 실로 거칠었다.

나는 수십번의 설복을 거듭해서야 오대성을 머나먼 북만부대로 떠나 보낼 수 있었다.

안가겠다고 떼를 쓰던 오대성이도 역시 작별을 앞둔 마당에서는 어른스럽게 나를 위로하였다. 내 눈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장군님, 내가 가면 저 금산이가 나처럼 장군님을 모실까요?≫하고 희떠운 농담까지 하였다.

이별 전날 밤 오대성은 온밤 나의 다른 전령병 최금산과 함께 소곤소곤 작별담을 나누었다.

나는 원래 자정이 지나야 자리에 들고 새벽 서너시면 일어나는 것이 예사였지만 그날밤만은 먼길을 떠날 전령병을 생각해서 일찍 등불을 끄고 누웠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소곤거리던 두 전령병은 새벽녘에 밖으로 나갔다.

나는 저 친구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려고 저럴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도사리었다.

≪금산아, 내가 간 다음 너 장군님을 더 잘 모셔야 해.≫

오대성이 소근거리는 소리었다. 금산이쪽에선 그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백두산쪽에 가면 고추장을 꼭 구해서 끼마다 장군님께 올려라.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노력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거야. 너 장군님께서 고추장을 얼

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지? 그런데 우린 아직 한번도 그런 음식을 대접 못했거든. 우린 사람 전령병 자격이 없지뭐. 정작 장군님곁을 떠나자니 그런 일들이 마음에 걸리누나,≫

≪네 부탁대로 할테니 마음놓구 가.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만날 수 있을가?≫

최금산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글쎄 언제나 만나겠는지… 참 금산이 거기 가면 먼저 평안도사람의 집에 꼭 들려봐라. 평안도 집엔 젓갈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장군님께서 젓갈을 아주 좋아하신데. 야 백두산에 가면 그런 걸 다 구해서 장군님께 실컷 대접해드리자구 했댔는데…≫ 날이 밝아 오대성을 보낸 다음 나는 책갈피에서 그의 글쪽지를 보게 되었다.

≪장군님!

나라를 찾고저 일년삼백예순 다섯날 어느 하루도 발편잠 못주무시는 장군님께 속만 태워드리다 떠나는 전령병의 마음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잘 싸울테니 근심일랑 하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면 ≪나라를 찾기 위해 이 고생을 참자.≫고 늘 하시던 장군님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사랑속에서 키운 애국절개 더럽힘없이 한목숨 짚오래기처럼 던져 광복성업에 조금이나마 보태겠사오니 장군님, 걱정마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어린 전령병의 글치고는 너무도 웅심깊은 것이였다.

나의 전우들은 모두가 이렇게 의리가 깊고 인정이 두터운 동무들이였다.

이날 위증민은 남호두에서 청구자, 관지를 거쳐 그곳까지 오는 동안 조선동지들 사이에 오가는 정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절감했노라면서 눈굽을 적시었다.

≪강장에게는 약병이 없다더니 **김일성**동지의 3대원들은 하나같이 용감하고 인정이 또한 각별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 황정해만 보아도 얼마나 탐나는 청년입니까.≫

나는 훈춘의 청년의용군소대와 함께 작식대원으로 임은하도 위증민에게 넘겨주었다.

황정해도 위증민을 따라갈 때에는 오대성이처럼 우리와의 이별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황정해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장군님 부탁대로 위증민동지를 잘 돌봐드리겠으니 걱정말라고 우리를 안심시켰고 그 시각에 다진 맹세대로 최후의 순간까지 위증민을 잘 호위해 주었다.

위증민의 병이 위독해질 무렵에는 황정해가 그를 노상 업고 다니었고 적의 ≪토벌≫을 당할 때마다 필사적인 혈전을 벌려 그를 구원해주었다.

하기에 위증민은 임종의 시각에 황정해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내 저 세상에 가서도 정해를 잊지 않고 조선동무들의 지성을 잊지않겠소. 부디 잘 싸우다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국으로 개선해 주오.≫하고 뜨겁게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증민이 그렇게 고마와하고 잊지 못해 하던 황정해도 끝내 내곁으로 오지 못하고 만주대지에서 황야의 고혼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황정해를 생각할 때면 먼저 남호두에서부터 백두산에 이르는 수천리의 우회로—남하행군길이 떠오른다.

청구자밀영에서 나를 따라가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던 황정해, 그는 거기서부터 미혼지까지 왔다가 위증민을 따라 갔었다. 청구자밀영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오는 그 머나먼 남행길로 이동하는 과정에 황정해에 대한 나의 정은 더 깊어진 것 같다

남호두에서부터 백두산으로 오는 수천리 남행길에서 북으로 떠나보낸 나의 전우

들은 과연 얼마나 많았던가

박길송, 한흥권, 장룡산, 전만송, 박태화, 최인준, 오대성, 오세영, 김태준 등 수없이 손을 곱아도 다 셀 수 없는 그 많은 전우들이 남북만산야에 젊은 피를 뿌리고 숨졌다.

총 잘 쏘고 인정이 많던 장룡산의 희생도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나의 시중을 들어주느라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오대성이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오중흡이 무척 사랑하던 동생이였다.

우리가 오대성과 헤어질 때 1사 2연대에 속하여 교하원정에 참가했던 오중흡은 자기 동생이 먼 북만땅으로 떠나는 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백두산지구에 와서 금산의 덕으로 풋강냉이에 건뎅이젓을 받쳐서 달게 먹은 적이 있다. 풋강냉이에 건뎅이젓을 받치는 것이 구색이 맞는 음식으로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속에 오대성이의 소원과 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내 식량에 겹도록 많이 먹었다.

형은 남에서, 동생은 북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싸웠지만 조국광복의 그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무공을 자랑하며 한 자리에 모이게 되리라고 나는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두 형제가 다 이국의 거친 땅에서 목숨을 잃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황정해

희생된 우리 동무들은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것만큼 남북만 각지에 가서 조선혁명가의 기개를 잃지 않고 잘 싸웠다.

청구자밀영에서 전우들과 눈물겨운 이별을 한때로부터 최춘국이와는 1년반만에 다시 만났고 어떤 동무들과는 5년, 6년 후에 또 어떤 동무들과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희생된 전우들을 숙연하게 추억하였다.

살아남은 동무들도 역시 가지가지 훌륭한 무훈담들을 안고 우리곁으로 돌아왔다.

어떤 동무들은 백전불패하는 영웅지대장이 되어 이름을 떨치였고 어떤 동무들은 중대장, 여단장, 사단정치위원 등의 쟁쟁한 군정간부가 되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그러나 옛시절의 응석기만은 그냥 남아 있어서 ≪장군님의 곁을 떠나니 부모의 슬하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보고싶어 내내 울었습니다.≫하고 눈물을 닦는 것이였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두고 잊지 못해하자 그들은 항일의 그날처럼 변함없이 나를 따뜻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찾는 길에 어찌 희생이 없겠습니까. 그 동무들과는 그날의 이별이 영이별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조국을 찾았으니 그들도 자기들의 희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전우들의 사랑속에서 80평생을 살아왔다.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이별을 한 그들은 나의 한 생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우리의 항일혁명사와 조국의 역사를 별처럼 빛내여주었다.

그러므로 나 역시 항일의 그날에 북으로, 남으로 전우들을 떠나보냈던 그 슬픈 이별을 후회하지 않는다.

5. 백전노장 최현


최현

남호두를 떠나 백두산으로 나올 때 우리가 선택했던 노정 가운데서 중요한 행선지의 하나는 돈화-안도현경의 목단령산줄기에 있는 인민혁명군이 독립1사 후방밀영기지 미혼진이였다. 크고 작은 밀영들이 천리수해속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 종심깊은 대밀영지구에서 우리는 왕덕태, 위증민을 비롯한 2군의 주요지휘관들과 함께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려고 계획하였다.

한두 번 다녀간 사람도 향방을 잡지 못해 쩔쩔 맨다는 심심산골 미혼진, 산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의 모양새가 하도 엇비슷하여 초행자들은 누구나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미의 세계에 빠져든다고 해서 이 천고의 수림지대를 미혼진이라고 명명한 옛사람들의 통찰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도 처음에는 밀영을 제때에 찾아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다행히도 우심정자라는 곳에서 박성철이 소속되어 있던 독립1사 1연대 1중대동무들을 만나 그들에게 미혼진까지의 길안내를 부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미혼진 골안이 온통 장티프스오염구역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청탁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 골안에 열병환자들이 수십 명이나 모여서 앓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간부들을 모시게 되면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그 환자들 가운데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힌 사람들만 해도 몇 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장군님을 모시다니요. 우린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길안내를 해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였다. 그 당시 인민혁명군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유격구가 존재할 때부터 발생했던 발진티프스와 장티프스가 유격구를 해산한 다음에도 계속 그림자처럼 우리의 대오를 따라다니며 천금보다 귀중한 생명들을 사정없이 앗아갔다. 이것은 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근원으로 되었다.

≪장티프스도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것이니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거요. 아무렴 사람이 전염병을 이기겠지 전염병이 사람을 이기겠소. 그러니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소. 동무들은 지금 그 장티프스라는 병을 신비화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이런 말로 전염병공포증을 비난하였으나 그들은 그냥 장티프스의 위험성을 역설하며 미혼진으로 가지 못한다고 고집하였다.

≪사람이 전염병을 이긴다는 게 다 뭡니까. 그 병앞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고양이 앞의 쥐이지요. 최현중대장동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도 장티브스 때문에 몇 주일째 미혼진에 누워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 강쇠같은 싸움군도 전염병에 걸렸단 말이요? 그가 장티프스때문에 고생한다면 내 더더구나 미혼진에 가야겠소. 내가 우심정자에까지 왔다가 전염병이 무서워서 미혼진에 들리지 않고 그냥 백두산으로 나간다면 후날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동무들이 내 신변을 걱정하는데 나는 이미 왕청에서 열병을 앓고 난 사람이요. 면역이 생겼으니 전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오.≫

1중대의 지휘관들은 그제서야 길안내 겸 호위로 우리에게 1개 소대가량의 대원들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미혼진에 가더라도 열병환자들의 병실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나는 그때 최현이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실망하였다. 내가 비록 입으로는 장티프스를 사람이 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였으나 실상 그것은 전율할만한 무서운 질병이었다. 그 저주로운 질병이 혁명군의 지휘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에누리를 할리는 만무한 것이였다. 최현과 같이 성급한 사나이들의 육체에서는 오히려 만병이 더 사납게 요동을 치고 기광을 부리는 법이다. 병은 만사람을 꼭같이 건드리면서도 성급하거나 인내력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언제나 더 많은 불행을 가져다주곤 하였다. 나는 귀중한 전우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김**사령,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합니까? 혹시 최현동무에 대한 걱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내가 아무말없이 침울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자 왕덕태가 넌지시 물었다. 사교성이 부족하고 말수더구가 적은 무뚝뚝한 군사지휘관이였지만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투시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맞혔습니까?≫

나는 그가 정적을 깨뜨려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에는 오만가지 잡념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 말이다

≪그걸 왜 알아맞히지 못하겠습니까. **김**사령이 이 왕덕태와 같은 벗을 옆에 두고도 말을 걸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두고 심사숙고한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정확합니다. 나는 아까부터 줄곧 최현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최현은 병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최현부대

≪그럴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최현이란 사람이 참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의 꿈속에 내가 나타난다는 것, 남의 기억속에 내가 있다는 것, 남의 관심속에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왕덕태의 그 소박하면서도 심오한 지론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왕군장의 견해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것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간도의 독립군

≪아마 최현도 이 순간에 **김**사령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김**사령을 사모하는지 나는 시샘이 날 정도였습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김**사령과 최현 사이는 단 한번의 접촉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당신들은 그토록 열렬한 우정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그건 나자신도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틀밤을 함께 자고 나니 십년지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는 그 사람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짝사랑에 빠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하, 짝사랑이 다 뭡니까. 최현이란 사람도 마촌바람을 한번 쏘이고 나서는 내내 **김**사령에 대한 말만 하였습니다.≫

최현이 마촌바람을 쏘이였다는 말은 그가 소왕청 마촌에 와서 나를 만나보고 돌아갔다는 소리이다. 나와 최현과의 첫상봉에 대한 이야기는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해서도 이미 소개되었고 이 회고록의 3권을 통해서도 짤막하게 스치고 지나간 바가 있다.

그 상봉을 마련해 준 계기가 동녕현성전투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다. 통신원의 불찰로 참전명령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행차 뒤 나발격으로 때늦게 마촌에 도착한 최현은 그때 동녕현성전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해하였다. 그는 통신원을 두고 오만가지 쌍욕질을 다하고 나서 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 나에게 물었다.

≪왕청도 참가하고 훈춘도 참가하고 구국군패들까지 다 참전했는데 유독 연길의 시라소니들만은 동녕현성대문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엉덩방아만 찧고 있었으니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견디겠습니까. **김일성**대장님, 또 다른 곳을 칠 계획은 없습니까?≫

≪젊은 사람을 보고 ≪님≫이라니요. 그저 **김일성**이라고만 불러주시오.≫

내가 이런말로 겸양의 뜻을 표시하자 온몸에서 화약내가 물씬물씬 풍기는 이 병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었다.

≪여기에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김**대장을 조선군대의 상좌에 모신지 오랩니다. 그러니 함자를 높여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춰주면 인차 교만해지고 현훈증에 걸립니다. 동무가 계속 그런식으로 나를 춰올린다면 나는 다시 동무를 상대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 참, 나도 배짱이 센 사람인데 **김**대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김**대장 소원대로 이제는 말을 낮추겠습니다.≫

그때부터 최현은 말투를 고쳤다. 그는 한다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는 전형적인 무관기질의 사나이었다. 그가 나에 대해 경어를 사용한 것은 다만 공식석상에서 뿐이

었다. 이것은 우리의 우정에서 거치장스러운 예의와 격식을 제껴놓고 오히려 그 우정에 진실성과 참신성을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다물속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한 명한 명 힘들게 채취해내는 동지가 우리 혁명의 황금으로 되고 혁명을 확대하고 상승시키는 필수불가결의 추진력으로 되고 있던 그 시절에 최현과 같은 장부를 동행자로 얻게 된 것은 분명 나의 생애에 특기할만한 사변이요, 행운이였다.

마촌에서의 상봉은 처음부터 나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다.

첫상봉치고는 그 상봉이 일으킨 충격과 심도가 너무나도 깊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면손님인 최현이 자꾸만 구면인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였다. 음성도 귀에 익었고 생김새나 몸가짐도 몹시 눈에 익어보였다. 지어는 언제인가 이 늠름한 대장부와 함께 항일을 논하고 구국을 운운한 일이 있었던 것같은 생각조차 들었다.

최현이 나에게 구면인물처럼 느껴지게 된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그때까지 머리속에서 줄곧 그려보고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시킨 전형적인 무관의 모델에 가까왔을 뿐 아니라 많이 들어온데서 생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현은 망국의 비운이 절정에 치달아오르고 있던 1907년 이국땅 간도의 황토대지우에서 인생의 노를 받아안았다.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 치욕의 기록을 무수히 남긴 비통하고 다사다난한 해였다. 이준이 헤이그에서 할복자결한 것도 이 해이고 고종의 퇴위와 조선군대의 해산이 선포된 것도 이 해이며 ≪정미7조약≫의 체결과 ≪차관정치≫의 강행으로 우리 나라 내정권이 모두 일제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도 이 해였다.

미증유의 파괴력을 가진 경제공황의 파도가 사납게 밀려드는 땅에서 최현을 낳은 부모들은 새생명의 장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다. 한일합병과 3.1인민봉기, 경신년의 간도대토벌은 어린 최현의 피를 끓게 한 극적인 사변들이었다.

그 절망적인 암흑의 시대에 한가닥의 희망으로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간도일각에서 무력항쟁에 고심하고 있던 독립군의 존재였다. 홍범도와 임병국은 그의 선배였고 스승이었다. 최현의 어린시절은 용감하고 굴할줄 모르는 이 노장들의 활동과 뗄래야 뗄 수 없게 튼튼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 노장들에게서 사격법도 배우고 용마법도 배웠다. 홍범도의 수하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아버지 최화심은 최현이 11살 잡히던 해부터 어린 아들에게 통신연락을 시켰다. 최현은 그 해에 아버지한테서 한 자루의 권총을 선물로 받아안았다.

경신년대학살은 조선의 교포들이 할거하고 있던 간도의 방방곡곡에 피비린내나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최현도 그 토벌에서 어머니를 잃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임병국의 부대를 따라 연해주로 넘어갔다. 산천도 설고 사람도 설고 말도 설었으나 한생을 일제와의 싸움에 바치려는 최현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임병국대장은 그를 연락병으로 임명하여 수하의 한지대에 파견하였다. 용마술이 남달리 뛰어난 최현은 말을 타고 지대와 본부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연락병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당년 13살에 불과한 이 앳되고 체소한 소년이 말을 타고 광야로 쏜살같이 달려갈 때면 러시아 사람들도 경탄과 선망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군 하였다.



처형되는 간도의 조선인

한번은 그가 통신연락임무를 받고 말을 탄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비발치는 탄막을 헤치

며 최전선으로 돌진한 적이 있다. 일행 중 3명은 적탄에 희생되고 최현은 팔에 부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상자리를 돌볼 사이도 없이 탄우속을 뚫고 과감하게 앞으로 달려 본부에 책임적으로 통신을 전달하였다. 임병국은 최현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독립군의 장군감이라고 그를 치하해 주었다.

그 독립군부대가 패전한 후 간도로 돌아온 최현은 훗날의 독립연대연대장인 윤창범의 안내를 받아 동만청총에 가입하였다. 동만청총시절은 최현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방향전환 과정은 그가 연길감옥에서 7여년의 옥중생활을 하던 시절에 촉진되었다.


윤창범

반동군벌당국은 1925년에 갑자기 그를 체포하고 경제모연사건의 혐의로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언도하였다.

5.30폭동과 추수, 춘황투쟁의 파도가 지나간 뒤 연길감옥은 이 투쟁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던 간도혁명의 선각자들과 애국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자유를 구속당하였으나 그 구속속에서도 머리를 쳐들고 도고하게 살아가는 생기발랄한 이 낭만가들의 소사회는 최현의 성장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학교였고 용광로였다. 최현은 이 감옥에서 옥내지하조직인 반제동맹에도 가입하고 적위대에도 입대하였다. 옥중고초는 마침내 독립군시절의 옛 연락병을 민족주의자로부터 공산주의자로 완전히 개조시킨 것이다.

군벌당국이 길림 제4감옥이라고 부르던 연길감옥에서 최현에 의해 빚어졌고 그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옥중일화들과 아슬아슬한 모험담들은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 널리 알려졌다.

최현의 옥중생활은 먼저 감방의 ≪제왕≫인 ≪깡틀≫과의 대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들어간 감방의 ≪깡틀≫은 죄수들을 학대하는데 이골이 난 살인강도범이였다. 새 죄수들이 감방에 나타날 때마다 그자는 그들의 물건을 있는대로 강탈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곤 하였다. 음식이 들어오면 남들의 몫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

≪깡틀≫에게 버릇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한 최현은 어느 날 ≪칼≫표 고급담배를 한대 물고 감방안의 다른 죄수들에게도 한대씩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깡틀≫에게만은 일부러 권하지 않았다. 이것은 ≪깡틀≫의 약을 올려주기 위한 무언의 도전이였다.

심사가 꼬인 ≪깡틀≫은 최현이더러 가지고 들어온 물건을 자기한테 모조리 바치라고 을러메였다. 최현이 대답대신 한입 가득 물고 있던 담배연기를 구름처럼 내뿜자 참을성을 잃어버린 ≪깡틀≫은 손찌검을 하려고 덤벼들었다. 최현은 몇 사람의 머리위를 날아 넘어 수갑을 찬 두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답새긴 다음 이렇게 호통쳤다.

≪네 이놈, 내가 누구라고 감히 허튼수작질을 하는 거냐? 네놈이 밖에서 살인을 치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불쌍한 형제들을 못살게 구니 너처럼 포악하고 죄많은 놈이 어디 있겠느냐, 너도 우리들과 다름없는 평민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냐? 이번만은 관대히 용서하니 앞으로는 처신을 잘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저 아래목 변기통옆으로 내려가라. 이 웃자리는 내 자리다.≫

최현을 당해낼 수 없다고 자인한 ≪깡틀≫은 그가 시키는 대로 변기통 옆에 가서 무릎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깡틀≫의 억압에서 해방된 죄수들은 그 후부터 모두 최현을 은인으로 섬기고 따르기 시작했다.

최현이 무기징역언도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군벌당국은 대성중하고, 동흥중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학교,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용정시내의 여러 학교 학

생들로 감방견학을 자주 조직하였다. 적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사상단체와 반일반군벌다체들이 속출되어 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 일대 청소년학생들의 혁명의식을 거세하고 투쟁기세를 압살하려고 꾀하였다.

최현은 각 감방들에 연락을 하여 미리 물총을 만들게 한 다음 때를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감옥에 와서 감옥을 돌아볼 때 대열을 인솔하는 반동교원들과 간수들에게 변기통의 구린내나는 물을 쏘면서 욕설을 퍼붓게 하였다.

≪이놈들아, 무엇을 보여주자고 학생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불의의 봉변을 당한 반동교원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감옥에서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감옥측은 주모자를 색출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모든 죄수들이 저마다 자기가 책임자라고 주장해 나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최현은 연길감옥에 있을 때 옥내의 제화공장에서 제화공으로 일하고 석판인쇄공장에서 식자공으로도 일하였으며 피복공장에서 고급양복으로 짓는 재봉사로도 일하였다. 나중에는 목공장의 목수노릇도 하고 죄수들의 머리는 물론, 간수들과 간수장, 감옥장의 머리까지 깎는 이발사노릇도 하였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까닭없이 학대하고 구박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맵짠 징벌을 가하곤 하였다. 어느 날 최현은 책걸상제작에 쓰는 갈매나무로 장기쪽을 만들려다가 옥내공장감독에게 들켜 줄매를 맞은 일이 있다. 그 감독은 죄수들에게 매를 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분격한 최현은 조립중에 있던 의자다리로 그를 호되게 답새겼다. 감옥당국은 그에게 한주일동안의 영창처벌을 주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감독은 죄수들에게 더는 폭행을 가하지 못하였다.

최현의 옥내투쟁가운데서 가장 이채를 띤 것은 탈옥투쟁이었다. 그는 윤창범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군시절의 옛상관인 임병국을 비롯하여 그밖의 여러 혁명가들을 감옥밖으로 빼돌리는데 성공하였다.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해서라면 분신도 할 수 있고 천길 낭떠러지에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최현의 타고난 배짱이며 풍랑속에서 길들여진 그의 성격이었다.

출옥 후 최현은 태양모적위대에 입대하였으며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공산당에도 입당하고 인민혁명군연길유격대중대정치지도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일이 이왕 이렇게 된 발에는 왕청에 이틀쯤 남아서 **김**대장의 이야기나 듣다가 가겠소. 방해가 되지 않겠지요!≫

첫상봉의 인사 치레가 끝난후 최현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그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우리는 긴긴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온밤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보초대에서는 적들이 유격구로 쳐들어온다는 신호를 지휘부에 보내왔다. 나는 부대를 고지에 배치하고 산으로 오르면서 최현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싸움을 좀 하고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숙소에서 좀 기다려주시오.≫

최현은 그말을 듣자 자리에서 고무공처럼 튕겨 일어났다.

≪좋은 마수거리가 생겼는데 숙소에서 기다리다니, 최현이 **김**대장을 따라가지 않고 숙소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다면 최현이 아니지요. 하늘도 오늘은 이 최현이를 알아줍니다. **김**대장 수하에서 한 번만이라도 싸움을 해보고 싶으니 나도 고지로 데리구 가주시우다.≫

≪소원이 정 그렇다면 같이 싸워봅시다.≫

최현은 벙글벙글 웃으면서 나를 따라 고지에 오르기 시작했다.

적들은 유격대가 매복하고 있는 계선으로 돌격해 오지 않고 멀리서 눈먼 총질만 하다가 유격구인민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곡식낟가리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유격대원들에게 원거리저격전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라고 명령한 다음 최현을 향해 ≪참, 최현동무가 사격명수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번 솜씨를 좀 구경해봅시다.≫라고 말했다.

최현은 마레샹보총으로 불뭉치를 들고 곡식낟가리에 달려드는 적병 한 놈을 단방에 쏘아눕혔다. 적과의 거리가 약 500미터나 되었으나 그는 매번 단발명중으로 적들을 쓸어눕히곤 하였다. 그의 사격솜씨는 실로 만사람을 감탄시킬만한 것이였다.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한이 이제는 좀 풀렸습니까?≫


호박물주리

전투가 끝난 다음 최현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는 입을 다시며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다.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은 냠냠하우다.≫

우리는 그날밤에도 잠을 뒤로 미루고 담화를 하였다. 화제의 중심을 이룬 것은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한 문제였다. 나는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에 관한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 새 형의 주체적인 당창건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의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설정하고 그와 함께 실천적인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담화의 결과를 두고 최현은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이제는 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분이 좀 가라앉을사합니다. 동녕현에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마촌에 와서 그 봉창을 단단히 하고 돌아갑니다.≫

나는 최현을 바래줄 때 첫 상봉기념으로 그에게 동녕현성전투에서 노획해온 다태갈 4정과 호박물주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때부터 그 물주리는 그가 가장 애용하는 소지품으로 되었다.

전투와 전역의 국면을 좌우하는 긴장된 사색이 진행될 때마다 그의 호박물주리에서는 독한 담배연기가 구름처럼 피여오르곤 하였다. 최현의 주변에는 그 물주리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 애연가들이 적지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완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언이설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그보다 더 욕심사나운 사람들은 최현이 취중에 있을 때 주머니에서 슬쩍 꺼내는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갔다.

해방 후 당과 정부의 요직에서 일하고 있던 일부 애연가들 중에는 ≪최현동무, 그 물주리만 주면 담배맛이 꿀맛이라는데 우리도 한모금 빨아봅시다. ≪세금≫은 후히 지불하겠소.≫하는 따위의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벽창호같은 최현에게는 그런 흥정조차 통하지 않았다. 최현이 나진에서 휴양을 할 때 동기생으로 그와 친숙해진 김익선만이 그에게서 하루동안의 기한부로 호박물주리를 빌려내는데 성공하였을 뿐이다

지금 그 호박물주리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진품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사적일군들은 처음에 최현에게서 한두 마디의 설복으로 그 물주리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최현은 그 일군들이 노리는 것이 자기가 수십 년동안 진주보석이나 금덩어리보다도 더 끔찍하게 보존해 온 물주리라는 것을 알게되자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뭐, 어쩌고 어째? 최현이 가지고 있는 호박물주리를 박물관에 전시하려 한다구? 이 물주린 전인민적 소유가 아니구 내 개인소유야. 우리 장군님께서 최현이더러 쓰라구 주신게지 누구나 보고 만질 수 있는 공동소유는 아니란 말이야. 정 가지

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내 수염이나 뽑아가라구.≫

사적 일군들은 최현의 호통과 삿대질에 얼이 빠질 지경이였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다녔다. 그들은 다섯 번째 만에야 이 고집불통의 노장을 설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며칠전만 해도 범처럼 으르렁거리던 노장군이 그날은 딴 사람처럼 돌변하여 살갑게 손님들을 대해주었다.

≪오늘부터 이 물주리는 최현의 소유가 아니라 전인민적 소유야. 내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최현은 물주리끝에 가치담배를 꽂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다음 한모금한모금씩 연기를 탐스럽게 빨아서는 허공중에 천천히 날려보내곤 하였다. 노장군의 가느스름한 눈을 먼 북방의 하늘을 하염없이 더듬고 있었다, 그 하늘밑에는 우리의 첫상봉의 역사가 새겨진 마촌도 있었고 그가 40이 다될 때까지 사창을 차고 발목이 시게 걸어다닌 빨치산 시절의 초연에 절은 전장들도 있었다.

나와 최현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주고 영원한 동행자로 되게 한 그 운명적인 2박 3일은 문자그대로 우리의 우정사에 그 어떤 힘이나 수단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철벽의 만리성을 쌓아놓았다.

최현이 첫상봉을 통하여 나에게 남기고 간 인상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그가 매우 솔직하고 소탈한 사람이라는 것이였다. 그는 보는대로 말하고 생각나는대로 표현하는 사나이였다. 그의 사상과 감정은 순간순간마다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곤 하였다. 이런 사람들앞에서는 기만도 조작도 외교도 다 통하지 않는 법이다. 최현의 어린애와 같은 단순성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매력에 끌린 나머지 나는 자기의 속마음을 최현에게 송두리채 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미혼진밀영에 도착하자마자 50여명의 일반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반토굴식병실부터 찾아갔다. 바로 그 50여명속에 내가 그처럼 만나보고 싶어하는 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밀영을 지키고 있던 후방일군들이 병실문을 열어제끼고 **김**사령이 온다고 선통하자 최현은 누웠던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출입문쪽으로 벌렁벌렁 기여나왔다

내가 첫눈에 마촌에서 새겨두었던 옛모습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얼굴은 참혹하게 변모되어 있었다.

≪**김**대장, 부탁입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면 안됩니다!≫

최현이 두팔을 내저으며 불이 황황 이는 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바람에 나는 한동안 출입문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미혼진 인심이 너무 야박한 것 같다. 최현을 보고싶어 왔는데 문전축객을 하다니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소.≫

내가 이런 농을 하였으나 최현은 막무가내였다.

≪야박하다는 말을 들어두 할 수 없수다. 그래 **김**사령도 여기가 염라국문앞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하하, 총알을 100가마니쯤 쏴봤다는 최현이 이런 엄살쟁이인줄은 정말 몰랐구만.≫

최현은 자기의 말이 이가 들지 않는 것을 보자 나를 병실까지 안내해온 후방일군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이 시라소니 같은 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구 **김**사령을 함부로 데리구 와? **김**사령을 그렇게 모시면 안 돼!≫

후방일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문앞에서 모두 꽁무니를 뺐다.

최현이 욕을 퍼붓는 사이에 나는 병실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달방치 같이 단단하던 최현이가 장티프스라니 웬일이요?≫

내가 머리맡에 다가앉으면서 악수를 청하자 최현은 모포밑으로 황황히 손을 움츠러뜨렸다.

≪**김**사령, 내 몸엔 장티프스벌레가 씨글씨글하오. 제발 내살에 손을 대지 마시오. 전염병창고 같은 이 잘난 미혼진에는 어쩌자구 오셨소?≫

≪어쩌자구 왔겠소. 최현일 보고싶어서 왔지.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만. 최현이 전염병에 다 걸리다니.≫

나는 모포밑으로 손을 밀어넣어 화독처럼 달아오른 최현의 손을 덥석 잡아쥐고 오래동안 놓지 않았다.

최현의 눈에는 금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김**사령, 반갑소. 이 잘난 최현이가 뭐게…. 난 **김**사령을 못보고 저승에 가는가했소.≫

방금전까지 곁에 오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가 인제는 내 손을 집게처럼 꽉 잡아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의 최현은 영낙없는 어린애였다.

그는 2차 북만원정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나서 장티프스로 인한 피해상황을 한참동안 설명하였다.

나는 최현의 운명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로 화제를 돌렸다.

≪그 동안 ≪민생단≫감투를 쓰고 마음고생을 퍼그나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지요.≫

최현은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기의 머리에 ≪민생단≫감투가 떨어진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대기 시작했다.

≪**김**대장이 마촌에서 통일전선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소. 그래 난 그 노선을 천하에 둘도 없는 명노선이라구 생각했댔지요. 연길에 돌아간 다음 우리 부대 동무들에게도 선전을 좀 했더니 왕덕태군장까지도 통일전선을 안하면 못산다지 않겠소. 그런데 난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민생단≫감투를 쓰지 않았겠소.≫

우리가 1차 북만원정을 떠나간 다음 최현은 중대를 데리고 돈화현과 화전현 접경지대에 진출하여 유격활동구역을 넓히기 위한 맹렬한 정치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일대에서 유격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황구막바지에 진을 치고 있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자라는 것이였다.

그 당시 대황구골안에는 80명, 100명 정도의 전투인원을 가진 2개의 산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80명짜리 산림부대는 경향이 매우 좋았다. 빨치산공작원들이 이 부대에 침투하여 반일선전공작을 많이 한 덕이였다. 이 산림부대는 근처의 자위단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친일로부터 반일로 돛을 바꾼 이 고장 자위단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 산림부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러나 100명짜리 산림부대는 인민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수촌의 적군경들과 은밀히 내통하면서 집단적인 귀순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항일과 투항변절을 지향하는 서로 다른 두 산림부대사이의 대립을 유혈적인 무장충돌로 번져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협을 배태하고 있었다. 투항을 시도하는 산림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산림부대들을 항일의 길로 선도할 수 없었고 그들과의 반일공동전선도 성사시킬 수 없었다.

최현은 두 산림부대사이에 화해를 시킨다고 하면서 연회를 차렸다. 투항을 시도하던 100명짜리 산림부대의 지휘관들도 연회에 초대되었다. 그 지휘관들이 연회장에 나타나자 최현중대는 그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켰다. 그러면서도 80명짜리 산림부대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부대와 우호관계에 놓여 있던 자위단에 대해서도

물론 실력행사는 하지 않았다.

최현이 그 자위단을 치지 않은 것은 통일전선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명정대한 처사였다. 그러나 군부 정치주임을 비롯한 상급의 좌경분자들은 ≪적을 치지 않았으니 적에게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최현의 정당한 처사를 범죄시하면서 그를 정치지도원자리에서 철직시키고 그가 애용하던 모젤권총까지 회수하였다. 그 처분이 얼마나 부당했으면 왕덕태까지도 ≪최현동무가 ≪민생단≫이라면 우리 2군에 비≪민생단≫은 도대체 누구인가?≫고 절규하였겠는가. 최현은 철직책벌을 받은 후 전사로 강직되었다가 왕덕태군장수하에서 1년동안 군부 군수처장으로 활동하였다. 1935년말에야 그는 중대장으로 되었다.

≪이 최현이는 **김**사령덕으로 살아난 셈이웨다. 다홍왜에서 **김**사령이 한목숨을 내대고 우리를 옹호해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영 ≪민생단≫대접을 받으면서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요. **김**사령이 말씀해보시오. 그래 그 자위단을 치지 않은 게 과연 투항이란 말이요?≫

최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정면으로 주시하였다. 그의 근엄한 얼굴은 주홍빛으로 급작스레 달아올랐다.

나는 최현의 손을 두 손으로 정답게 포개여잡고 머리를 저어보였다.

≪그게 왜 투항이겠소. 반일전선을 위한 옳은 처사인데…. 최현동무를 ≪민생단≫으로 몰아서 강직시킨건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허무맹랑한 짓이었소.≫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이 최현이가 할 짓이 없어 ≪민생단≫을 한단 말이우? 쌍간나새끼 같은 것들, 분통이 치밀어 못견디겠거든.≫

≪최현동무처럼 ≪민생단≫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거나 애매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요.≫

≪다 쌔노란 개수작이지. 그래 윤창범이나 박동근 같은 혁명가들이 어떻게 ≪민생단≫일 수 있단 말이요. 그 자식들은 일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골라가며 처형해놓고는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우쭐렁거리며 돌아다니더구만. 이런게 공산주의라면 애당초 연해주에 갔다가 간도땅에 오지도 않았겠소.≫

≪반≪민생단≫투쟁은 우리의 항일투쟁사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참혹한 수난이었소. 얼마나 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소. 다행히도 국제당에서는 우리가 다홍왜회의에서 표명한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동만당이 지도해온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이였다는 것을 정식으로 지적하고 그 수습책을 조속히 강구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소.≫

최현은 이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난 이 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부르고 싶소. **김**사령, 고맙소.≫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전우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고 우리 혁명이 당한 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봉창하겠는가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소?≫

≪옳습니다. **김**사령, 우리가 노력해서 그 누명을 메꿔야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말입니다.≫

나는 최현의 대답을 듣고 만족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군사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역시 밝은 지휘관이었다. 그 후 수십 년간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나는 그가 군사작전의 능수일 뿐 아니라 자기식의 일가견을 가진 무게있는 정치활동가라는 것을 확고히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유능한 군사작전가인 동시에 노숙한 정치일군이자 세련된 선동가이기도 하였다. 최현은 군사외교에도 능숙하였고 적군와해공작도 잘하였다. 그가 장악한 만주국의 군경들은 인민혁명군부대에 계통적으로 탄약과 무기를 공급해주고 적정도 수시로 통보해주었다.

최현을 싸움꾼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언

젠가 항일전쟁시기의 노병들이 ≪챠파예프≫란 쏘련영화를 보고 이런 소감을 나눈 적이 있다.

≪저 챠파예프란 사람은 신통히도 우리 최현대장 같구만. 최현대장이 챠파예프를 먹고 게운 것 같애. 말투도 그렇고 거동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싸움하는 본때도 그렇고….≫

최현은 노기등등해서 그 말을 반박하였다.

≪챠파예프는 무슨 챠파예프, 최현이면 최현이지!≫

이 대답은 자기를 주먹구구식 군사지휘관으로만 보는데 습관된 동료들의 견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였다. 최현과 챠파예프를 동류항으로 놓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최현을 평가할 때는 항상 그가 무관이기 전에 유격대 정치지도원경력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경력을 가진 유능한 정치일군의 한 사람이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정열과 신심에 끓는 최현의 눈동자를 미덥게 바라보며 그의 손등에 손을 얹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 씨앗이 열, 백, 천 사람을 얻고 천 사람이 만 사람을 얻는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사람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업이요. 이 대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호두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조국과의 접경지대인 장백지구, 백두산지구에 진출해서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건설해야 하오.≫

최현은 새로운 형태의 그거지라는 말에 상체를 성급하게 일으켜 세우고 눈썹을 여러 번 씰룩거렸다.

≪아니, 유격구를 방금 해산했는데 새 유격구를 또 건설한단 말입니까?≫

나는 최현에게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건설할 필요가 어디에 있고 그 근거지가 종전의 근거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었다. 만사를 즉석에서 이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최현의 정치적 감수성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였다. 최현은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강력한 지레대로 되게 될 남호두회의의 방침들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은 최현을 비롯한 미혼진밀영의 모든 열병환자들을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주었다.

≪열병을 앓는 동안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소. 병이 심할 때문 죽고싶은 생각도 났소. 죽으면 만사가 끝장이고 이런 고통도 더는 겪지 않을텐데 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잠길때도 없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 **김**사령을 만나는 바람에 그런 잡념이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소. **김**사령얼굴을 보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살아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배심이 생기오.≫

최현이 나에게 한 말이였다.

그가 나와의 상봉에 요란한 주석을 가한 것처럼 나도 그와의 상봉에 의미심장한 뜻을 부여하였다.

≪동무는 내 얼굴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난 오히려 동무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었소. ≪민생단≫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최현이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지금의 정세에서는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로로 되고 있소.≫

그날 나는 이동백과 함께 밀영을 낱낱이 돌아보았다.

밀영의 의료조건과 식량형편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미혼진 가까이에 있는 1사 7중대 동무들이 가끔 식량을 공작해서 가져다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끼니를 이어대기가 무척 힘들었다. 낟알이 떨어지면 죽도 없어 썩은 옥수수겨를 비벼서 끓는 물에 타먹곤 하였는데 그 거치른 음식마저도 노상 차례지는 것은 아니였다.

밀영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하였지만 그 김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 한 몸의 안전밖에 돌볼줄 모르는 겁쟁이였다. 최현은 병원에 호송되어오자 그더러 밀영의 관리를 책임진 사무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김가는 어구실저구실 붙여가면서 태공을 하였다. 밀영주변에는 1935년 가을 최현이 돈화지방에서 지주를 치고 노획해온 많은 식량과 부식물의 예비가 파묻혀 있었지만 그는 쌀이 없다고 우는소리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하루 한두끼의 콩죽마저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으며 몇 명 안되는 재봉대의 대원들에게 환자관리를 맡겨버리고는 병에 전염될가봐 10여리나 떨어진 다른 밀영에 가서 흰쌀밥에 고기반찬을 먹으며 호강을 하였다.

김가는 보초근무도 여대원들에게만 맡겨두었다.

김철호, 허성숙, 최순산을 비롯한 미혼진의 여대원들이 그때 환자들의 시중을 해주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였다. 밀영에 무슨 김부관이요, 곽부관이요, 유부관이요 하는 후방일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외부공작을 하느라고 환자들의 뒤치닥거리를 할 겨를이 없었다. 여대원들은 순번을 짜가지고 재봉일도 하고 보초근무도 서고 환자간호도 하였다.


허성숙

주야로 고통에 시달리는 장티프스환자들은 신경을 칼날처럼 곤두세우고 시중군들을 들볶았다. 그들은 냉수를 마음대로 먹지 못해 모두 미칠 지경이었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 당시 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는 장티프스환자들이 냉수를 마시는 것을 독약을 삼키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라는 여론이 떠돌아 치료에까지 적용되었다. 최현이 밀영병원에 냉수금지령을 내리고 그 금지령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여론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하지만 갈증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열병환자들은 막무가내로 냉수를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간호병들의 눈을 피해가며 처마끝에 달린 고드름을 따먹었다. 빨치산의 규율앞에서 그처럼 공손하고 충실하던 사람들이 갈증앞에서는 참을성을 잃고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행동하였다. 여대원들이 냉수대신 죽사발을 주면 내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질을 하였다. 그래도 여대원들은 열병환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일축해버리곤 하였다. 환자들이 물독의 물을 마음대로 퍼마시지 못하게 두눈을 부릅뜨고 교대로 보초도 서고 이모저모로 감시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맹손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통신원이 갈증을 참다못해 물독을 향해 네발걸음 정신없이 기어갔다. 그날밤의 당번보초는 여대원 허성숙이였다. 허성숙은 맹손을 보자마자 허둥지둥 물독앞으로 뛰어가 그의 손에서 바가지를 나꿔챘다. 그리고는 온 병실이 떠나가게 큰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맹손동무, 벌써 명령을 잊었나요? 왜 죽고싶어서 그래요?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세요.≫

극한 점에 이른 맹손은 부뚜막앞에 놓여있던 장작개비로 허성숙의 종아리를 호되게 답새겨준 다음 물독의 물을 게걸스럽게 퍼마셨다. 그리고 나서는 온밤 모포를 뒤집어쓰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허성숙은 맹손이가 죽는 것 같아서 보초교대를 한 다음에도 잠을 못이루고 그의 곁에 앉아 밤샘을 하였다. 다른 환자들도 그가 졸경을 치를 것 같아 걱정하였다. 그러나 첫새벽이 되자 저승에 갈줄로 알았던 맹손이는 모포를 밀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성숙을 덥석 그러안았다.

≪성숙동무 고맙소. 나는 살아났소. 내가 물을 먹을 때 동무가 눈을 감아준 덕으로 열이 다 내렸단 말이요 그 많던 열이 다 어디로 갔을까?≫

≪땅구멍으로 새버렸지 어디로 갔겠나요. 이것 보세요. 모포에서 김이 풀풀 나지 않나.≫

허성숙은 땀에 푹 절은 맹손의 모포를 높이 쳐들고 병실을 둘러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모두 그 모포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냉수금지령은 취소되고 사람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미혼진의 수많은 열병환자들은 사경에서 벗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난 장티프스환자들은 여대원들과 함께 명절이라도 맞듯 음식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밀영주변에서 유부관과 함께 최현이 돈화에서 노획해왔다는 다량의 쌀과 육류를 찾아냈다. 그때부터 밀영사람들의 식탁에는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원정과 전투에서 단련된 전우들은 장기간의 원정에서 겹쌓인 노독을 풀 사이도 없이 미혼진의 여대원들을 대신하여 날마다 보초를 서주었다.

사람마다 병마에서 구원된 기쁨을 안고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미혼진에서 왕덕태, 위증민과 함께 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를 열고 남호두회의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웠다. 이 회의에는 김산호, 박영순, 김명팔을 비롯하여 인민혁명군의 중대정치지도원급이상 간부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남호두회의결정은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활동무대를 만주일대와 조선반도 전역에 확대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들이었다. 이 과업들을 해결하자면 일련의 전술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장차 백두산지구를 조선혁명의 중심적인 책원지로 삼고 남북만주와 국내 깊이에까지 자유자재로 유동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적극적인 군사공세와 정치활동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한 계단 더높이 승화시키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판을 크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 고리에서 사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당역량, 군사역량, 전민족적인 범위에서의 통일전선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혁명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미혼진회의에서 인민혁명군부대들의 개편문제를 토의하고 새로 조직되는 사람들과 여단의 활동지대를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1개 사단, 1개 독립여단을 새로 편성하여 인민혁명군의 전투역량을 종전의 2개 사단으로부터 3개 사단, 1개 독립여단으로 대폭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기초하여 부대별 활동구역을 분담하였



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최현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는데 새로 조직될 3사(후에 6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국경연안 일대에서, 1사는 무송, 안도, 임강 일대에서, 2사는 간도와 북만일대에서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새로 편성되는 독립여단은 북만주대방에서 유동작전을 하다가 점차 압록강연안에 진출하여 국경일대에서 출몰하는 적들을 제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실로 짧은 시일안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2배정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전투적인 결정이였다.

회의에 참가한 군정간부들은 인민혁명군의 개편사업을 항일무장투쟁전반을 위한 진일보로 보고 이 조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아니였다. 집행대책을 토의하는 마당에서는 회의진행에 제동을 거는 잡음도 울렸다. 그 잡음의 기본주체는 간부부족에 대한 걱정이였다.

우리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의 개편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간부부족대문에 그 개편사업의 전도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생각이였다.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인민혁명군대오에서는 수많은 군정간부들이 제거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후과도 간부부족을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적지 않은 현직간부들에게는 그때까지도 ≪민생단≫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인민혁명군의 여러 부대들에서는 지휘관을 보내달라는 목소리가 무시로 울렸다.

우리는 대담하게 믿고 대담하게 등용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 편성되는 부대들에 보낼 간부배치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에 따라 3사는 우리의 직속부대로 되었다. 안봉학은 1사 사장으로 유임되고 최현은 중대장으로부터 1사 1연대장으로 등용되었다.

우리는 미혼진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조직문제도 논의하였다.

남호두회의를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획짓는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하면 미혼진회의는 동강회의, 서강회의, 남패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을 1940년대의 대사변으로 유도해 간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남호두를 떠난 급행렬차는 미혼진, 서강, 남패자를 거쳐 소할바령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였다. 미혼진, 서강, 남패자는 남호두로부터 소할바령으로 통하는 역사적인 노정에서 우리의 우정과 심혼이 아낌없이 뿌려진 잊을 수 없는 중간정류소들이다.

나는 연대장으로 승진된 최현을 축하해주고 그에게 작별인사를 남겼다.

≪다음 번에는 백두산지구에서 만납시다. 건투를 바라오!≫

최현은 내 팔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강떼를 썼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팔을 놓아주지 않겠소. 나도 백두산쪽에 나가 **김**사령수하에서 싸우고 싶단 말이오.≫

≪최현동무, 낸들 왜 당신과 헤어지고 싶겠소.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다들 내 옆에만 오면 다른 부대는 어떻게 하겠소. 최현이나 최용건, 이학만, 한흥권과 같은 지휘관들이 큼직큼직한 전선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투쟁을 해야 우리 혁명이 넓은 판도에서 날개를 펴고 빠른 속도로 날아갈 게 아니겠소. 나는 소꼬리가 된 최현이보다 범이 된 최현이를 보고싶단 말이요.≫

≪나 같은게 어떻게 범이 되겠소. 헛참!≫

최현은 ≪헛참!≫소리를 연발하고 나서 눈을 가늘에 뜨고 어딘가 먼곳을 응시하였다.

≪그럼 오늘은 내 더 떼를 쓰지 않겠소.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어림도 없소. 꿈속에서라도 이 최현이를 잊지 마시오. 나도 꿈을 꾸면 **김일성**사령관 곁에 있는 꿈을 꾸겠소.≫

나와 최현과의 세 번째 상봉은 무송현 서강 양목정자밀영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최현은 미혼진에서 매듭짓지 못한 흥정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소원을 성취할 수 없었다. 나를 만나기 바쁘게 주력부대에 넘겨 달라고 뻘질을 하였지만 구경은 나를 설복시키지 못하였다.

최현은 일생동안 내곁에 있고 싶어하였으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의 그런 시도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다른 유혹에 매번 자리를 내주곤 하였다. 그 유혹이란 바로 내가 걱정하고 관심하는 가장 준엄한 최전선에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수정처럼 깨끗한 양심의 충동이였으며 헌신적인 복무정신이였다.

우리를 측근에서 받들어주고 싶어하면서도 우리가 부르는 가장 어려운 초소에 자기가 선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다른 일욕심, 여기에 바로 최현의 충신다운 면모가 있었고 그의 인간미를 장식하는 특출한 매력이 있었다. 그 두 가지 욕망은 한평생 그의 마음속에 쌍둥이처럼 동거하면서 끝없는 힘내기를 해왔다. 최현은 두 욕망을 다같이 지지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매번 내곁을 떠나 내가 중시하는 초소로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가곤 하였다.

이것은 분명 최현의 일생을 관통해온 유쾌한 모순이였다.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의 부장직에서 나의 사업을 보좌한 말년을 제외한다면 그의 온 생애는 초연이 자욱한 최전방에서 흘러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에만 하여도 수백번의 전투를 하였다. 삼도구전투, 5도구전투, 소탕하전투, 황구영전투, 금창전투, 붉은바위전투, 곰의자리전투, 간삼봉전투, 나루훈전투 노금창전투, 무치허전투, 프르허전투, 위탕거우전투, 천보산전투, 대사하, 대장강전투, 요차전투, 한총구전투 등 수백회의 대소전투들은 모두 최현의 이름과 연결되여 있으며 탁월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재능과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긴 비밀자료들 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감때 사나운 사나이≫란 바로 그들자신이 최현에게 붙인 말이다. 일본군경들은 ≪사이껜부대≫가 왔다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사이껜≫이란 말은 적들을 공포에 몰아 넣는 무적장군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건국의 그날에도 최현은 38도선 패말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최전연에서 무력으로 새 조국 건설을 보위하였다. 미제를 격멸하는 전화의 나날에는 전선동부에서 군단을 이끌었다. 조국이 지켜보고 인민이 지켜보는 격전장에서는 언제나 전사들을 돌격에로 부르는 최현의 자신만만한 구령소리가 울렸다.

최현이 멀리에 있을 수록 그는 나의 마음속에서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였다. 천리비린이라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격언이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서는 시공간의 크기가 문제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최현은 남보다 특별히 먼곳에 있으면서 나를 가장 가깝게 받들어온 충신이였다.

그는 벌써 건국운동을 할 때부터 수첩속에 내 사진을 끼워가지고 다녔다. 크기로 보면 보통성냥갑만치나 된다고 할가. 우스운 것은 사진임자인 나자신도 그 사진의 출처를 잘 모르고 있은 것이다. 아마 그가 여단장이 되어 38연선으로 떠날 때 정숙이를 구슬려서 얻어낸 것 같은데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현은 적구에서 2전선을 만들어 놓고 빨치산식으로 활동할 때에도 내가 그리워지면 그 사진을 꺼내보군 하였다.

한번은 최현이 적구활동에서 큰공을 세운 분대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는 표창을 주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그 분대장의 이름은 김만성이였다. 김만성분대는 적후활동기간 22대의 스리쿼타와 28대의 포차를 포함하여 도합 50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노획하고 150여명의 적을 살상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전과를 보면 가장

높은 급의 훈장도 받을 수 있는 군공이였다.

그런데 최고사령부와의 연계가 단절된 군단지휘부에는 훈장도 없었고 표창장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결심만 하면 잠시도 우물쭈물할 줄 모르는 최현은 김만성을 호출하여 그에게 해방 직후부터 가지고 다니던 나의 초상사진을 수여해 주었다.

≪이건 훈장보다 더 쎈 표창이야, 너 알겠지? **김일성**장군님이 우리 나라 책임자라는 걸. 간도에서 빨치산투쟁을 할 때에도 장군님은 우리의 수령이였어. 그때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이 사진을 간수하고 다니면 총알이 네 심장을 뚫지 못해.≫

이것이 내 사진을 주면서 최현이 한 전달사라고 할가.

그 후 최현은 최고사령부에 와서 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슬며시 최현의 약을 올려주었다.

≪하여튼 최현은 어쩔수 없는 최현이구만. 그런데 김만성이란 그 분대장은 톡톡히 손해를 봤소. 아무렴 성냥곽만한 사진이 훈장을 탄것만치야 하겠소.≫

≪그건 너무 야박한 말씀입니다. 이 최현이 아니고야 누가 그런 표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군님, 사진은 사진이고 장군님도 한턱 내셔야겠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불의적인 역습이였다.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인전의 명수에게 걸려든 것이다.

병사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군단장아바이≫의 그 느슨한 도량은 눈물이 날 지경으로 나를 감동케 하였다.


김철호

≪옳소. 그렇게 합시다. 사진이야 최현동무 몫인데…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감사도 보내고 훈장도 줍시다.≫

이 하나의 물방울같은 세부를 통해 우리는 최현을 더 깊이 파악하게 된다. 이 일화에는 그의 고결한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다.

최현은 대체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가 지니고 있던 인간적 매력을 더 충실하게 전달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더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초연에 걸고 비바람에 고삭은 그의 자서전은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과 사변들로 가득차 있다.

최현은 일평생 비관을 모르고 살아온 낙천가였으며 어떤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고 곧추앞으로만 돌진해온 탱크와 같은 사나이였다.

그가 사랑한 사람들은 어떤 형의 인물들이였던가? 솔직한 사람, 단순한 사람, 근면한 사람, 대담한 사람, 성실한 사람, 통이 큰 사람, 뒤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 필요한 결심을 내릴 줄 아는 사람…그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제일 싫어한 것은 아첨쟁이, 비겁쟁이, 건달뱅이, 수다쟁이였다. 그는 주머니를 1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꺼풀을 12개씩이나 쓰고 사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였다.

그가 이름난 장기광이라는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사실이다. 최현은 장기경기에서 한번 지고 나면 밥맛을 잃을 정도로 분해하였다. 그러나 그 누가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느라고 슬쩍 지거나 비켜주면 그보다 더 불쾌해하였다. 최현은 전국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영화애호가이기도 하였다. 그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였던지 **김정일**조직비서는 그에게 영사기까지 보내주었다. 최현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전쟁영화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전쟁영화는 싫어하였다.

최현이 병석에서 임종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나는 여러 번 그를 찾아갔다. 병마와의 싸움에서 지칠대로 지친 그의 몸집은 10대전반의 어린소년들을 연상시킬 정



최현과 함께

도로 체소하고 볼품없이 보였다.

저 자그마한 사람이 과연 두 대전의 파도를 헤가르며 적들을 쩔쩔매게 하던 ≪감때사나운 사나이≫, 백전노장 최현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무판대기처럼 꽛꽛하던 손마저 힘살이 풀리고 장알이 빠져서 어린아이들의 것처럼 노곤노곤해졌다.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이것보 최현이, 그 호랑이 같던 ≪사이껜≫이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소?≫하고 말하자 최현은 갑자기 입술을 씰룩거리며 오열을 터뜨렸다.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어주면서 그를 진정시켰다.

≪최현동무, 울지마오. 울면 기운이 빠지오.≫

≪수령님, 제 미혼진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때두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미혼진, 그래. 어쩐지 그때가 그리워지는구만. 고생스러운 때였지만 우린 다들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이들이 아니었소. 가만, 최현동무의 그때 나이가 서른이었던가?≫

≪네, 지금의 계산법으로 하면 29살이었지요. 그때 수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맹세를 다지던 생각이 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수령님, 그

때 일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오. 왜 생각나지 않겠소.≫

≪그런데 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수령님,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내가 죄송스럽소. 내가 동무를 더 잘 돌봐주었더라면 동무가 이 지경이 되지 않는건데 내내 일만 시켰거든. 그것도 힘든 일만 골라가면서 말이요. 난 그것이 후회되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일평생 수령님께 폐만 끼쳤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수령님께서만은 건재하셔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수령님 몸을 좀 돌보십시오. 최현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수령님은 자신을 너무 돌보시지 않는게 탈입니다.≫

최현은 서거 직전까지 줄곧 나에 대한 말만 하였다고 한다.

나를 보좌하는 일군들이 문병을 갈 때마다 그는 ≪수령님께서 건강하시요? **김정일**조직비서동지께서 건강하시오?≫하고 묻곤 하였다.

나는 일생동안 힘든 일만 시키다가 최현을 보낸 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하나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어 나온 영화가 바로 예술영화 ≪혁명가≫이다.

가정에서의 최현의 공적은 처자들을 모두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충신으로 키워낸 것이다. 최현의 아내 김철호는 일생을 혁명으로 살아온 백절불굴의 투사였다. 그는 적구에서 지하공작도하고 우리와 함께 무장투쟁도 하였다. 여성의 몸으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준령과 임해설원에서 손에 총을 잡고 10년동안이나 적들과 겨불내나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북극탐험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김철호는 적의 토벌을 받는 순간 총소리에 놀라 눈무지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산파도 없이 제손으로 태줄을 끊고는 그 몸으로 다시 추격해오는 놈들과 총격전을 벌인 불사조 같은 여성이었다. 빨치산시절의 그 모진 고초를 얼마나 값높게 여기였던지 그는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식들에게 꼭꼭 통강냉이죽을 해먹이군 하였다.

최현이 김철호를 광명의 길로 이끌어온 충실한 발동기라면 김철호는 최현의 다사다난한 한평생을 백화로 뒤덮이게 해준 따뜻한 빛이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백두산의 눈무지 위에서 굴리는 심정으로 엄하게 키워냈다. 그가 낳아 기른 아들들은 지금 **김정일**조직비서가 세워준 초소에서 인민대중을 하늘로 보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혁명의 3세, 4세들을 충신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청년총대장인 최용해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역사에서 위대한 기념비로 남게 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치르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그는 자기 어머니 김철호가 서거한 그날도 장례식에 잠깐 참가하고는 인민문화궁전에 나가 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축제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나는 그 보고를 받고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사회의 법칙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백두산밀에서는 백두의 정기를 타고난 후대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1세들이 눈보라와 강풍속에서 심혼을 다바쳐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조선혁명을 2세, 3세, 4세들이 **김정일**조직비서의 영도밑에 충효일심의 정신으로 부단히 계승완성시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선열들의 그 이념에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확신한다. 훌륭한 선열들의 품에서는 훌륭한 후대들이 자라나는 법이다.